

2010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 창 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위촉연구원	성 유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 I. 서론 ● 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평가 .....	3
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개발 .....	6
제2절 연구방법 .....	9
제3절 연구수행절차 .....	11
제4절 기대효과 .....	11

## II.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 13

제1절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	15
1. 여성의 경제 세력화 .....	16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	37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50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	61
제2절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	71
1.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과정 .....	71

2.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도	72
제3절 종합 평가	82
1.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평가	82
2. 서울시 성인지지도 평가	89

### III. 국제비교 93

제1절 여성의 경제세력화	95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95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99
3. 성별 평균임금비	102
4. 성별 관리직 비율	105
5. 성별 비정규직 비율	108
제2절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13
제3절 여성의 대표성 제고	115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115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17

### IV.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개발 125

제1절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개요	128
1. 지표의 명칭 및 개념	128
2. 지표의 구성	134

제2절 영역별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	136
1. 일 .....	136
2. 돌봄 .....	140
3. 문화 및 여가 .....	143
4. 건강 및 안전 .....	146
5. 도시공간 및 환경 .....	150
6.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153

제3절 사회조사 .....	157
1. 조사 대상 집단 구성 .....	157
2. 집단별 조사항목 .....	159

## V. 결 론 165

제1절 연구요약 및 함의 .....	167
---------------------	-----

제2절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171
-----------------------------------	-----

## 참고문헌 174

## ● 표 목차

표 I-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	4
표 I-2	서울시 성인지지표 통계데이터 자료원	9
표 II-1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15
표 II-2	서울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7
표 II-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값 변화 추이	18
표 II-4	서울시 성별 대학졸업자 및 취업자 수	20
표 II-5	성별 대졸자 취업률 지표값 변화 추이	20
표 II-6	서울시 성별 평균임금비 지표값 변화 추이	22
표 II-7	전국 성별 임금격차	23
표 II-8	서울시 성별·직업별 취업자 수(구직업분류 기준, 2003년~2008년)	24
표 II-9	서울시 성별·직업별 취업자 수(신직업분류 기준, 2006년~2009년)	25
표 II-10	성별 관리직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25
표 II-11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27
표 II-12	성별 정규직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28
표 II-13	서울시 대표자 성별 사업체 분포	30
표 II-14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31
표 II-15	서울시 성별 노동조합원 수 및 비율	32
표 II-16	서울시 자치구별·성별 노동조합원수 및 비율 (2008년)	33
표 II-1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지표값 변화 추이	34
표 II-18	서울시 가구주 성별·점유형태별 일반가구 수	36
표 II-19	성별 주택보유율 지표값 변화 추이	36
표 II-20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38
표 II-21	18세~60세 서울시 남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39
표 II-22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40
표 II-23	시도별·성별 60세 이상 인구 수	41
표 II-24	서울시 60세 이상 인구의 성별 구성비	42

표 II-25	서울시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43
표 II-26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지표값 변화 추이	43
표 II-27	서울시 성별 등록 장애인 수	45
표 II-28	서울시 성별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수 및 비율	46
표 II-29	성별 장애인 등록률 지표값 변화 추이	46
표 II-30	서울시 성 및 연령별 등록 장애인 현황 (2009년)	47
표 II-31	서울시 성 및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2009년)	48
표 II-32	서울시 성별 및 장애등급별 등록 장애인 현황 (2009년)	49
표 II-33	서울시 성별·연령대별 인터넷 사용 빈도	50
표 II-34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지표값 변화 추이	51
표 II-35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53
표 II-36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	54
표 II-37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55
표 II-38	서울시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57
표 II-39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지표값 변화 추이	58
표 II-40	서울시 성별 건강검진 수검현황	59
표 II-41	성별 건강검진률 지표값 변화 추이	60
표 II-42	서울시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61
표 II-43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62
표 II-44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63
표 II-45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63
표 II-46	서울시 성 및 직급별 공무원 수(2001~2009)	65
표 II-47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68
표 II-48	서울시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현황	69
표 II-49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70
표 II-50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72
표 II-51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73
표 II-52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74
표 II-53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75

표 II-54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76
표 II-55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77
표 II-56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78
표 II-57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79
표 II-58	2009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80
표 II-59	2009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81
표 III-1	OECD 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96
표 III-2	OECD 국가 교육정도별·성별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 (2008년)	99
표 III-3	OECD 국가의 대졸 이상 여성 취업률 및 성별격차 (2008년)	101
표 III-4	OECD 국가 성별 임금 차이	102
표 III-5	덴마크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	104
표 III-6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106
표 III-7	뉴질랜드 여성 고위직 비율 (2007년)	107
표 III-8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108
표 III-9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109
표 III-10	경제영역 GGG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112
표 III-11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14
표 III-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115
표 III-13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116
표 III-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118
표 III-15	덴마크 공공부문 고위관리직의 성별분포	119
표 III-16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120
표 III-17	GII(Gender Inequality Index)순위 비교(2008)	122
표 IV-1	몬트리올시의 여성친화도시 지표	130
표 IV-2	미국 IWPR 여성친화정책 지표	130
표 IV-3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의 전략과 행동수칙	131
표 IV-4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및 측정방법	135
표 IV-5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일	137



【 표 IV-6 】	일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	138
【 표 IV-7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돌봄 .....	141
【 표 IV-8 】	돌봄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	142
【 표 IV-9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문화 및 여가 .....	144
【 표 IV-10 】	문화 및 여가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	145
【 표 IV-11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건강 및 안전 .....	147
【 표 IV-12 】	건강 및 안전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	149
【 표 IV-13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도시공간 및 환경 ·	151
【 표 IV-14 】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	152
【 표 IV-15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155
【 표 IV-16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	157
【 표 IV-17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 .....	159
【 표 IV-18 】	사회조사분야 비혼여성집단 조사항목 .....	160
【 표 IV-19 】	사회조사분야 기혼여성집단 조사항목 .....	161
【 표 IV-20 】	사회조사분야 여성노인집단 조사항목 .....	162
【 표 IV-21 】	사회조사분야 여성한부모집단 조사항목 .....	162
【 표 IV-22 】	사회조사분야 기타집단 조사항목 .....	163
【 표 V-1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	170

## ● 그림 목차

■ 그림 I-1	서울시 성인지지표 구성	4
■ 그림 I-2	민선 4기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비전 체계도	8
■ 그림 I-3	연구수행절차도	11
■ 그림 II-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19
■ 그림 II-2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21
■ 그림 II-3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	22
■ 그림 II-4	전국 성별 임금격차	23
■ 그림 II-5	성별 관리직 비율 변화 추이	26
■ 그림 II-6	성별 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	29
■ 그림 II-7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변화 추이	31
■ 그림 II-8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변화추이	34
■ 그림 II-9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37
■ 그림 II-10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38
■ 그림 II-11	서울시 국민연금 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39
■ 그림 II-12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변화 추이	40
■ 그림 II-13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44
■ 그림 II-14	성별 장애인 등록률	46
■ 그림 II-15	서울시 성 및 연령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09년)	47
■ 그림 II-16	서울시 성 및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09년)	48
■ 그림 II-17	서울시 성별 및 장애등급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09년)	49
■ 그림 II-18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51
■ 그림 II-19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56
■ 그림 II-20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변화 추이	58
■ 그림 II-21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60
■ 그림 II-22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변화 추이	62
■ 그림 II-23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변화 추이	63
■ 그림 II-24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68

■ 그림 II-25	■ 성별 주요 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변화 추이 .....	70
■ 그림 II-26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값 변화 .....	82
■ 그림 II-27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지표값 변화 .....	82
■ 그림 II-28	■ 성별 평균임금비 지표값 변화 .....	83
■ 그림 II-29	■ 성별 관리직 비율 지표값 변화 .....	83
■ 그림 II-30	■ 성별 정규직 비율 지표값 변화 .....	84
■ 그림 II-31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지표값 변화 .....	84
■ 그림 II-32	■ 성별 주택보유율 지표값 변화 .....	84
■ 그림 II-33	■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율 지표값 변화 .....	84
■ 그림 II-34	■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지표값 변화 .....	85
■ 그림 II-35	■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지표값 변화 .....	85
■ 그림 II-36	■ 성별 장애인 등록률 지표값 변화 .....	86
■ 그림 II-37	■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지표값 변화 .....	87
■ 그림 II-38	■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지표값 변화 .....	87
■ 그림 II-39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지표값 변화 .....	88
■ 그림 II-40	■ 성별 건강검진률 지표값 변화 .....	88
■ 그림 II-41	■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	89
■ 그림 II-42	■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	89
■ 그림 II-43	■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값 변화 .....	89
■ 그림 II-44	■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지표값 변화 .....	89
■ 그림 II-45	■ 영역별 서울시 성인지지도 변화 .....	90
■ 그림 II-46	■ 서울시 양성평등지수 변화 .....	91
■ 그림 III-1	■ OECD 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9년) .....	97
■ 그림 III-2	■ 서울시, 한국, OECD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9년) .....	97
■ 그림 III-3	■ 서울시, 도쿄, 멜버른, 뉴욕, 베를린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98
■ 그림 III-4	■ 여성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 (2008년) .....	100
■ 그림 III-5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비교 .....	101
■ 그림 III-6	■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차이 (2008년) .....	103
■ 그림 III-7	■ 덴마크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 .....	104

■ 그림 III-8 ■ 서울시, 도쿄, 스톡홀름의 임금격차 .....	105
■ 그림 III-9 ■ 뉴질랜드 여성 고위직 비율 (2007년) .....	107
■ 그림 III-10 ■ OECD 국가별 여성의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2009년) ·	109
■ 그림 III-11 ■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2009년) .....	110
■ 그림 III-12 ■ 서울시 비정규직, 베를린 시간제 고용(Part-time)과 임시직 (Temporary) 비율 .....	111
■ 그림 III-13 ■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	112
■ 그림 III-14 ■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2006-2010) .....	113
■ 그림 III-15 ■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2010년) .....	116
■ 그림 III-16 ■ 서울시, 베를린 여성 의원 비율 (2010년) .....	117
■ 그림 III-17 ■ 덴마크 공공부문 고위관리직의 성별분포 .....	120
■ 그림 III-18 ■ GGG 국가별 정치영역 참여 지수 .....	121
■ 그림 III-19 ■ GGG 국가별 정치영역 참여 지수 2006~2010 .....	121
■ 그림 III-20 ■ 국가별 GII지수 (2010년) .....	123
■ 그림 IV-1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	129
■ 그림 IV-2 ■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 정체성(안) .....	133
■ 그림 IV-3 ■ 민선4기와 민선5기 여행프로젝트 정체성 차이 .....	133
■ 그림 IV-4 ■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 영역별 중점과제(안) .....	134

## ■ 연구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 : GSI)는 서울시 여성의 지위나 현황의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척도로 개발되었음.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서울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 자료로 축적시킬 것으로 목표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 측정을 실시하고 성인지 지수를 산출하여, 2005년도부터의 측정치 및 산출된 성인지 지수를 비교해 그동안 서울시 성평등 정도의 변화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민선 4기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던 여행프로젝트의 성과를 담고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언할 수 있는 성인지지표의 발전된 형태인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 제안하고자 함.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프로젝트라는 독자적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해 왔고, 200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서울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분명히 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라는 명칭으로 여성친화도시 서울시를 지향하는 성인지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는 민선 5기 여성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 연구방법

- 국내외 통계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
-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주재의 TFT 구성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여성행복도시팀장, 서울시 여성행복도시팀 주무관 2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외 연구자 4인, 외부 전문가 2~3인 참여. 총 5회의 회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 회의를 통해 여행프로젝트의 영역과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방향이 도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정비와 관리지표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음

## 3. 기대효과

- 성인지지표 측정결과 및 성인지지수 산출결과를 통해 서울시 여성의 현황 및 성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서울시 각 실·국에서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가짐. 궁극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추후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함

## II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및 평가

####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도에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개발되었다가 2008년에 5개 영역 26개 지표로 서울시 성인지지표 1차안이 구성되었음.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4개 영역 19개 지표가 선정됨. 각 지표별 측정치 및 지표값(여성/남성)은 다음과 같음

표 1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치 및 지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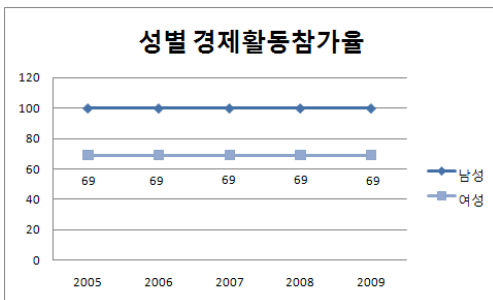
영역	세부지표	여성	남성	지표값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9.8	72.5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3.3	69.2	0.91
	3. 성별 평균임금비	65.4	100	0.65
	4. 성별 관리직 비율	25.2	32.9	0.77
	5. 성별 정규직 비율	43.2	64.3	0.67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2.0	68.0	0.4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8	80.2	0.25
	8.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15.1	84.9	0.18
소수자 여성사회 통합	9.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3.5	94.2	0.67
	10.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5	9.4	0.80
	11. 성별 장애인 등록률	41.3	58.7	0.70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2. 성별 인터넷활용 가능률	68.5	80.0	0.86
	13.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21.7	39.5	0.55
	14.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51.4	60.5	0.85
	15. 성별 건강검진율	55.8	57.3	0.97
여성의 대표성 제고	16. 성별 광역의회의원 비율	13.5	86.5	0.16
	17. 성별 기초의회의원 비율	18.6	81.4	0.23
	18.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3	8.3	0.16
	1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9.6	12.3	1.28

## 2) 서울시 성인지지표값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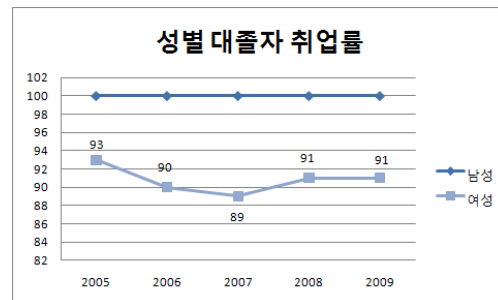
-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 세부지표별로 도출되는 지표값은 남성을 1로 보았을 때의 여성의 달성 정도인데, 각각의 지표값을 100% 환산 비율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여성의 경제세력화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지표값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성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별 대졸자 취업률의 성별 차이는 2007년도까지의 하락 추세에서 2008년도에 다시 좁혀졌으나 2009년도 지표값도 2005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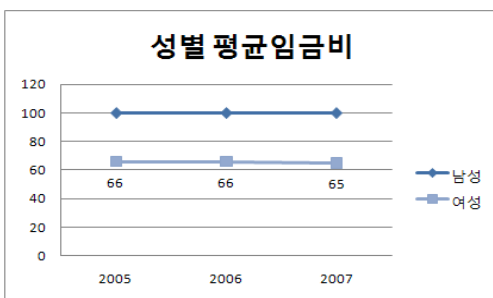


■ 그림 1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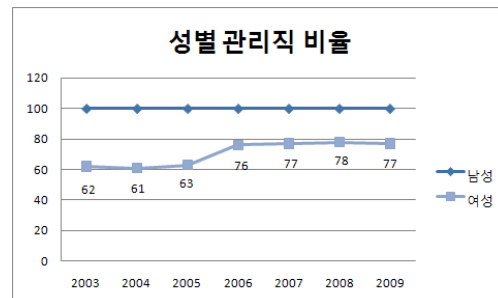


■ 그림 2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지표값 변화

- 성별 평균임금비는 2007년도 들어오하려 지표값이 하락하였음. 이 지표는 지역별 데이터가 2007년 이후부터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성별 관리직 비율의 지표값은 2006년 이후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3 ■ 성별 평균임금비 지표값 변화



■ 그림 4 ■ 성별 관리직 비율 지표값 변화



- 성별 정규직 비율의 격차는 2007년도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2008년도부터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여성 사업체 대표자가 남성의 50%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꾸준히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는 지표값이 미미하게 상승함에 따라 성별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성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성별 주택보유율은 성별 격차가 큰 지표이나 2005년 이후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고 적합한 통계데이터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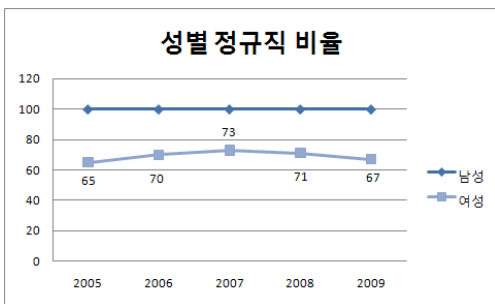


그림 5 | 성별 정규직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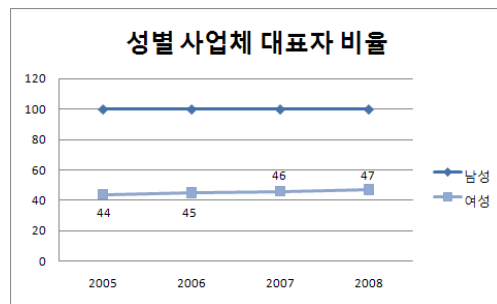


그림 6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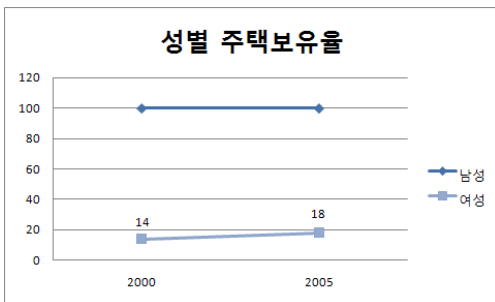


그림 7 | 성별 주택보유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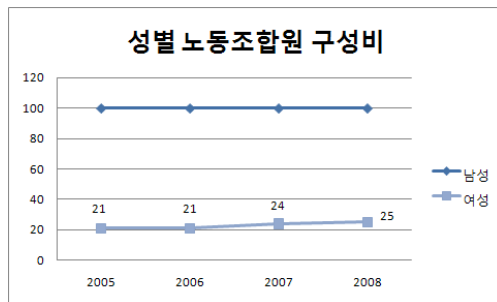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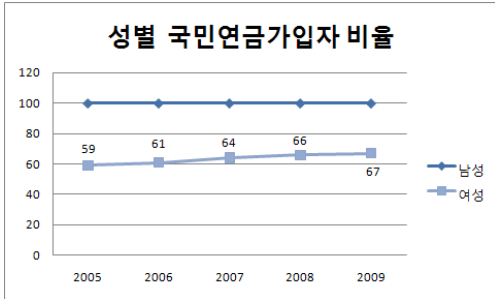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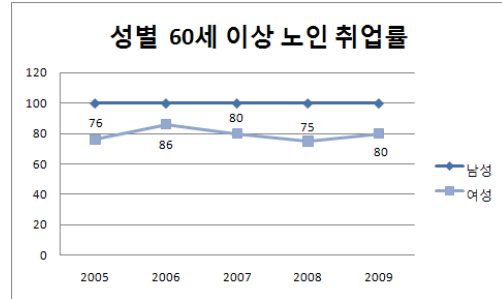
그림 8 |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율 지표값 변화

##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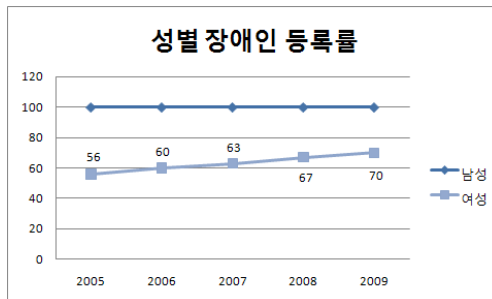
-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은 이 영역의 지표 중 가장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표이나,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의 지표값은 2009년도에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취업률이 100%일 때, 여성 노인의 취업률은 80%를 보임. 성별 격차가 작은 것으로 여겨지나, 60세 이상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성별 장애인 등록률은 성별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고 있는 지표 중 하나임



【그림 9】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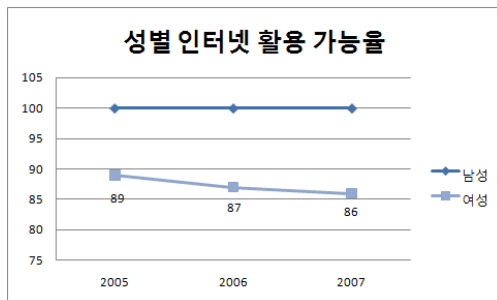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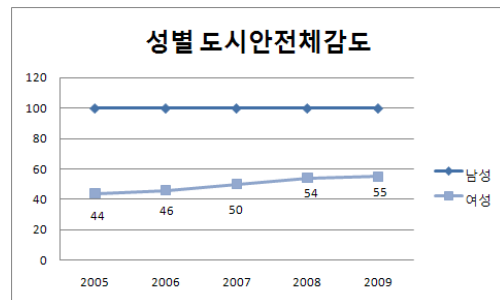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장애인 등록률 지표값 변화

###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그림 12】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지표값 변화



【그림 13】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지표값 변화

-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은 지표값이 하락하면서 성별 격차가 더 벌어졌음. 이는 자료원인 서울 서베이의 조사 문항 자체가 바뀐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함.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성별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고 있는 지표임.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 역시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지표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성별 건강검진률은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하여 성별 격차가 매우 미미한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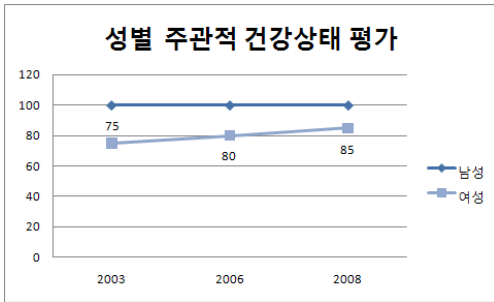


그림 14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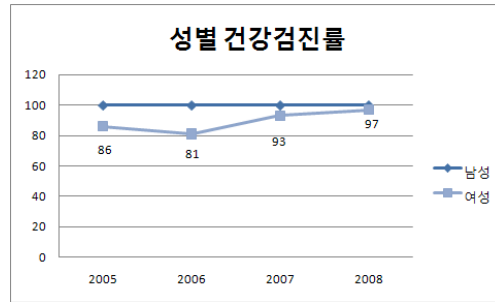


그림 15 | 성별 건강검진률 지표값 변화

####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및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은 성별 격차가 매우 크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지표임. 광역의회보다는 기초의회에서 여성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지표값 변화가 미미함.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은 2006년도의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비율이 계속 남성을 앞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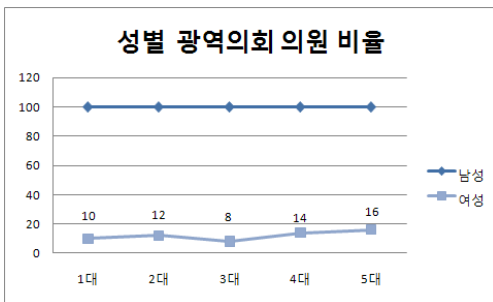


그림 16 |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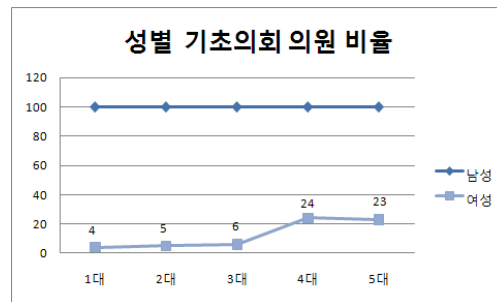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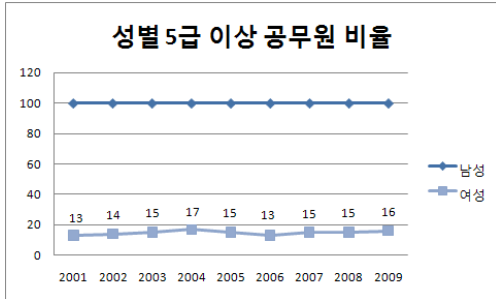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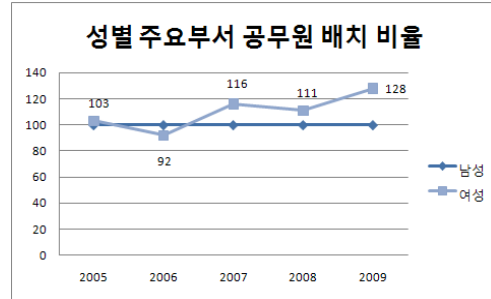


그림 17 |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 그림 18 ■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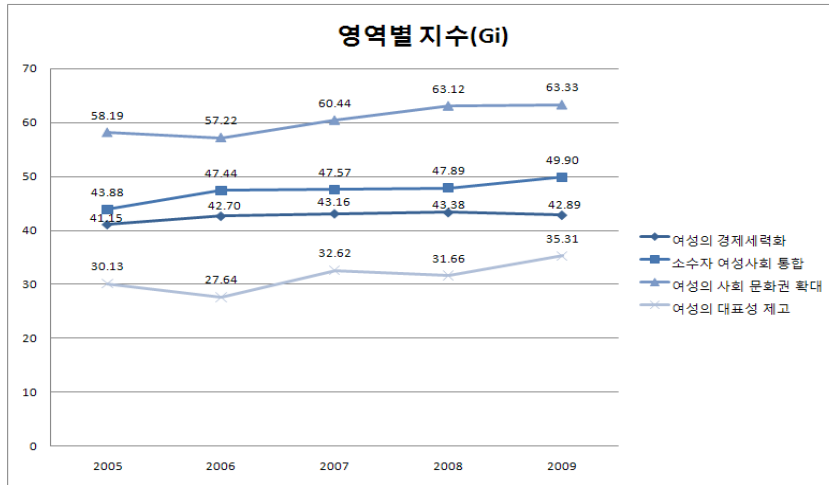
■ 그림 19 ■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지표값 변화

## 2.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및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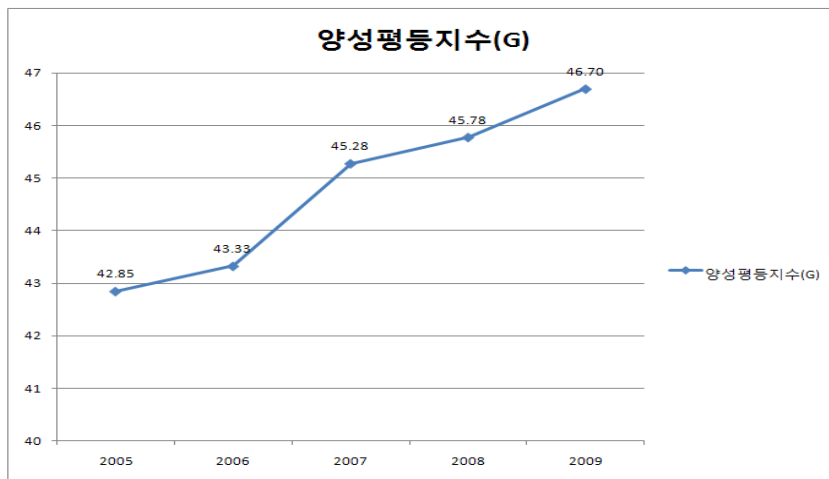
- 2009년 서울시의 양성평등지수는 46.70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음. 서울시 양성평등지수는 미약하지만 해마다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성평등 수준이 현재 가장 높은 영역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임. 그다음으로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순으로 나타남
-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년도 대비 지수값의 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만 하락한 모습을 보임. 전년도 대비 향상폭이 가장 큰 영역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임. 이는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꾸준히 높은 지표값을 유지하는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도 이 영역의 성평등 정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다만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지표에서 지표값 상승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표 2 ■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및 영역별 지수(2005년~2009년)

영역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2.85	43.33	45.28	45.78	46.70
여성의 경제세력화	41.15	42.70	43.16	43.38	42.89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43.88	47.44	47.54	47.89	49.90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58.19	57.22	60.44	63.12	63.33
여성의 대표성 제고	30.13	27.64	32.32	31.66	35.51



■ 그림 20 ■ 영역별 지수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



■ 그림 21 ■ 서울시 양성평등지수(G)의 연도별 변화 추이

### III 정책 제언

#### 1.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선방안

##### 1)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민선 4기 동안 서울시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개발된 지표로서 개발 당시 1차 측정기간은 2007년~2010년으로 설정되었음. 민선 5기가 출범한 현재, 서울시 성인지지표가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특히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였음. 이에 따른 성과가 또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을 측정하는 지표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민선 5기 동안 여행프로젝트가 지속되는 바, 지표의 측정 결과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칭하는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때 필요한 정책영역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기존의 여성정책이 담보하였던 영역까지를 모두 포괄함. 다시 말해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 포함된 영역인 경제, 돌봄, 사회통합, 문화, 건강, 폭력대응, 대표성 등에 더하여 교통안전, 주거안정, 환경,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표가 도시 전반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수립에 있어 여성시민 및 여성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을 보이하고자 함

표 3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text{여성 경제활동인구} / \text{15세 이상 여성인구}) \times 100$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text{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text{전체 사업체 수}) \times 100$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강화	성별 평균임금비	$(\text{여성 월평균 임금} / \text{남성 월평균 임금}) \times 100$
		성별 관리직 비율	$(\text{여성 관리직 수} / \text{전 직종 여성 수}) \times 100$
		성별 정규직 비율	$(\text{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text{여성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일-가족 양립 지원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text{여성 육아휴직자 수} / \text{전체 육아휴직자 수}) \times 100$
부부 가사노동 시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돌봄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국공립 보육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 100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비율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수 / 재가 아동 수) × 100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확대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여성 이용자 수 / 전체 여성 노인 수) × 100
		여성장애인도우미(홈헬퍼) 지원사업 이용율	(홈헬퍼 이용자 수 / 사업 대상 여성장애인 수) × 100
문화 및 여가	문화창조 활동 지원	성별 문화예술사업 종사인력비율	(여성 문화예술사업종사자 수 / 전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수) × 100
		문화창조활동 지원금 수혜자의 여성비율	서울시 내부자료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건강 및 안전	건강 서비스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 100
		성별 유병률	(기간내(2주간) 유병자 / 조사 대상 인구) × 100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여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가정폭력 발생 건수 + 성폭력 발생 건수
도시 공간 및 환경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성별 교통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보행환경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도시환경 개선	대기오염도	서울시 내부자료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인지 예산서 제출 실국 수 / 서울시 전체 실국 수) × 100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당해연도 정책 건수 / 전년도 정책 건수) × 100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성인지교육 이수자 수 / 전체 공무원 수) × 100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의회 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 광역 및 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 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 수) × 100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서울시 및 자치구 위원회 여성위원 수 / 서울시 및 자치구 위원회 전체위원 수) × 100
성별 자원봉사 참여 비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 2)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구성

-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한 김태홍 외(2010)에 따르면 대표지표(representative indicator)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함. 그리고 관리지표(administrative indicator)는 대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

표로서 각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지칭함

- 대표지표 이외에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표지표와 각 행정부처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적 노력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시 말해서 국가성평등지수 혹은 성인지표 등과 같은 대표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임. 사실상 국가성평등지수나 서울시 성인지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등과 같은 지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임. 지표값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였을 때, 그것이 사실(fact)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대표지표가 실제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정책목표를 설정한 뒤, 영역 복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을 통해 생산·관리될 수 있거나 영역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관리되어야 하는 관리지표를 선정함

【 표 4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영역	세부영역	대표지표	관리지표
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신규 여성 일자리 수 신규 여성 취업자 수 여성 취·창업 훈련 수료생 일자리 연계 비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관리직 증가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서울시 여성가족친화인증 기업 증가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강화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일-가족 양립 지원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부부 가사노동 시간			
돌봄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인증 서울형 어린이집 증가율 공공보육시설 증가율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증가율 노인복지시설 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여성 비율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수혜자 중 여성 비율
		아이돌봄미 지원 아동비율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확대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여성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율	



영역	세부영역	대표지표	관리지표
문화 및 여가	문화창조 활동 지원	성별 문화예술사업 중사인력비율	여성사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정도
		문화창조활동 지원금 수혜자 여성비율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의 여성 참여 비율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여성 예술가 입주 정도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	성별 여가활동 비용	여성 작가 전시 지원 비율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서울시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여성 참여 비율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 비율
건강 및 안전	여성 건강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보건소 내 건강증진사업 여성 이용 비율
		성별 유병률	여성 건강 증진 사업 이용 여성 증가율 인구 1,000명당 CCTV 설치 대수 CPTED 설계 도입 증가율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아간보행 안전도	여행 콜택시 증가율
		여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수 여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
도시공간 및 환경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성별 교통 만족도	저상버스 증가율 여행버스 증가율
		성별 보행환경 만족도	여행길 증가율 여행화장실 증가율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여행아파트 증가율 여행 일반 건축물 증가율
	도시환경 개선	대기오염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증가율
도시 소음도		자전거 전용 도로 증가율 생활 폐기물 재활용율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행정통계의 성별분리 생산 증가율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5급 이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가율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점수 향상률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배치 비율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의회 의원 비율	각종 조례의 여성 참여 의무 비율 명시 정도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여행 동반자 시정 참여율 자치구 여행 포럼 구정 참여율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행 프로슈머 활용율
성별 자원봉사 참여 비율		여성 리더십 향상 사업의 여성 참여율	

## 2. 서울시 성평등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1)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필요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임. 서울시에서는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결쳐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공무원 승진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직의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그 결과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06년도에 비해 조금 상승했다고 보이나, 여전히 지표값은 대단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이에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여학생 대상 정치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의회위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젠더 거버넌스의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는 젠더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지표를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직접적으로 지표값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공식화한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정의 여성 관점을 도입을 활발히 한다면 이는 여성의 정치적·행정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임. 현재로서는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됨

## 2)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필요

-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성별 정규직 비율’에서의 성별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서울시의 여성 노동 관련 정책에서는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에 관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움. 사실상 여성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국가 전체의 상황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표값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여성 고용 안정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보이고 민간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성별 평균임금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별 평균임금비는 여성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성별 평균임금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서울시 남녀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3)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필요

- 서울의 도시 안전도는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음. 도시안전체감도에 있어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지만, 꾸준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서울시에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이를 통해 2006년도 이후 여성의 도시 안전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왔다고 보임.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도의 경우 향상 정도가 미약함. 추후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여성 및 아동의 안전한 도시 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는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나 ‘성별 건강검진률’과 같은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두 지표 모두 성별 격차는 미미하거나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임. 그러나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검진률 자체가 낮다는 데 있음.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

서론



# I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평가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 : GSI)는 서울시 민선 4기 인수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시 여성의 지위나 현황이 어느 수준인가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척도로서 개발되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서울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 자료로 축적시킬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조영미 외, 2006a).

이어 2007년도에는 5개 영역 25개 세부지표로 개발된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을 하고 정책을 제언하였다(조영미 외, 2007). 2008년도에는 성인지지표 측정에 더하여, 서울시 성인지지표 전반의 변화와 영역별 변화 추이를 객관적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성인지 지수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도의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5개 영역 26개 지표인데,<sup>1)</sup> 이에 대하여 서울시 성인지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양성평등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 때의 선정 기준은 첫째, 남녀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지표가 아닌지, 둘째, 극단적인 지표값으로 지수를 왜곡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셋째, 정(+ )의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인지의 여부였다. 그 결과 10개의 세부지표가 양성평등지표에서 제외되거나 대체되었으며, 1개 영역이 삭제되어<sup>2)</sup> 총 4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하여 지수화가 이루어졌다(조영미 외, 2008).

현재까지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 성인지지표 4개 영역 19개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여성의 경제세력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등 4개이며,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는 8개 지표가, 소수자

1) 2006년도 지표 개발 시 하나의 지표였던 '성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비율'을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로 구분함에 따라 지표수가 1개 증가하였다.

2) 삭제된 영역은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영역이다. 이 영역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외 2개 지표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었고,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만으로 영역을 대표할 수 없어 지표와 영역이 함께 삭제되었다.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3개 지표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는 4개 지표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는 4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그림 1-1 ■ 서울시 성인지지표 구성

■ 표 1-1 ■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

연도	과제명	주요내용
2006	서울시 성인지 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지표 개념 설정 및 지표체계 구성</li> <li>세부지표 값 측정 및 목표치 제시</li> </ul>
2007	서울시 성인지지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개 세부지표 값 측정</li> <li>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시계열간 비교</li> <li>국내 지역비교 및 OECD 국가 비교</li> </ul>
2008	서울시 성인지 지표 평가 및 지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 지수 개발 및 3개년 간의 서울시 성평등 정도 평가</li> <li>세부지표 값 측정 및 OECD 국가 비교</li> <li>영역별 대체지표 및 보완지표 개발</li> </ul>
2009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지표 값 측정 및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비교</li> <li>OECD 국가 비교</li> <li>영역별 성인지지수 산출 및 양성평등지수 산출</li> <li>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1차안 개발</li> </ul>

2009년도에는 2008년도의 연구에 이어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측정하고 지표값을 통해 각 영역별 성인지지수 및 전체 영역에 대한 서울시 양성평등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2006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당시 각 지표별로 제시되었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되



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이루어진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의 연도별 과제명과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독자적인 성평등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려는 노력은 타 시도에서도 있어 왔다. 일례로 대전에서는 2004년도에 「대전시 양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2006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도시 체감지수에 대한 시민의식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인천시에서는 사회복지발전지표 개발 시, 여성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부산여성생활조사 : 성평등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여성생활 조사의 지표는 크게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영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가족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행복한 생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잔걱정이 사라진 든든한 생활, 편리하고 여유로운 문화생활, 일상적인 안전이 보장된 안전한 생활, 여성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당당한 생활이 그것이다(주정미 외, 2009).

2005년도에 개발된 「한국양성평등지표」는 각 지역 간의 양성평등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관점에서 전국의 양성평등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고 전국 최소 양성평등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전략을 마련하고자 개발되었다. 이러한 한국양성평등지표는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유경 외, 2005).

「문화정책의 성분적 평가지표」 역시 2005년도에 개발되었다(류정아, 2005). 이 지표는 문화정책에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개발된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지표라는 점에서 여타의 사회지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성별영향평가 지표와 가깝다.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양성평등 문화지표」(장미혜 외, 2008)와 「일가족양립지수」(송다영 외, 2008)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도에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성과(Outcome)지표로 구축되어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지표가 8개 부문 20개 지표로, 관리지표가 8개 부문 7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김태홍 외, 2010).

이처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성

인지지표는 2006년 개발 이래 4년째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지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 측정을 실시하고 성인지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2005년도부터의 측정치 및 산출된 성인지 지수를 비교하여 그동안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민선 4기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던 여행프로젝트의 성과를 담고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언할 수 있는 성인지지표의 발전된 형태인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 제안하고자 한다.

## 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선 4기 인수위원회의 제안으로 개발되어 올해까지 측정하고 있다. 성인지지표는 서울시 여성의 현재를 측정하여 내일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로 사회·정책적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정, 보완됨으로써 여성의 현실과 정책적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선 4기 동안 측정되어 온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대체하여 민선 5기 동안 측정,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지표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 4기 동안 서울시에서는 여행(女幸)프로젝트를 통해 시정의 전 영역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여행프로젝트는 최초의 지역정부 여성정책이자 도시 공간 문제를 도입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실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조영미 외, 2009).

그러나 여행프로젝트는 또한 미흡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대표적인 한계는 여행프로젝트가 전업주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라는 것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이다(조영미 외, 2009).

서울시 성인지지표에는 민선 4기동안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담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사회지표에 해당하는데, 사회지표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처음 사용한 학자인 레이몬드 바우어(Raymond Bauer)는 사회지표를 “우리들로 하여금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특정한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나 통계계열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Bauer, 1966; 문유경 외, 2005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가치지향점을 가지고 현재의 정책 내용과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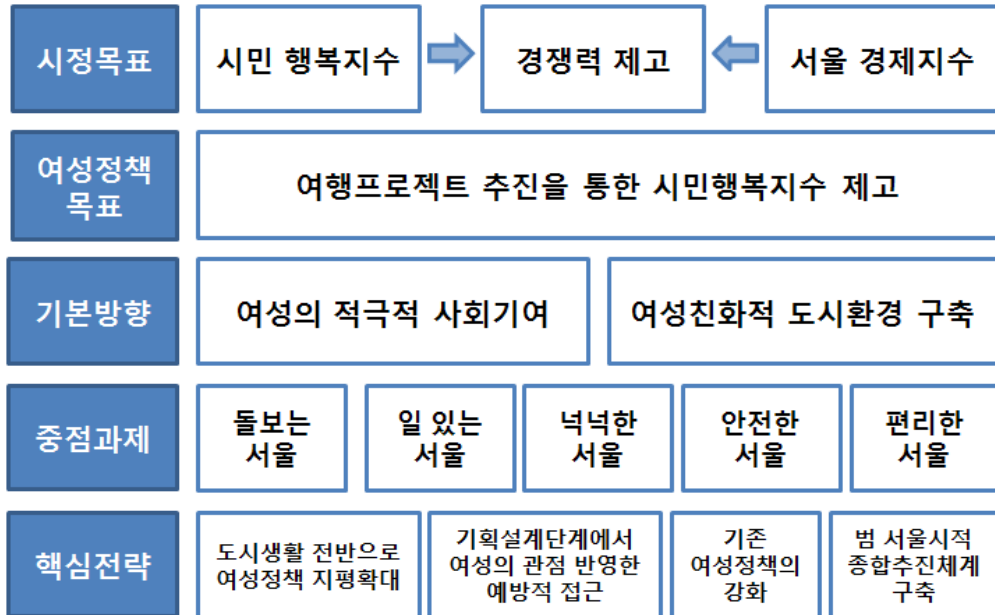
져야 한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또한 사회지표로서 서울시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점으로 분명히 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민선 3기까지 서울시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소외계층 복지증진이라는 틀에서 진행되었다. 민선 2기 여성정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립되었는데, 총 12개 과제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 2기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소외여성과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선 3기(2003년~2006년) 여성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며, 5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민선 3기의 정책방향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사회조성, 소외여성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의 4가지로 설정되었다(조영미 외, 2006b).

2006년도에 개발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민선 3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 4기 여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서울시 여성의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측정 기간은 민선 4기인 2010년까지이며,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과 영역 구분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성인지지표가 서울시 여성정책의 흐름에 민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인지지표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척도로서 서울시 여성의 현황과 정책의 현 상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성정책의 변화·발전 양상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바꾸어가 제시한 사회지표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프로젝트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고, 여성정책을 관련 부서만이 아닌 전 실·국 및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성주류화의 한 모델을 구축해왔다(■그림 1-2■ 참조). 또한 200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서울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변화가 서울시 성인지지표 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서울시를 지향하는 성인지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성인지지표 개선안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라는 명칭으로 구성되며, 민선 5기 여성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1-2 ■ 민선 4기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비전 체계도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룬다.

첫째, 서울시 성인지지표 세부지표별 측정치를 제시하고 성인지지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한다. 여기에서 활용되는 세부지표는 2008년도에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해 정리된 4개 영역 19개 지표이다.

둘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안을 제시한다. 영역 및 세부영역 그리고 세부지표와 측정방안 등을 제안하여 민선 5기 동안 활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2009년도의 연구를 통해 1차안이 구성,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안을 재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지표가 실제 정책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별 관리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셋째, 서울시 성평등 정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성인지지표 및 성인지지수 측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 제2절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외 통계자료 수집,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 측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주로 사용한 통계들은 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부처 및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들의 지역데이터이다. 또한 서울시 자체 생산 데이터로서 「서울서베이」조사 결과 및 각 부서의 행정통계를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세부지표별 통계데이터 출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한 통계는 OEC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UNDP, UNECE의 DB 통계 자료 중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글로벌 젠더격차지수 관련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통계와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세계 주요 도시들 중 관련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 발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와의 비교를 위해 이를 활용하였다.

【 표 1-2 】 서울시 성인지지표 통계데이터 자료원

영역	세부지표	자료원
여성의 경제 세력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대졸자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성별 평균임금비	서울시, 「서울서베이」
	성별 관리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정규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서울시 고용창업담당관 내부자료
	성별 주택보유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서울시, 서울시 복지국 내부자료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서울시, 「서울서베이」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서울시, 「서울서베이」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성별 건강검진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내부자료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의회의원선거총람」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의원 선거총람」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서울시 인사과, 서울시 서울통계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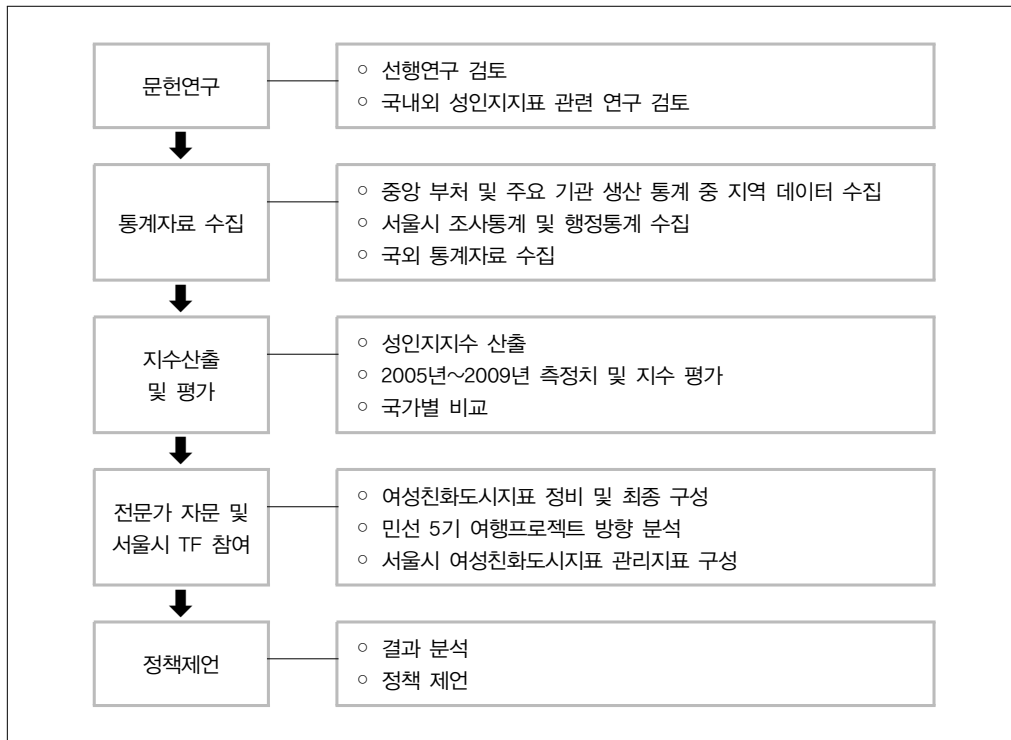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을 위해 활용된 통계들은 통계청의 조사통계자료, 중앙정부 등에서 발간된 통계자료들로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 서울시 내부 자료의 경우에도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으나, 발간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의 경우 전년도 연구에서는 서울시 인력운영과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나, 올해 연구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보하기보다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울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서, 서울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운영 방향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를 생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연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12개 분야, 42개 영역, 218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위한 조사를 가구조사, 사업체 조사, 외국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조사 사업이며, 그 결과는 다양하게 인용되어 정책 수립이나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김창연, 2008). 이러한 서울 서베이는 다른 조사나 통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폭넓은 조사라는 점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에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국제통계의 경우 여성권한척도(GEM)이나 성별격차지수(GGG) 등을 산출, 발표하는 UNDP 및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를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측정, 발표하고 있어 국제비교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둘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는 민선 4기 서울시 주요 여성정책인 여행프로젝트의 실무 부서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행복도시팀과 실시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주재하는 TFT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여성행복도시팀장, 서울시 여성행복도시팀 주무관 2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외 연구자 4인, 외부 전문가 2~3인이 참여하였으며, 총 5회의 회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여성정책인 여행프로젝트의 영역과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방향이 도출된 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정비하고 관리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셋째,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졌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로 여성친화도시지표가 가져야 할 요소와 세부지표의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내용은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최종 구성에 최대한 반영되었다.

### 제3절 연구수행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수집 및 지표 측정, 성인지지수 산출, 국제비교 수행,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TF 참여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각 절차별 세부 수행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 그림 1-3 ■ 연구수행절차도

### 제4절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첫째, 성인지지표 측정결과 및 성인지지수 산출결과를 통해 서울시 여성의 현황 및 성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이나 연구자, 서울시민 등이 정책입안이나 평가, 연구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 및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여성의 현황이나 성평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서울시 각 실·국에서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선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이 가져야 할 목표 지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추후 서울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민선 4기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 성인지지표 분석 및 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지표 제안은 이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

##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 II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 제1절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도에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개발되었다가 2008년에 5개 영역 26개 지표로 서울시 성인지지표 1차안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4개 영역 19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② 성별 대졸자 취업률, ③ 성별 평균임금비, ④ 성별 관리직 비율, ⑤ 성별 정규직 비율, ⑥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⑦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⑧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등 8개 지표이다. 그리고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①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②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③ 성별 장애인 등록률 등 3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지표는 총 4개로 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②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③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④ 성별 건강검진률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총 4개의 지표인 ① 성별 광역의회 위원비율, ②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③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④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이 포함되었다. 성평등지수 산출을 위한 4개 영역 19개 지표와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II-1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여성인구)×10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 대졸자 취업률 = (여성취업자 수 / 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100
	3.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임금비 = (여성 월평균 임금 / 남성 월평균 임금)×100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전 직종 여성 수)×100

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의 경제 세력화	5.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정규직비율 =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 / 여성 임금 근로자 수)×100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10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 (여성 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100
	8.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 포함)	여성 주택보유율 = (여성 명의 주택의 수 / 전체 주택의 수)×100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9.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수 / 18~60세 인구)×100
	10.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100
	11.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장애인 등록률 = (여성장애인 등록 수 / 전체 장애인 수)×100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2. 성별 인터넷활용 가능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비율 :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13.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14.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 : 사회통계조사 결과
	15. 성별 건강검진율	여성 건강검진율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100
여성의 대표성 제고	16. 성별 광역의회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 (여성의원 수 / 전체 의원 수)×100
	17. 성별 기초의회의원 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여성의원 수 / 전체 의원 수)×100
	18.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100
	1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100

이러한 산식에 따라 4개 영역 19개 지표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역별 지표 측정 결과와 이에 따른 지표 값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는 총 8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여성인구) \* 100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남성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남성인구)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69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령인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례를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성별에 따른 역할분업의 해소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촉진하는 바, 한 사회의 여성의 권한이나 지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와 양상을 살펴볼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 이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할 수 있다(조영미 외, 2006a).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성별로 산출한 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한다.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동일하다면 지표값은 1로 산출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서울시의 15세 이상 여성인구는 4,279천명으로 남성의 4,044천명보다 많으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132천명으로 남성경제활동인구 2,932천명보다 오히려 적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09년도의 경우 여성은 49.8%로 남성의 72.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표 II-2 서울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sup>1)</su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sup>2)</sup>	취업률 <sup>3)</sup>	실업률 <sup>4)</sup>
		계	취업자	실업자				
<b>서울시</b>								
2003	8,027	4,981	4,753	228	3,046	62.1	59.2	4.6
2004	8,039	5,068	4,831	237	2,971	63.0	60.1	4.7
2005	8,115	5,135	4,890	246	2,980	63.3	60.3	4.8
2006	8,161	5,137	4,905	232	3,023	63.0	60.1	4.5
2007	8,187	5,148	4,940	207	3,040	62.9	59.8	4.0
2008	8,258	5,122	4,922	201	3,136	62.0	59.6	3.9
2009	8,332	5,064	4,835	228	3,259	60.8	58.0	4.5
<b>여성</b>								
2003	4 119	2 060	1 972	88	2 060	50.0	47.9	4.3
2004	4 129	2 131	2 039	91	1 998	51.6	49.4	4.3
2005	4 170	2 167	2 068	99	2 004	52.0	49.6	4.6
2006	4 199	2 179	2 090	89	2 020	51.9	49.8	4.1
2007	4 215	2 179	2 107	72	2 036	51.7	50.0	3.3
2008	4 246	2 167	2 095	72	2 079	51.0	49.3	3.3
2009	4 279	2 132	2 057	75	2 147	49.8	48.1	3.5

	15세 이상 인구 <sup>1)</su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sup>2)</sup>	취업률 <sup>3)</sup>	실업률 <sup>4)</sup>
		계	취업자	실업자				
<b>남성</b>								
2003	3 908	2 921	2 781	140	986	74,8	71,2	4,8
2004	3 910	2 937	2 792	146	973	75,1	71,4	5,0
2005	3 945	2 969	2 822	147	976	75,3	71,5	4,9
2006	3 961	2 958	2 815	143	1 003	74,7	71,1	4,8
2007	3 972	2 969	2 834	135	1 003	74,7	71,3	4,6
2008	4 012	2 955	2 827	129	1 057	73,7	70,5	4,3
2009	4 044	2 932	2 779	153	1 112	72,5	68,7	5,2

- ※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교도소 수감자, 직업군인, 외국인, 공익근무요원 등은 제외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100  
 3) 취업률(%) = 취업자 / 서울시 15세 이상 전체 인구 \*100  
 4)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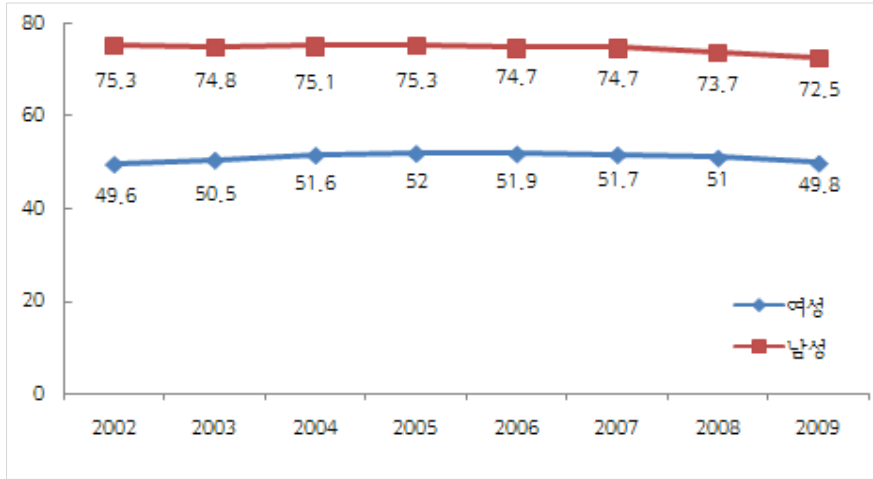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 2003년 50.5%를 기록한 이후 증가폭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5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는 49.8로 다소 하락한 모습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둘 다 조금씩 하락해옴에 따라 2009년도 지표값은 0.69로 2004년도부터 꾸준히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 표 II-3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49,6	50,5	51,6	52	51,9	51,7	51,0	49,8
남성	75,3	74,8	75,1	75,3	74,7	74,7	73,7	72,5
지표값	<b>0.66</b>	<b>0.68</b>	<b>0.69</b>	<b>0.69</b>	<b>0.69</b>	<b>0.69</b>	<b>0.69</b>	<b>0.69</b>



■ 그림 II-1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 대졸자 취업률(%) = (여성취업자 / 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 \* 100  
 남성 대졸자 취업률(%) = (남성취업자 / 남성졸업자-진학자-군입대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91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고학력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은 현재 남성에 비해 낮은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조영미 외, 2006a).

특히 서울시는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교육년수가 긴 도시이다. 2005년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1.3년으로 전국 여성의 평균인 10.0년보다 1.3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김유나 외, 2009). 고학력 인력을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특징을 고려할 때, 여성 대졸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조영미 외, 2006a).

【 표 II-4 】 서울시 성별 대학졸업자 및 취업자 수

(단위 : 명, %)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 불가능자	취업률
2004	여	37,169	16,827	5,330	-	-	-	<b>52.9</b>
	남	34,203	17,836	5,405	794	-	-	<b>63.7</b>
2005	여	36,843	21,033	5,246	-	-	-	<b>66.7</b>
	남	33,060	19,490	5,113	835	-	-	<b>71.9</b>
2006	여	36,661	20,997	4,790	-	189	44	<b>66.4</b>
	남	32,807	19,963	4,826	632	138	12	<b>73.4</b>
2007	여	37,325	20,851	4,929	-	267	29	<b>65.0</b>
	남	34,105	20,723	4,968	533	151	7	<b>72.9</b>
2008	여	36,067	20,262	4,633	-	345	21	<b>65.2</b>
	남	32,445	18,646	4,758	1,566	212	5	<b>72.0</b>
2009	여	34,544	18,632	4,714	-	400	14	63.3
	남	31,106	17,660	4,839	460	295	6	69.2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성별 대졸자 취업률은 여성 대졸자 취업률과 남성 대졸자 취업률을 각각 측정한 후 여성 취업률을 남성 취업률로 나누어 산출한다. 대졸자 취업률은 대졸자 중 진학자나 외국인 유학생, 취업불가능자, (남성의 경우) 군입대자를 제외한 인구 중 취업자로 정의된다. 이 지표 역시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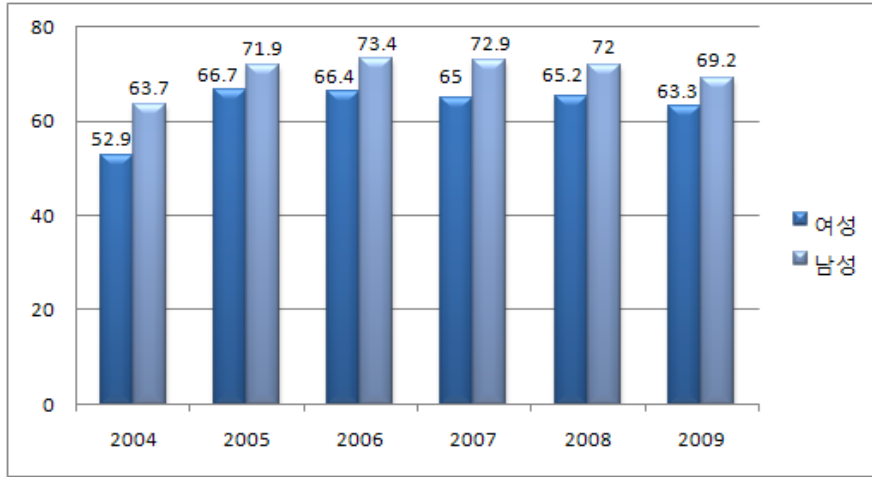
2009년도 서울시의 여성 대졸자는 34,544명으로 남성 대졸자 31,106명보다 많다. 그러나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63.3%로 남성 대졸자 취업률 69.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값은 2009년의 경우 2008년과 동일하게 0.91로 나타났다. 2004년도의 0.83에 비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2005년도의 0.93에 비하면 오히려 성차는 벌어졌다. 대졸자 취업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05년도까지는 상승세였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II-5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52.9	66.7	66.4	65.0	65.2	63.3
남성	63.7	71.9	73.4	72.9	72.0	69.2
지표값	<b>0.83</b>	<b>0.93</b>	<b>0.90</b>	<b>0.89</b>	<b>0.91</b>	<b>0.91</b>





■ 그림 II-2 ■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 (3)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평균 임금비(%) = (여성 월평균 임금 / 남성 월평균 임금) \* 100  
 지표값(2007년) : (여/남) = 0.65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여성의 노동이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 여성 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 여성 노동력이 남성에 비해 저숙련, 저임금직에 주로 배치된다는 점, 여성의 노동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보다 짧다는 점, 그리고 성별에 의한 승진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고위 직급에 여성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그 사회의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노동력이 처해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에 성별 평균임금의 격차가 줄어들다는 것은 노동시장 내 여성노동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의 감소는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조영미 외, 2006a).

성별 평균임금비는 남성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남성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성별 평균임금비는 2008년부터 지역별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7년도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봄과 동시에 전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통해 추정해야 한다.

2007년도의 서울시 성별 임금은 남성이 2,764,093원이고 여성이 1,806,423원으로 남성

이 여성보다 957,670원이 더 많다. 지표값은 0.65로 남성의 평균 임금을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여성의 평균 임금은 약 65만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성별 평균임금비의 지표값은 2002년 이래 0.65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0.66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다시 2002년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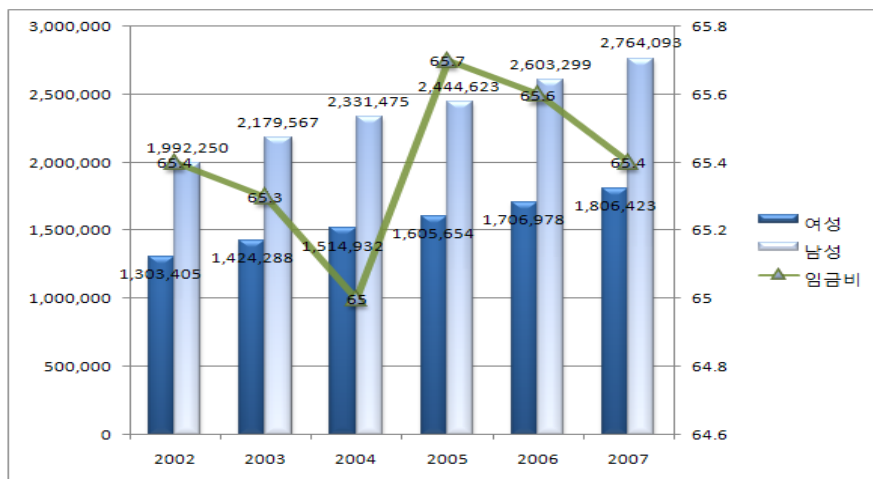
【표 II-6】 서울시 성별 평균임금비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1,303,405	1,424,288	1,514,932	1,605,654	1,706,978	1,806,423
남성	1,992,250	2,179,567	2,331,475	2,444,623	2,603,299	2,764,093
지표값	0.65	0.65	0.65	0.66	0.66	0.65

※ 주 : 임금총액 = 정책급여+초과급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 자료 : 서울 서베이 2009



【그림 II-3】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

한편 전국의 성별 임금비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08년도와 2009년도 모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도의 전국 성별 임금비는 62.9로 같은 해 서울시의 성별 임금비인 65.4에 비해 2.5만큼 낮게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남녀 모두 평균 임금이 다소 높으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I-7 전국 성별 임금격차

(단위 : 원, %)

	2006	2007	2008	2009
여성	1,248,000	1,349,000	1,413,000	1,422,000
남성	2,030,000	2,144,000	2,265,000	2,284,000
임금비	61.5	62.9	62.4	62.3

※ 주 : 월급여액 = 정액급여+초과급여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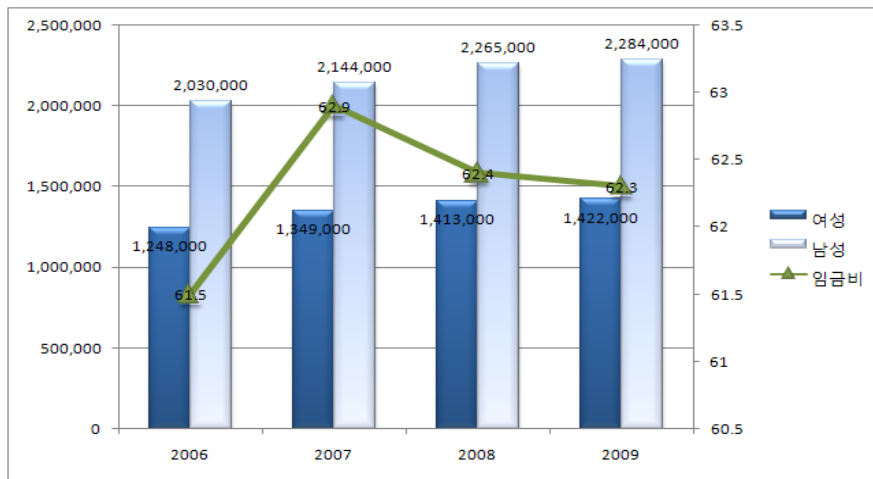


그림 II-4 전국 성별 임금격차

####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 수 / 전 직종 여성 근로자 수) \* 100  
 남성 관리직 비율(%)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남성 수 / 전 직종 남성 근로자 수)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77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세력화(empower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해왔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피고용인으로서의 노동참여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 고용주와 조직 내 상위 관리직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주희진, 2000, 김창연, 2006에서 재인용). 여성 관리직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가 성평등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II-8 】 서울시 성별·직업별 취업자 수(구직업분류 기준, 2003년~2008년)

(단위 : 천명, %)

		총수	의회 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관리직 비율
2003	여	1,972	13	227	187	440	390	329	2	168	21	195	21.7
	남	2,781	179	336	457	351	223	307	4	435	260	229	35.0
2004	여	2,039	14	231	197	455	431	312	1	161	24	215	21.7
	남	2,792	165	338	484	327	210	304	5	453	273	233	35.4
2005	여	2,068	12	245	197	450	453	310	1	144	26	229	22.0
	남	2,822	144	337	508	314	223	278	3	474	271	271	35.0
2006	여	2,091	10	265	202	458	455	301	2	122	34	241	22.8
	남	2,815	131	357	505	314	222	267	4	458	271	287	35.3
2007	여	2,107	16	260	236	477	442	292	3	118	27	237	24.3
	남	2,834	123	378	526	302	205	280	3	445	274	298	36.2
2008	여	2,095	15	284	241	465	437	294	1	112	29	217	25.8
	남	2,827	115	407	482	336	218	290	4	397	285	294	35.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관리직 비율에서 ‘관리직’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 개정(2000) 기준에 따라 의회 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이루어진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2008)에 따르면 ‘관리직’은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정의될 수 있다. 2008년도 통계치까지는 구직업분류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으나, 2009년도 통계치부터는 신직업분류에 의한 데이터만이 수집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직업분류를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로 구직업분류에 의해 산출할 수 있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성별·직업별 취업자 수와 성별 관리직 비율은 위의 표와 같다.

그리고 신직업분류에 따른 서울시의 성별·직업별 취업자 수와 성별 관리직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09년도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여성과 남성 모두 취업자 수가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관리직에 해당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수는 남녀 모두 2008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남성의 경우 관리자의 수가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서울시 성인지표의 ‘성별 관리직 비율’은 전 직업 취업자 수 대비 이러한 관리직의 비율을 성별로 산출한 후, 여성 비율을 남성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측정한다. 이 지표에서도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별 차이가 적다고 해석될 수 있다.

【 표 II-9 】 서울시 성별·직업별 취업자 수(신직업분류 기준, 2006년~2009년)

(단위 : 천명, %)

		총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관리직 비율
2006	여	2,091	12	441	446	390	340	2	119	38	303	21.7
	남	2,815	136	669	363	216	403	4	450	278	297	28.6
2007	여	2,107	18	470	459	371	335	3	115	30	307	23.2
	남	2,834	131	719	359	198	398	3	439	279	307	30.0
2008	여	2,095	15	504	456	376	327	1	112	29	276	24.8
	남	2,827	118	776	353	215	384	4	392	290	296	31.6
2009	여	2,057	15	504	452	338	333	1	97	27	290	25.2
	남	2,779	141	774	391	215	390	3	327	275	263	32.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연도별로 성별 관리직 비율과 지표값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 유의할 점은 2003년~2005년까지의 비율 및 지표값은 구직업분류에 의한 통계치로부터 도출되었으며, 2006년~2009년까지의 성별 관리직 비율 및 지표값은 신직업분류에 의한 통계치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2005년과 2006년의 성별 비율 및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산식에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의 지표값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하여 여성 관리직 비율이 그만큼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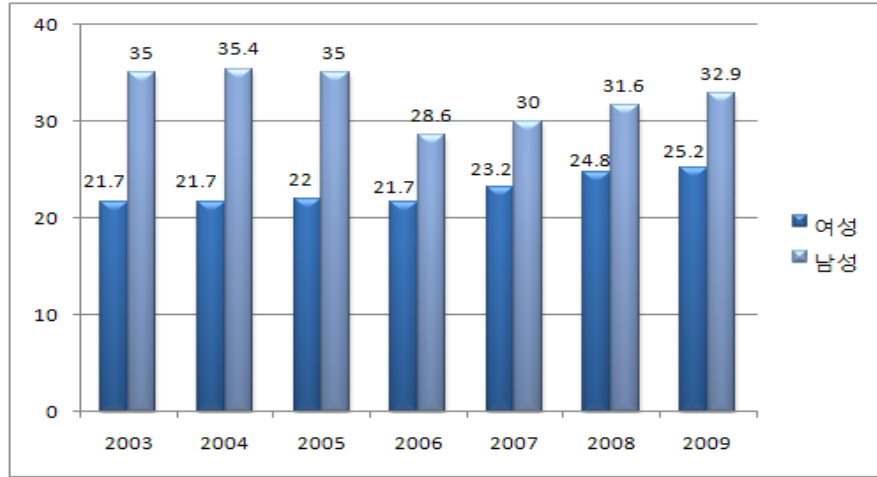
【 표 II-10 】 성별 관리직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21.7	21.7	22.0	21.7	23.2	24.8	25.2
남성	35.0	35.4	35.0	28.6	30.0	31.6	32.9
지표값	<b>0.62</b>	<b>0.61</b>	<b>0.63</b>	<b>0.76</b>	<b>0.77</b>	<b>0.78</b>	<b>0.77</b>

※ 주 : 2003년~2005년까지의 수치는 구직업분류, 2006년 이후부터는 신직업분류에 의한 것임

관리직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2006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3.5%가 상승하였고, 남성은 4.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은 남성이 더 크다. 그러나 지표값을 통해서 보면 2006년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성별 관리직 비율에서의 성별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는 양상을 보인다.



■ 그림 II-5 ■ 성별 관리직 비율 변화 추이

#### (5)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 정규직 비율(%) = (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여성 임금근로자 수) \* 100  
 남성 정규직 비율(%) = (남성 상용직 근로자 수 / 남성 임금근로자 수)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67

이 지표는 2006년도에 처음 서울시 성인지표(GSI) 개발 당시에 ‘성별 비정규직 비율’로 제안되었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청이 2010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28만 명(임금 노동자의 49.8%)이고 정규직은 833만 명(임금 노동자의 50.2%)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남성 임금 노동자 중 39.7%가 비정규직인 반면, 여성은 여성 임금 노동자 중 63.5%가 비정규직이다.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에도 남성은 45.7%, 여성은 54.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김창연, 2010).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이 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불안정 및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임금에 있어 시간당 정액급여가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낮으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상여금 및 퇴직금 적용률이 낮으며, 노조가입률 또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규모가 이미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또한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여성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김창연, 2010).

이에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서울시 여성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참여를 안정화하며, 여성의 경제적 상황의 상대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성인지표(GSI)를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부(-)의 성격을 가진 지표를 정(+)의 성격을 가진 지표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별 정규직 비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11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총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상용	임시	일용		
2003	여	1,972	314	220	1,438	510	694	234	35.5	64.5
	남	2,781	859	27	1,895	1,063	587	246	56.0	44.0
2004	여	2,039	322	191	1,526	551	713	262	36.1	63.9
	남	2,792	859	28	1,904	1,066	586	252	56.0	44.0
2005	여	2,068	329	188	1,551	557	731	262	36.0	64.0
	남	2,822	825	26	1,971	1,083	597	291	55.0	45.0
2006	여	2,091	319	186	1,586	618	713	256	38.9	61.1
	남	2,815	806	21	1,988	1,106	586	296	55.6	44.4
2007	여	2,107	315	171	1,621	681	691	248	42.1	57.9
	남	2,834	787	18	2,028	1,171	563	294	57.7	42.3
2008	여	2,095	314	158	1,624	687	692	246	42.3	57.7
	남	2,827	763	21	2,042	1,225	523	294	60.0	40.0
2009	여	2,057	308	151	1,598	691	681	226	43.2	56.8
	남	2,779	729	19	2,031	1,305	481	245	64.3	35.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정규직 비율은 임금근로자 수 대비 상용직 근로자 수로 산출된다. 성별로 정규직 비율을 산출한 후, 여성의 비율을 남성의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구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정규직 비율에서의 성차가 작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표는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서울시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2003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의 경우 2003년도의 510천명에서 2009년도의 691

천명으로 181천명이 늘었으며, 남성 상용직 근로자 수의 경우 2003년도의 1,063천명에서 2009년도의 1,305천명으로 242천명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수를 살펴보면, 일용직은 2003년도에 비해 2009년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모두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03년의 234천명에서 2009년의 226천명으로 8천명이 감소하였고 남성의 경우 2003년의 246천명에서 2009년의 245천명으로 1천명이 감소하였다. 일용직에서는 여성의 감소폭보다 남성의 감소폭이 작다.

임시직의 경우에는 성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과 남성 모두 2003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는 임시직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남성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03년도의 694천명에서 2009년도의 681천명으로 13천명이 감소하였고, 남성은 2003년도의 587천명에서 2009년도의 481천명으로 106천명이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모두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소폭이 작아 비정규직 비율에서의 성차는 오히려 벌어진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에서의 성별 차이는 2003년도의 20.5%에서 2009년도의 21.1로 근소하게나마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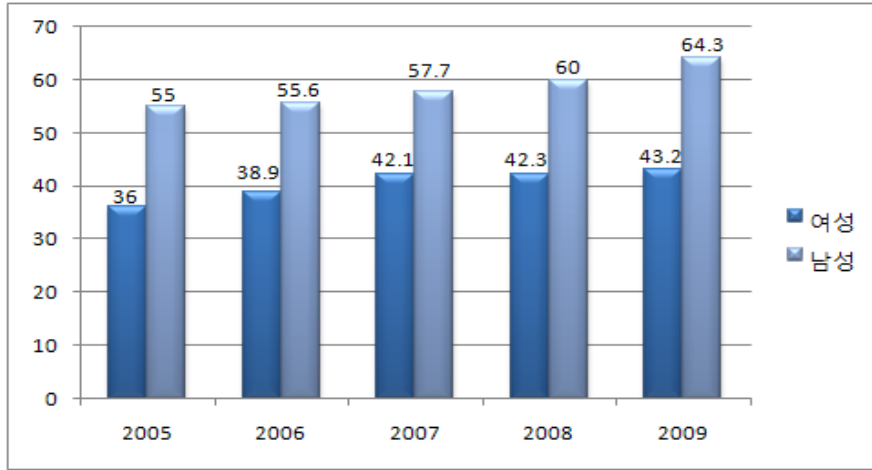
표 II-12 | 성별 정규직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36.0	38.9	42.1	42.3	43.2
남성	55.0	55.6	57.7	60.0	64.3
지표값	<b>0.65</b>	<b>0.70</b>	<b>0.73</b>	<b>0.71</b>	<b>0.67</b>

이러한 비정규직 비율은 성별 정규직 비율의 지표값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비율은 2003년 이래 여성과 남성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08년도, 2009년도 수치를 각각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여성 정규직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지표값도 200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그림 II-6 ■ 성별 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

####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 \* 100  
 남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 (남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47

사업체 및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해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한 배경과 맞물린다. 특히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은 여성취업지원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서, 1999년부터는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여성 창업을 특별히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지적된다. 하나는 앞서 여성 관리직 비율 증가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세력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용주로서의 여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여성의 기업활동이 남성중심적 기업문화와 경영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점이다(이정화, 2004, 김창연, 2006에서 재인용). 세 번째 이유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여성 창업은 창업을 하는 본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여성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은 75.4%로 전체 기업의 여성근로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양인숙·김난주, 2006; 양혜숙·조원애, 2006, 김창연, 2006에서 재인용).

■ 표 II-13 ■ 서울시 대표자 성별 사업체 분포

(단위 : 개소, %)

	계		여성		남성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2000	719 536	100.0	207 260	28.8	512 276	71.2
2001	723 701	100.0	214 586	29.7	509 115	70.3
2002	735 258	100.0	223 969	30.5	511 289	69.5
2003	748 953	100.0	230 256	30.7	518 697	69.3
2004	740 779	100.0	228 531	30.9	512 248	69.1
2005	710 101	100.0	216 360	30.5	493 741	69.5
2006	715 075	100.0	221 855	31.0	493 220	69.0
2007	728 614	100.0	230 974	31.7	497 640	68.3
2008	719 687	100.0	230 491	32.0	489 196	68.0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여성 혹은 남성 대표자 사업체 수를 말한다.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비율을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하며,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차가 줄어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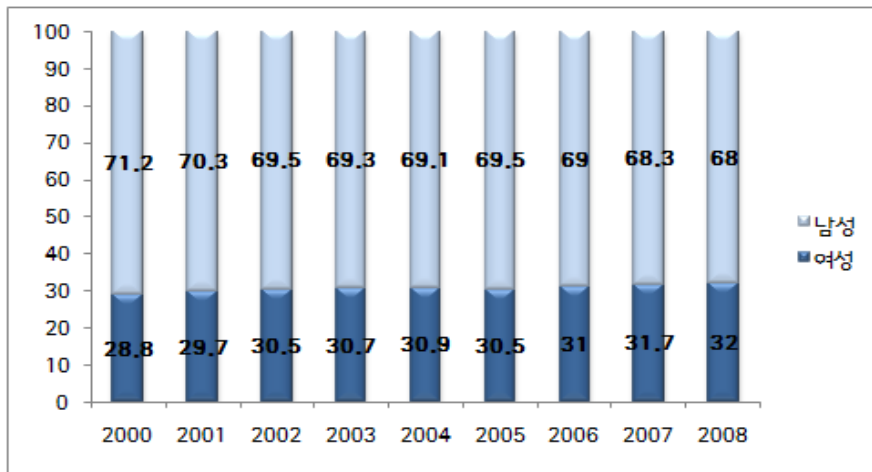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사업체 수는 200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도부터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2000년도의 사업체 수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의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32.0%로 68.0%인 남성 대표자 비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남성의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표 II-14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28.8	29.7	30.5	30.7	30.9	30.5	31	31.7	32
남성	71.2	70.3	69.5	69.3	69.1	69.5	69	68.3	68
지표값	0.40	0.42	0.44	0.44	0.45	0.44	0.45	0.46	0.47



【 그림 II-7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변화 추이

###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 노동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 \* 100  
 남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남성 노동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25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불이익에 대응하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이다. 노동조합에 여성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여성 조합원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보장 및 직장 내 성차별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조영미 외, 2006a).

노동조합 내 여성의 주변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이는 노동조합 내 여성의 낮은 대표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주요 의사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여성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최성애, 2000). 이는 또한 낮은 여성 조합원 가입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별 조합원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여성의 이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조합원 수가 적다고 하여 노조 내 여성의 위치가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조합원 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조합 내 성인지성을 도입, 강화하는데 용이해 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여성의 노조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노조 조직력의 성별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영미 외, 2006a).

최근의 여성고용 경향과 관련하여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은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다.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의 경우 정규직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6.8% 이지만, 비정규직은 2%로 고용형태에 따라 노조가입률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창연, 2010).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를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는 전체 노동조합원 수 대비 여성 조합원 수의 비율과 전체 노동조합원 수 대비 남성 조합원 수의 비율을 각각 구한 뒤 여성 비율을 남성 비율로 나누어 측정한다. 이 지표 역시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별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의 성별 노동조합원 수는 2008년도까지만 데이터가 생산되어 있다. 2008년도 서울시의 남성 조합원 수는 101,84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0.2%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성 조합원 수는 25,09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9.8%에 해당한다.

【 표 II-15 】 서울시 성별 노동조합원 수 및 비율

(단위 : 명, %)

		조합원 수			조합원 비율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위조합 + 지부 또는 분회 등	2002	202,338	167,951	34,387	83.0	17.0
	2003	199,137	165,332	33,805	83.0	17.0
	2004	198,202	165,214	32,988	83.4	16.6
	2005	201,134	166,198	34,936	82.6	17.4
	2006	173,452	142,976	30,476	82.4	17.6
	2007	141,322	113,974	27,348	80.6	19.4
	2008	126,936	101,843	25,093	80.2	19.8

※ 자료 : 서울통계 홈페이지

아래의 표는 2008년도 서울시의 자치구 및 성별 노동조합원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 조합원의 수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가운데, 여성 조합원의 비율이 20%를 웃도는 자치구는 중구, 용산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등 9개이다. 자치구별 여성 조합원 비율의 차이는 각 자치구마다 어떠한 산업이 주로 분포해 있는가 혹은 어떠한 산업연맹 소속의 노동조합이 많이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일례로 중구에는 사무금융연맹 및 관광연맹 소속 노동조합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구의 산업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 표 II-16 】 서울시 자치구별·성별 노동조합원수 및 비율 (2008년)

(단위 : 개소, 명, %)

자치구	조합 수	전체 조합원 수	여성 조합원	남성 조합원
합 계	1,236	126,936 (100)	25,093 (19.8)	101,843 (80.2)
분 청	33	17,539 (100)	5,965 (33.6)	11,574 (66.4)
종 로 구	43	3,361 (100)	692 (18.6)	2,669 (81.4)
중 구	154	14,027 (100)	3,950 (28.1)	10,077 (71.9)
용 산 구	28	4,266 (100)	1,481 (34.7)	2,785 (65.3)
성 동 구	20	1,339 (100)	199 (14.9)	1,140 (85.1)
광 진 구	31	3,644 (100)	960 (26.4)	2,684 (73.6)
동대문구	19	1,816 (100)	34 (1.9)	1,782 (98.1)
중 랑 구	24	3,187 (100)	72 (2.3)	3,115 (97.7)
성 북 구	21	2,410 (100)	321 (13.3)	2,089 (86.7)
강 북 구	17	1,281 (100)	35 (2.7)	1,246 (97.3)
도 봉 구	35	5,038 (100)	387 (7.7)	4,651 (92.3)
노 원 구	25	2,809 (100)	273 (9.7)	2,536 (90.3)
은 평 구	16	1,820 (100)	374 (20.5)	1,446 (79.5)
서대문구	16	2,126 (100)	475 (22.3)	1,651 (77.7)
마 포 구	53	3,107 (100)	632 (20.3)	2,475 (79.7)
양 천 구	31	3,093 (100)	62 (2.0)	3,031 (98.0)
강 서 구	60	5,323 (100)	248 (4.7)	5,075 (95.3)
구 로 구	29	2,092 (100)	94 (4.5)	1,998 (95.5)
금 천 구	47	3,656 (100)	921 (25.2)	2,735 (74.8)
영등포구	109	9,133 (100)	1,263 (13.8)	7,870 (86.2)
동 작 구	21	1,661 (100)	364 (22.0)	1,297 (78.0)
관 악 구	31	2,413 (100)	301 (12.5)	2,112 (87.5)
서 초 구	101	8,797 (100)	1,636 (18.6)	7,161 (81.4)

자치구	조합 수	전체 조합원 수	여성 조합원	남성 조합원
강 남 구	192	13,064 (100)	3,141 (24.0)	9,923 (76.0)
송 파 구	50	5,823 (100)	534 (0.2)	5,289 (90.8)
강 동 구	30	4,111 (100)	679 (16.5)	3,432 (83.5)

※ 주 : 노동조합수는 단위노동조합과 지부 또는 분회 등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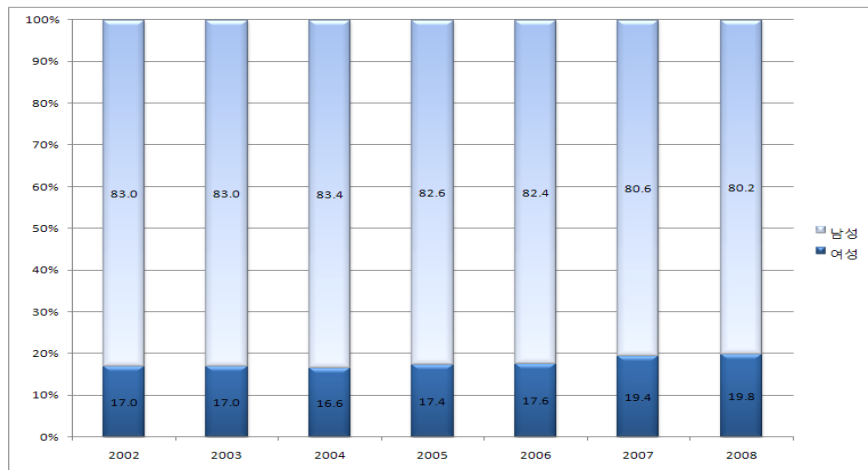
※ 자료 : 서울통계 홈페이지

서울시의 성별 노동조합원 수 및 비율로부터 산출한 지표값은 2008년도의 경우 0.25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 조합원이 100명일 때 여성 조합원의 수는 25명이라는 의미이며, 여성들의 경우 남성 조합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만이 조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남성에 비해 미미한 노조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2004년도까지는 지표값이 0.20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지속 상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표 II-17 】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17.0	17.0	16.6	17.4	17.6	19.4	19.8
남성	83.0	83.0	83.4	82.6	82.4	80.6	80.2
지표값	0.20	0.20	0.20	0.21	0.21	0.24	0.25



【 그림 II-8 】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변화추이

## (8) 성별 주택보유율

$$\begin{aligned} \text{여성의 주택보유율(\%)} &= (\text{여성명의 주택의 수} / \text{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 100 \\ \text{남성의 주택보유율(\%)} &= (\text{남성명의 주택의 수} / \text{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 100 \\ \text{지표값(2005년)} : (\text{여}/\text{남}) &= 0.18 \end{aligned}$$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내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를 도모하는 것 못지않게 재산권에 있어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성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가족 내 중요한 재산상의 명의를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에서의 성별 격차가 뚜렷하다.

한국은 법정재산제도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은 혼인 중 명의자가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다. 여성 명의의 재산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 따라 남편의 임의적인 재산 처분이 가능하여 여성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조영미 외, 2006a).

따라서 재산권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재산 소유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도 유용하다.

본 지표에서는 재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 소유에 주목하고 있다. 주택은 재산으로서 대표성이 높고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표의 산식은 서울시 전체 주택 중 여성 혹은 남성 명의 주택의 비율로서 공동명의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본 산식에 맞는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조사, 발표하는 주택소유현황의 경우 가구주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성별에 따른 통계이므로 서울시 여성의 주택보유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통계치는 2005년도에 생산된 통계치라는 한계가 있다.

【 표 II-18 】 서울시 가구주 성별·점유형태별 일반가구 수

(단위 : 명, %)

가구주성별	점유 형태별							
	미상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b>&lt;2000&gt;</b>								
여성	1	155,503	264,811	152,196	10,986	7,211	11,827	602,535
여성비율	14.2	<b>12.3</b>	20.8	34.2	30.2	34.3	24.3	19.5
남성	6	1,107,854	1,006,519	293,040	25,384	13,806	36,792	2,483,401
남성비율	85.8	<b>87.7</b>	79.2	65.8	69.8	65.7	75.7	80.5
합계	21.2	1,263,357	1,271,330	445,236	36,370	21,017	48,619	3,085,9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lt;2005&gt;</b>								
여성	-	221,776	282,987	239,710	15,425	6,197	14,476	780,571
여성비율	-	<b>15.1</b>	25.7	39.1	30.6	36.5	26.9	23.6
남성	-	1,254,072	817,188	372,789	35,062	10,797	39,411	2,529,319
남성비율	-	<b>84.9</b>	74.3	60.1	69.4	63.5	73.1	76.4
합계	-	1,475,848	1,100,175	612,499	50,487	16,994	53,887	3,309,890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위의 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서울시 가구주 성별 및 점유형태별 일반가구 수이다. 본 지표를 위해서는 이 중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를 활용한다.

점유 형태가 자가인 일반가구 중 여성 가구주 수는 2000년도의 경우 155,503명에서 2005년도에는 221,776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율로 보면 전체 자가 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는 2000년도의 12.3%에서 2005년도의 15.1%로 늘어났다. 따라서 지표값 또한 0.14에서 0.18로 상향되었다.

【 표 II-19 】 성별 주택보유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지표값
2000	12.3	87.7	<b>0.14</b>
2005	15.1	84.9	<b>0.18</b>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II-9 ■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총 3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국민연금 여성 가입비율(%) = (여성 가입자 수 / 18~60세 서울시 여성 전체 인구) \* 100  
 국민연금 남성 가입비율(%) = (남성 가입자 수 / 18~60세 서울시 남성 전체 인구)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67

공적연금은 노령기의 소득상실이라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노령계층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그 정의상으로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소득자 1연금'제도이다. 이에 여성들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 하에서 여성과 남성의 연금 가입자 수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을 비교하여야 하는 이유는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이는데 있다(조영미 외, 2006a).

본 지표는 성별 전체 인구(18세~60세)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을 보는 것이다. 남성의 가입자 비율과 여성의 가입자 비율을 구한 뒤 여성 비율을 남성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한다. 이 지표 역시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 성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20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가입자 현황					수급자 현황				
	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2001	3 650 644	1 092 160	29,9	2 558 484	70,1	144 782	55 455	38,3	89 327	61,7
2002	4 904 782	1 609 675	32,8	3 295 107	67,2	155 436	57 415	36,9	98 021	63,1
2003	4 952 511	1 708 480	34,5	3 244 031	65,5	172 727	62 042	35,9	110 681	64,1
2004	5 077 027	1 847 347	36,4	3 229 680	63,6	263 215	96 423	36,6	166 792	63,4
2005	5 121 899	1 900 583	37,1	3 221 316	62,9	313 981	117 666	37,5	196 315	62,5
2006	5 293 899	2 015 058	38,1	3 278 841	61,9	362 014	136 980	37,8	225 034	62,2
2007	5 448 053	2 127 916	39,1	3 320 137	60,9	418 668	158 339	37,8	260 329	62,2
2008	5 446 886	2 174 118	39,8	3 292 768	60,2	475 625	177 971	37,4	297 654	62,6
2009	5 522 926	2 232 928	40,4	3 289 998	59,6	520 078	196 854	37,9	323 224	62,1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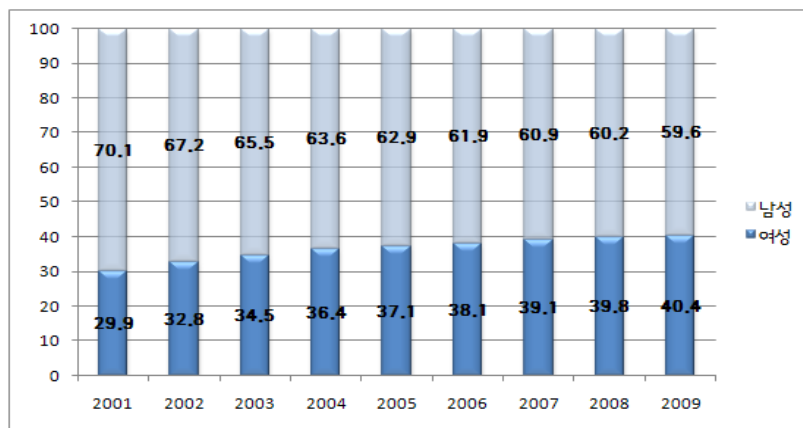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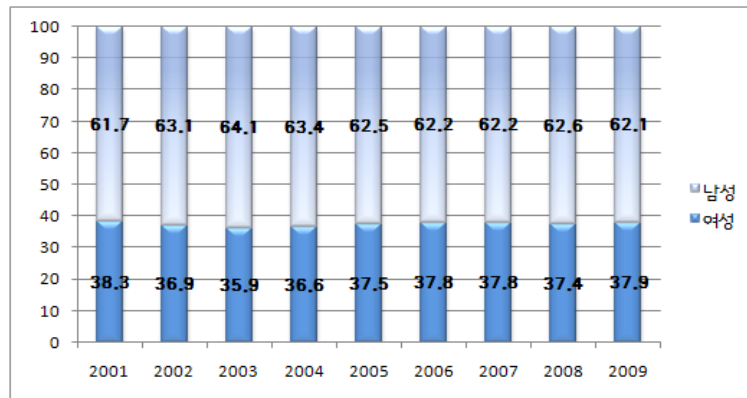


그림 II-10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위의 표는 서울시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중 성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9년도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은 2,232,928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40.4%에 해당하며 남성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중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는 1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별 차이 역시 19.2%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한편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뚜렷한 증가 혹은 하락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남녀 모두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II-11】 서울시 국민연금 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그러나 18세~60세 전체 인구 중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거의 95%에 이르는 반면, 여성들은 2007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60%를 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가입자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2007년도 이후로는 증가하거나 하락하기보다는 유사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표 II-21】 18세~60세 서울시 남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여성			남성		
	18~60세 인구	가입자 수	가입비율	18~60세 인구	가입자 수	가입비율
2005	3,510,656	1,900,583	54.1	3,499,518	3,221,316	92.1
2006	3,522,063	2,015,058	57.2	3,502,500	3,278,841	93.6
2007	3,523,016	2,127,916	60.4	3,501,321	3,320,137	94.8
2008	3,517,760	2,174,118	61.8	3,497,052	3,292,768	94.2
2009	3,516,978	2,232,928	63.5	3,492,385	3,289,998	94.2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시 주민등록통계 재구성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이 크게 못 미치고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가입비율 대비 여성의 가입비율로 산출되는 지표값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2005년도의 0.59에 비해 2009년도에는 0.67로 0.08 상승하였다.

표 II-22 |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54.1	57.2	60.4	61.8	63.5
남성	92.1	93.6	94.8	94.2	94.2
지표값	0.59	0.61	0.64	0.66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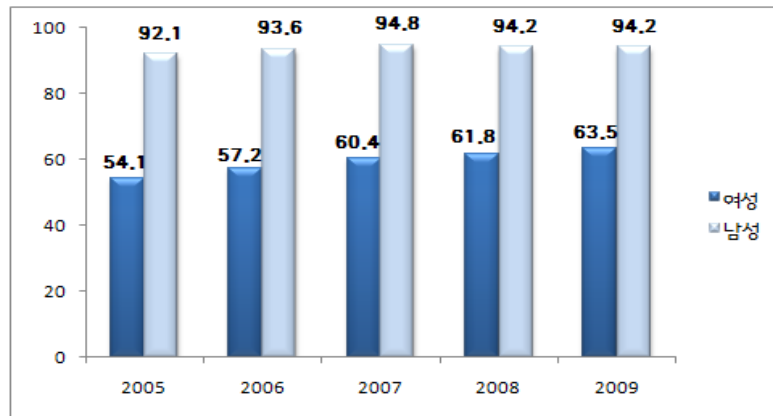


그림 II-12 |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변화 추이

##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 \* 100  
 60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률 = (60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전체 남성 취업자 수)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80

성별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이라는 지표는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시도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은 경기도에 비해 전체 인구수는 다소 적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인구수는 경기도보다 높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주요한 사회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부진,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자 부양 형태의 변화 등은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조영미 외, 2006a).

【 표 II-23 】 시도별·성별 60세 이상 인구 수

(단위 : 명)

		2007			2008			2009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전체	49,268,928	24,577,679	24,691,249	49,540,367	24,717,470	24,822,897	49,773,145	24,843,206	24,929,939
	60+	6,817,806	3,930,928	2,886,878	7,110,229	4,081,284	3,028,945	7,401,159	4,230,779	3,170,380
서울	전체	10,192,710	5,129,522	5,063,188	10,200,827	5,139,018	5,061,809	10,208,302	5,149,033	5,059,269
	60+	1,279,656	709,519	570,137	1,342,702	743,323	599,379	1,408,317	778,353	629,964
부산	전체	3,587,439	1,801,536	1,785,903	3,564,577	1,791,423	1,773,154	3,543,030	1,781,828	1,761,202
	60+	512,579	289,658	222,921	538,619	303,038	235,581	565,237	316,936	248,301
대구	전체	2,493,261	1,245,028	1,248,233	2,492,724	1,245,851	1,246,873	2,489,781	1,245,903	1,243,878
	60+	315,612	183,098	132,514	331,818	191,752	140,066	347,399	199,815	147,584
인천	전체	2,664,576	1,321,601	1,342,975	2,692,696	1,336,223	1,356,473	2,710,579	1,345,770	1,364,809
	60+	295,849	170,571	125,278	311,800	178,629	133,171	327,442	186,406	141,036
광주	전체	1,413,444	711,883	701,561	1,422,702	716,885	705,817	1,433,640	722,549	711,091
	60+	163,731	94,816	68,915	171,348	98,798	72,550	180,378	103,676	76,702
대전	전체	1,475,659	736,187	739,472	1,480,895	739,284	741,611	1,484,180	741,059	743,121
	60+	162,903	93,118	69,785	170,873	97,155	73,718	179,141	101,268	77,873
울산	전체	1,099,995	534,098	565,897	1,112,407	539,592	572,815	1,114,866	541,259	573,607
	60+	98,076	56,150	41,926	104,563	59,173	45,390	110,475	61,884	48,591
경기	전체	11,106,211	5,508,005	5,598,206	11,292,264	5,601,591	5,690,673	11,460,610	5,687,041	5,773,569
	60+	1,236,671	709,098	527,573	1,306,582	745,402	561,180	1,371,321	778,741	592,580
강원	전체	1,503,806	747,622	756,184	1,508,575	749,293	759,282	1,512,870	751,600	761,270
	60+	275,009	158,484	116,525	282,916	162,639	120,277	289,564	166,111	123,453
총부	전체	1,506,608	747,641	758,967	1,519,587	754,189	765,398	1,527,478	757,510	769,968
	60+	247,738	143,903	103,835	255,324	147,842	107,482	262,181	151,310	110,871

		2007			2008			2009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총 남	전체	1,995,531	987,631	1,007,900	2,018,537	998,220	1,020,317	2,037,582	1,007,857	1,029,725
	60+	371,016	214,845	156,171	382,758	220,675	162,083	393,997	226,274	167,723
전 북	전체	1,862,277	934,910	927,367	1,855,772	931,002	924,770	1,854,508	930,028	924,480
	60+	352,990	207,525	145,465	361,415	211,633	149,782	371,020	216,632	154,388
전 남	전체	1,929,836	966,425	963,411	1,919,000	960,509	958,491	1,913,004	957,050	955,954
	60+	432,806	259,441	173,365	440,535	262,985	177,550	449,340	267,177	182,163
경 북	전체	2,681,364	1,334,608	1,346,756	2,673,931	1,330,732	1,343,199	2,669,876	1,328,899	1,340,977
	60+	510,579	301,823	208,756	524,985	308,760	216,225	540,469	316,373	224,096
경 남	전체	3,196,953	1,590,970	1,605,983	3,225,255	1,603,128	1,622,127	3,250,176	1,614,476	1,635,700
	60+	477,290	287,262	190,028	495,242	296,312	198,930	513,313	305,250	208,063
제 주	전체	559,258	280,012	279,246	560,618	280,530	280,088	562,663	281,344	281,319
	60+	85,301	51,617	33,684	88,749	53,168	35,581	91,565	54,573	36,992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재구성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인 인구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55%를 상회한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취업 및 생계유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지표는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취업률과 남성 노인 취업률을 각각 측정한 후, 여성 비율을 남성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한다. 여기에서도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노인 취업률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II-24 ▮ 서울시 60세 이상 인구의 성별 구성비

(단위 : 명, %)

		2007			2008			2009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전체	49,268,928	24,577,679	24,691,249	49,540,367	24,717,470	24,822,897	49,773,145	24,843,206	24,929,939
	60+	6,817,806 (100.0)	3,930,928 (57.7)	2,886,878 (42.3)	7,110,229 (100.0)	4,081,284 (57.4)	3,028,945 (42.6)	7,401,159 (100.0)	4,230,779 (57.2)	3,170,380 (42.8)
서울	전체	10,192,710	5,129,522	5,063,188	10,200,827	5,139,018	5,061,809	10,208,302	5,149,033	5,059,269
	60+	1,279,656 (100.0)	709,519 (55.4)	570,137 (44.6)	1,342,702 (100.0)	743,323 (55.4)	599,379 (44.6)	1,408,317 (100.0)	778,353 (55.3)	629,964 (44.7)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재구성

【 표 II-25 】 서울시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15~59세	1,857(94.2)	1,917(94.0)	1,940(93.8)	1,935(92.6)	1,951(92.6)	1,953(93.2)	1,903(92.5)
	60세 이상	115(5.8)	122(6.0)	129(6.2)	145(7.4)	156(7.4)	142(6.8)	154(7.5)
남성	15~59세	2,585(93.0)	2,576(92.3)	2,591(91.8)	2,572(91.4)	2,571(90.7)	2,570(90.9)	2,519(90.6)
	60세 이상	195(7.0)	215(7.7)	232(8.2)	243(8.6)	263(9.3)	257(9.1)	260(9.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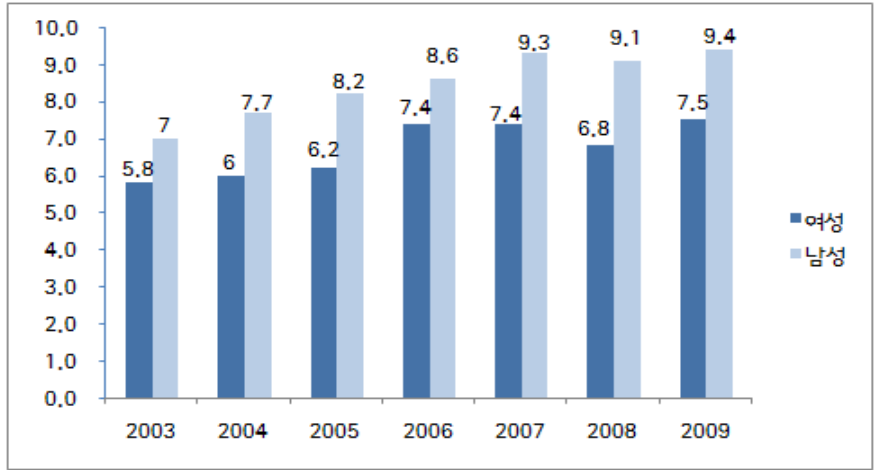
이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취업, 특히 여성 노인의 취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노인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 노인의 취업률보다 여성 노인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배제가 여성 노인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이 여성과 남성 모두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표값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여성이 남성의 약 8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취업률이 다소 하락했지만, 2009년도에는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노인인구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경우에는 여전히 남성이 더 높아 여성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전체 노인 인구의 취업률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 노인들의 취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II-26 】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5.8	6.0	6.2	7.4	7.4	6.8	7.5
남성	7.0	7.7	8.2	8.6	9.3	9.1	9.4
지표값	<b>0.83</b>	<b>0.78</b>	<b>0.76</b>	<b>0.86</b>	<b>0.80</b>	<b>0.75</b>	<b>0.80</b>



■ 그림 II-13 ■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 장애인 등록 비율(%) = (여성 등록 장애인 수 / 서울시 여성 전체 인구 수) \* 100  
 남성 장애인 등록 비율(%) = (남성 등록 장애인 수 / 서울시 남성 전체 인구 수)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0.70

성별 장애인 등록률을 서울시 성인지표(GSI)의 하나로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을 정책 수요자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률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장애인 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이는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장애 등록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등록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확률이 높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등록 장애인 수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장애 등록 절차의 복잡함이나 정보 제한, 장애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조영미 외, 2006). 따라서 성별 장애인 등록 비율을 주요한 지표로 두고 지속 측정하는 동시에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지표는 서울시 여성인구 대비 등록 여성 장애인 비율과 남성인구 대비 등록 남성 장애인 비율을 각각 구한 뒤, 여성 장애인 비율을 남성 장애인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한다. 이 지표에서도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장애인 등록률에서의 성별 차이가 작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9년도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401,638명으로 2001년도의 188,660명에서 212,978명이 증가하였다. 등록 장애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여성 등록 장애인 수가 남성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도의 여성 등록 장애인 수는 165,707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 107,492명이 증가하였다. 남성은 2009년도의 경우 2001년도에 비해 105,468명이 증가하였다.

여성 등록 장애인 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 등록 장애인구 중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도 들어 처음 역전되었다. 2008년도까지는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0%이고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0.0%였으나, 2009년도 들어서는 성별 관계가 역전되어 여성비율이 58.7%로 남성의 41.3%를 넘어섰다.

표 II-27 서울시 성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

	전체	여성	남성
2001	188,660	58,215(30.9)	130,445(69.1)
2002	213,121	68,181(32.0)	144,940(68.0)
2003	239,647	79,624(33.2)	160,023(66.8)
2004	267,365	92,465(34.6)	174,900(65.4)
2005	297,087	107,007(36.0)	190,080(64.0)
2006	324,560	121,856(37.5)	202,704(62.5)
2007	346,275	134,375(38.8)	211,900(61.2)
2008	368,955	147,682(40.0)	221,008(60.0)
2009	401,638	165,707(41.3)	235,931(58.7)

※ 자료 : 서울시 복지국 홈페이지

그러나 성별 등록 장애인 수를 성별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여성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여전히 남성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도 서울시 여성의 전체 인구 대비 여성 등록 장애인 비율은 3.2%로 2001년도의 1.1%에 비해 2.1%가 상승하였다. 남성은 2001년도의 2.5%에서 2009년도의 4.6%로 역시 2.1%가 상승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여성은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장애인 등록률에서의 성별 격차는 지표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도

성별 장애인 등록률의 지표값은 0.70으로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장애인 등록비율이 100일 때, 여성 인구 대비 여성 장애인 등록비율은 7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등록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값 변화 추이에서도 보이듯이 성별 장애인 등록률의 지표값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

표 II-28 서울시 성별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수 및 비율

(단위 :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전체인구	5,155,458	5,135,690	5,143,274	5,159,095	5,173,266	5,210,721	5,247,127	5,271,302	5,252,692
	장애인구	58,215	68,187	79,624	92,465	107,007	121,856	134,375	147,682	165,707
	장애비율	1.1	1.3	1.6	1.8	2.1	2.3	2.6	2.8	3.2
남성	전체인구	5,175,786	5,144,833	5,133,694	5,128,752	5,123,738	5,145,481	5,174,655	5,184,732	5,181,359
	장애인구	130,445	144,940	160,023	174,900	190,080	202,704	211,900	221,008	235,931
	장애비율	2.5	2.8	3.1	3.4	3.7	4.0	4.1	4.3	4.6

※ 자료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01~2009) 재구성.

표 II-29 성별 장애인 등록률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30.9	32.0	33.2	34.6	36.0	37.5	38.8	40.0	41.3
남성	69.1	68.0	66.8	65.4	64.0	62.5	61.2	60.0	58.7
지표값	0.45	0.47	0.50	0.53	0.56	0.60	0.63	0.67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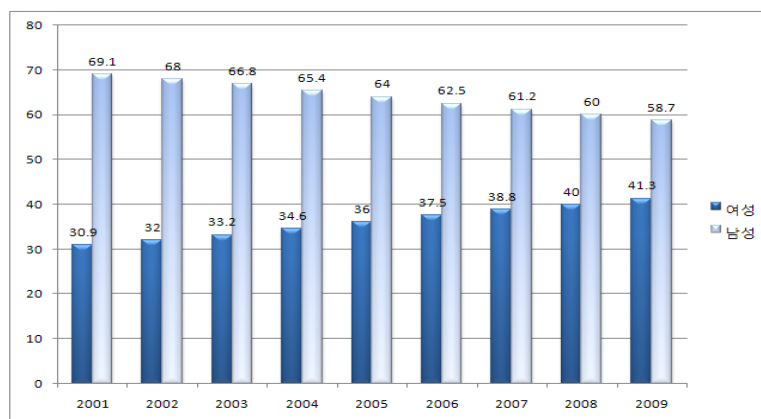


그림 II-14 성별 장애인 등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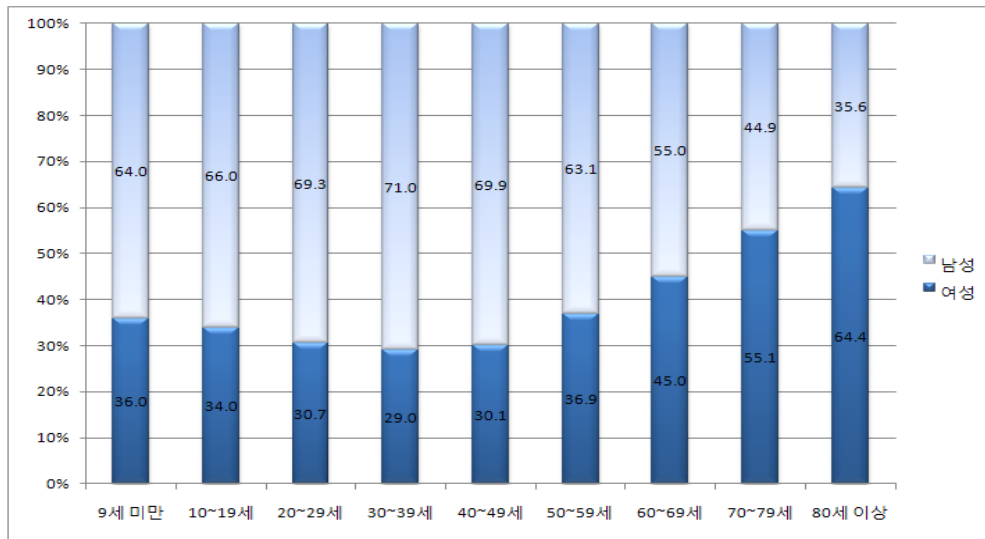
서울시 장애인 관련 행정통계는 성별분리가 모범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해당 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서울시의 장애인과 관련한 몇 가지 통계들을 통해 성별 장애인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II-30 】 서울시 성 및 연령별 등록 장애인 현황 (2009년)

(단위 : 명, %)

	전체	여성	남성
9세 미만	4,819(100)	1,735(36.0)	3,084(64.0)
10~19세	11,895(100)	4,044(34.0)	7,851(66.0)
20~29세	18,006(100)	5,529(30.7)	12,477(69.3)
30~39세	34,766(100)	10,086(29.0)	24,680(71.0)
40~49세	62,051(100)	18,668(30.1)	43,383(69.9)
50~59세	85,707(100)	31,642(36.9)	54,065(63.1)
60~69세	95,837(100)	43,131(45.0)	52,706(55.0)
70~79세	66,437(100)	36,623(55.1)	29,814(44.9)
80세 이상	22,120(100)	14,249(64.4)	7,871(35.6)

※ 자료 : 서울시 복지국 홈페이지



【 그림 II-15 】 서울시 성 및 연령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09년)

위의 표와 그래프는 성별 및 연령별 등록 장애인 현황에 관한 것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고 따라서 여성인구 자체가 고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2009년도 서울시의 성별 및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의 경우 장애유형 중 지체,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신장장애, 안면, 간질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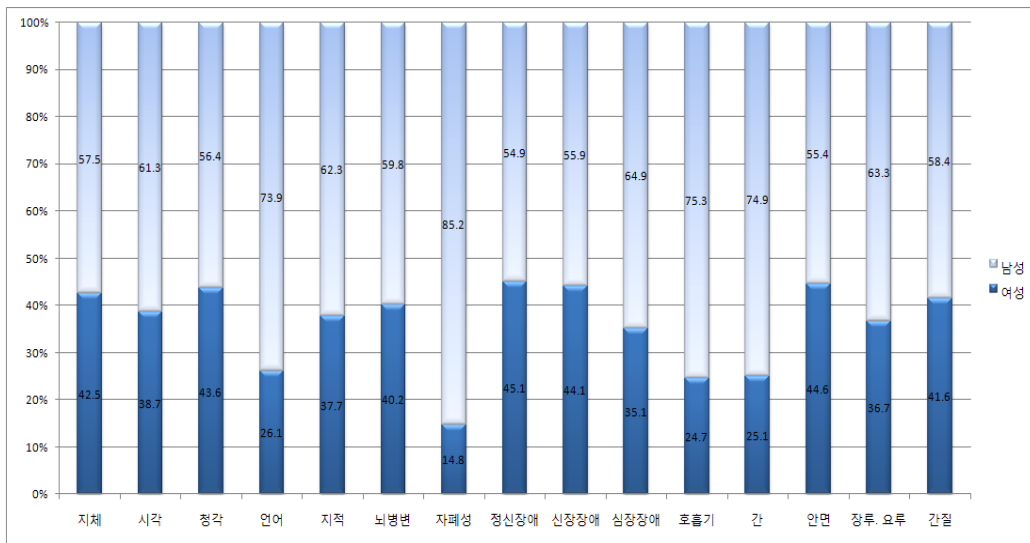


그림 II-16 서울시 성 및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09년)

표 II-31 서울시 성 및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2009년)

(단위 : 명, %)

	전체	여성	남성
지체	208,668(100)	88,781(42.5)	119,887(57.5)
시각	41,326(100)	15,979(38.7)	25,347(61.3)
청각	40,717(100)	17,751(43.6)	22,966(56.4)
언어	2,593(100)	676(26.1)	1,917(73.9)
지적	21,513(100)	8,121(37.7)	13,392(62.3)
뇌병변	44,442(100)	17,878(40.2)	26,564(59.8)
자폐성	3,219(100)	475(14.8)	2,744(85.2)
정신장애	15,096(100)	6,804(45.1)	8,292(54.9)
신장장애	11,927(100)	5,254(44.1)	6,673(55.9)
심장장애	2,912(100)	1,023(35.1)	1,889(64.9)
호흡기	2,781(100)	688(24.7)	2,093(75.3)

	전체	여성	남성
간	1,747(100)	438(25.1)	1,309(74.9)
안면	392(100)	175(44.6)	217(55.4)
장루·요루	2,593(100)	951(36.7)	1,642(63.3)
간질	1,712(100)	713(41.6)	999(58.4)

※ 자료 : 서울시 복지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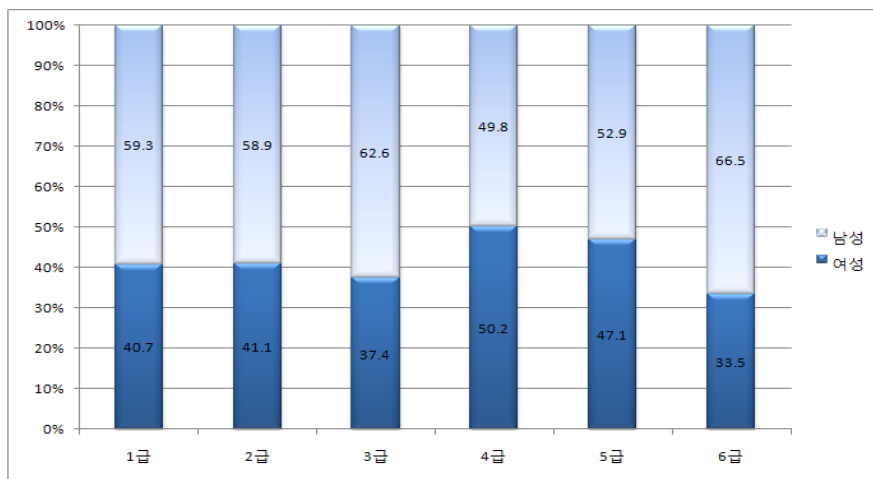
또한 2009년도 서울시의 성별 및 장애등급별 등록 장애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등급에서 남성 장애인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4급의 경우 등록 장애인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 II-32 ▣ 서울시 성별 및 장애등급별 등록 장애인 현황 (2009년)

(단위 : 명, %)

	전체	여성	남성
1급	37,665(100)	15,337(40.7)	22,328(59.3)
2급	60,900(100)	25,054(41.1)	35,846(58.9)
3급	67,497(100)	25,212(37.4)	42,285(62.6)
4급	59,953(100)	30,075(50.2)	29,878(49.8)
5급	82,104(100)	38,659(47.1)	43,445(52.9)
6급	93,519(100)	31,370(33.5)	62,149(66.5)

※ 자료 : 서울시 복지국 홈페이지



▣ 그림 II-17 ▣ 서울시 성별 및 장애등급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09년)

###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는 총 4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여성비율(%)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남성비율(%)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지표값(2009년) : (여/남) = 0.86

본 지표는 2006년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개발 당시에는 '성별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였으나, 2007년부터 '성별 인터넷 활용률'로 변경, 측정되고 있다. 인터넷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인터넷 활용능력 정도는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다음으로 정보 접근성과 이를 통한 자원 획득력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인터넷 활용능력 정도는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제·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 보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조영미 외, 2007).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은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2007년까지 서울서베이에서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응답 항목 중 “쓸 줄 모름”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성별 인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며 자주 혹은 가끔 사용하는 인구의 성비를 파악하였다. 2008년도 서울 서베이 조사에서부터는 인터넷 활용 가능성 여부나 활용 빈도를 묻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표 II-33 | 서울시 성별·연령대별 인터넷 사용 빈도

(단위 : %)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이용		경험한 적 없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5 전체	71.2	80.0	28.8	20.0
2006 전체	68.0	77.8	32.0	22.2
2007 전체	65.0	75.5	34.7	24.1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이용		경험한 적 없음	
2009 전체	<b>68.5</b>	<b>80.0</b>	31.5	20.0
10대	99.1	98.8	0.9	1.2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이용		경험한 적 없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대	98.3	98.5	1.7	1.5
30대	94.3	97.6	5.7	2.4
40대	76.7	88.4	23.3	11.6
50대	41.2	64.8	58.8	35.2
60대+	9.8	23.9	90.2	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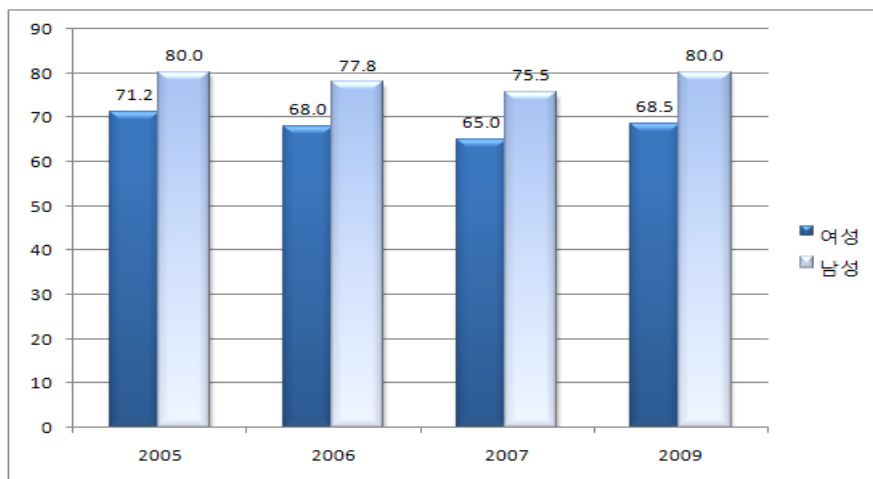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는 응답의 비율이 2005년 이래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표값은 0.86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여성인구는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남성인구의 약 86%에 해당한다.

【 표 II-34 】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9
여성	71.2	68.0	65.0	68.5
남성	80.0	77.8	75.5	80.0
지표값	<b>0.89</b>	<b>0.87</b>	<b>0.86</b>	<b>0.86</b>



【 그림 II-18 】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남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지표값(2009년) : (여/남) = 0.55

본 지표는 서울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인 서울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집, 거리, 공공화장실, 대중교통 등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강도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성폭력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공간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환경적으로 취약하거나 안전상 위험한 경우가 더 많다.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서울서베이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도시 위험 체감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위험도',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다닐 경우 두려움 정도',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건물 붕괴 등 건물에 대해 느껴지는 위험도'로 구분하여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이 중에서 성별 야간보행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별로 두렵지 않다거나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서울서베이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나, 서울시 성인지표에서는 조사 결과 중 별로 혹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응답을 토대로 도시의 '안전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지표는 야간보행 및 범죄피해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 응답자 비율과 남성 응답자 비율을 각각 구한 뒤, 여성의 비율을 남성의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한다. 이 지표 역시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별 격차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II-35 】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단위 : %)

	두렵다	두렵다		보통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 "안전하다" )	
		매우 두렵다	약간 두렵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b>&lt;2005&gt;</b>								
여성	61.9	18.5	43.4	24.2	11.7	2.1	<b>13.8</b>	
남성	35.2	7.4	27.8	32.3	25.7	6.7	<b>32.4</b>	
<b>&lt;2006&gt;</b>								
여성	58.8	17.1	41.7	24.8	12.2	4.2	<b>16.4</b>	
남성	33.1	6.4	26.6	30.5	26.0	10.4	<b>36.4</b>	
<b>&lt;2007&gt;</b>								
여성	58.7	17.2	41.5	22.3	15.0	4.0	<b>19.0</b>	
남성	35.8	7.5	28.3	28.3	25.9	10.2	<b>36.1</b>	
<b>&lt;2008&gt;</b>								
여성	53.9	13.9	40.0	25.1	16.5	4.5	<b>21.0</b>	
남성	30.8	5.2	25.7	29.9	28.6	10.7	<b>39.3</b>	
<b>&lt;2009&gt;</b>								
여성	52.9	12.9	40.0	27.0	15.2	4.9	<b>20.1</b>	
남성	29.9	5.0	24.9	32.7	26.8	10.7	<b>37.5</b>	
여성	10대	57.4	18.8	38.6	25.7	12.9	4.0	16.9
	20대	57.3	16.1	41.1	26.3	11.8	4.6	16.4
	30대	58.2	14.6	43.6	23.5	14.1	4.1	18.3
	40대	55.0	12.3	42.7	27.4	14.1	3.5	17.6
	50대	47.9	10.5	37.4	30.4	16.9	4.8	21.7
	60대+	42.6	8.1	34.5	28.7	20.5	8.3	28.8
남성	10대	32.5	6.5	26.0	35.1	22.0	10.4	32.5
	20대	26.3	4.8	21.5	33.5	27.0	13.2	40.2
	30대	30.2	5.3	24.9	32.3	26.9	10.7	37.6
	40대	30.9	4.8	26.1	32.5	27.2	9.4	36.6
	50대	30.2	3.8	26.4	32.4	27.8	9.6	37.5
	60대+	31.0	5.6	25.4	31.3	27.5	10.1	37.7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위의 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005년도에는 여성의 13.8%만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다(별로 두렵지 않다 혹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여성의 20.1%가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여 범죄로부터의 안전체감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체감도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 다소 안전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에 비해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체감도가 낮아진 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남성의 비율이 2008년도에는 39.3%였으나, 2009년도에는

3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성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로부터의 안전 체감도 역시 2005년 이래 꾸준히 상승해 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20대에게서 안전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과는 달리 20대의 연령층에서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10대 남성들의 안전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범죄피해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안전체감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아래의 표는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묻은 서울서베이 조사결과를 연도별 및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5년도에는 여성의 15.5%만이 야간보행을 안전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이 수치가 23.2%까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서울시 내를 밤에 걷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야간보행으로부터의 안전체감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다만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체감도와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2008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0대에게서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야간보행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20대의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고 10대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 표 II-36 ■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

(단위 : %)

	불안하다			보통			불안하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b>&lt;2005&gt;</b>							
여성	62.6	20.4	42.2	21.8	12.9	2.6	<b>15.5</b>
남성	34.3	7.8	26.5	30.7	27.3	7.6	<b>34.8</b>
<b>&lt;2006&gt;</b>							
여성	57.5	17.5	40.0	23.6	14.1	4.8	<b>18.9</b>
남성	31.2	6.2	25.0	29.0	27.6	12.2	<b>39.8</b>
<b>&lt;2007&gt;</b>							
여성	61.0	18.6	42.4	21.7	13.8	3.5	<b>17.3</b>
남성	35.2	7.8	27.4	28.2	26.9	9.7	<b>36.6</b>
<b>&lt;2008&gt;</b>							
여성	52.3	13.7	38.6	24.3	18.5	4.9	<b>23.4</b>
남성	27.1	11.5	31.3	30.2	22.1	5.0	<b>42.8</b>

		불안하다			보통			불안하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b>&lt;2009&gt;</b>								
여성		52.2	12.8	39.5	24.6	17.7	5.4	<b>23.2</b>
남성		27.5	4.7	22.7	31.1	30.0	11.5	<b>41.5</b>
여성	10대	57.5	18.9	38.5	23.8	14.5	4.2	18.7
	20대	56.2	16.9	39.3	23.2	15.5	5.1	20.6
	30대	57.2	13.8	43.3	23.1	15.7	4.1	19.8
	40대	53.4	11.5	41.9	25.4	17.2	4.0	21.2
	50대	47.3	9.9	37.4	26.7	20.2	5.8	26.0
	60대+	43.2	8.6	34.5	25.5	22.1	9.2	31.3
남성	10대	28.9	5.9	23.1	32.7	26.9	11.4	38.4
	20대	23.7	5.4	18.3	30.9	31.4	14.1	45.5
	30대	27.4	4.6	22.8	31.6	29.6	11.4	41.0
	40대	28.2	4.5	23.8	32.7	28.9	10.2	39.1
	50대	28.9	3.8	25.1	29.4	30.8	10.8	41.6
	60대+	29.2	4.8	24.4	29.1	30.9	10.7	41.7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남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야간보행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41.5%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역시 2008년도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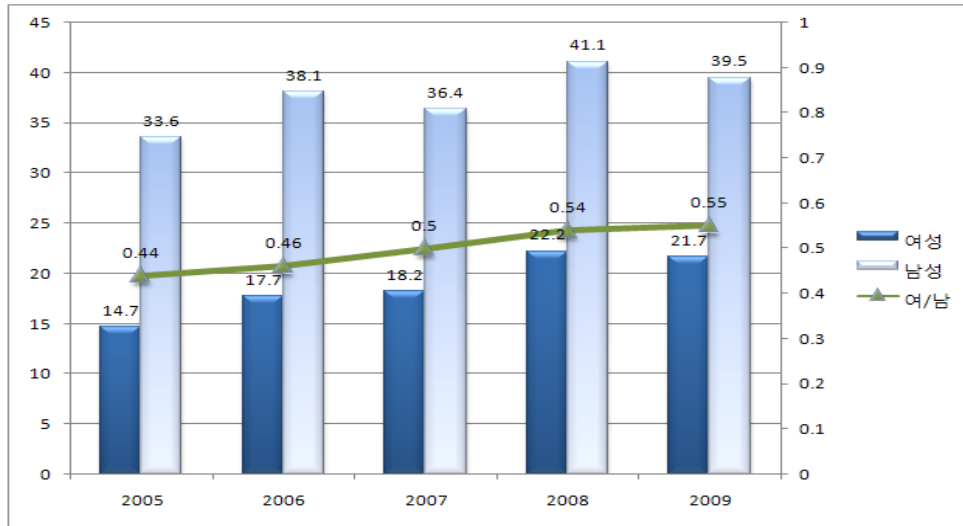
이러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표값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 및 그래프와 같다.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표값은 점차 상승하고 있어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II-37 】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14.7	17.7	18.2	22.2	21.7
남성	33.6	38.1	36.4	41.1	39.5
지표값	<b>0.44</b>	<b>0.46</b>	<b>0.50</b>	<b>0.54</b>	<b>0.55</b>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 그림 II-19 ■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 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남성 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지표값(2008년) : (여/남) = 0.85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는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많으나,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환경적 조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조영미 외, 2007).

본 지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성별에 따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표의 통계치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사회통계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는 관계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치는 2008년도 조사에 의한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를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나쁘다' 등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본 지표는 이 중에서 '좋다'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로 추정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2008년도의 경우 여성의 51.4%, 그리고 남성의 60.5%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2003년도에 여성의 38.4%, 그리고 남성의 51.1%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여성은 13% 그리고 남성은 9.4%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로는 10대에게서,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게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표 II-38 서울시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단위 : %)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b>&lt;2003&gt;</b>							
서울시	44.6	8.4	36.2	40.8	14.6	12.6	2.0
여성	<b>38.4</b>	6.1	32.3	43.5	18.1	15.7	2.4
남성	<b>51.1</b>	10.8	40.4	37.9	11.0	9.3	1.7
<b>&lt;2006&gt;</b>							
서울시	46.1	8.4	37.7	40.4	13.5	11.3	2.2
여성	<b>41.2</b>	6.4	34.8	42.7	16.1	13.6	2.5
남성	<b>51.3</b>	10.6	40.8	37.9	10.7	8.8	1.9
<b>&lt;2008&gt;</b>							
서울시	55.8	10.0	45.8	34.5	9.7	8.5	1.2
여성	<b>51.4</b>	7.8	43.7	36.9	11.7	10.6	1.1
남성	<b>60.5</b>	12.3	48.2	32.0	7.5	6.3	1.2
15~19세	72.4	24.0	48.4	24.1	3.5	3.3	0.2
20~29세	73.9	17.4	56.5	23.3	2.8	2.7	0.1
30~39세	61.3	10.1	51.2	34.7	3.9	3.7	0.3
40~49세	53.2	7.6	45.6	38.9	7.9	7.2	0.8
50~59세	47.5	3.6	43.9	41.8	10.6	9.3	1.3
60세+	28.6	2.9	25.7	40.6	30.8	26.3	4.5
65세+	26.2	2.8	23.5	37.3	36.5	30.7	5.8
초졸이하	27.7	4.0	23.7	36.2	36.0	29.6	6.4
중졸	52.4	11.3	41.0	35.0	12.6	11.5	1.2
고졸	57.1	10.1	47.0	34.7	8.2	7.5	0.7
대졸이상	62.2	10.7	51.4	33.8	4.0	3.6	0.4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년도

성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표값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서 성별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에 자신의 건강을 좋다고 평가하는 여성은 남성의 75% 수준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80% 수준으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85%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의 성별 격차는 미미한 수준에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39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3	2006	2008
여성	38.4	41.2	51.4
남성	51.1	51.3	60.5
지표값	<b>0.75</b>	<b>0.80</b>	<b>0.8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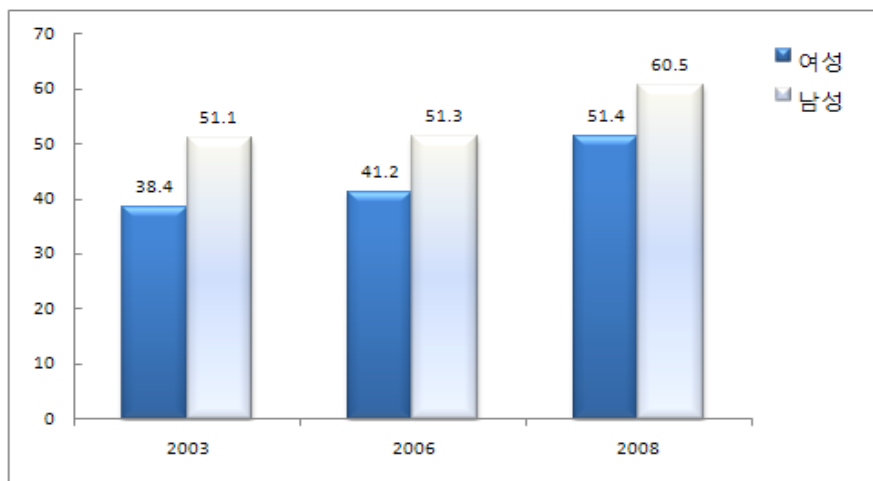


그림 II-20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변화 추이

#### (4) 성별 건강검진률

여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 100

남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남성의 수 / 검진대상 남성의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97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질병의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기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에 비해 남성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여성이 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면, 이는 앞서 살펴 본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의 조기치료·예방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조영미 외, 2006a).

본 지표는 건강검진율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 관리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이 성별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서울시의 성별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5년도에는 여성의 경우 검진 대상인원 중 수검인원의 비율이 42.6%이고 남성은 49.3%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는 수검인원의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 상승하여 여성은 55.8%를, 그리고 남성은 57.3%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13.2%가 상승하였고 남성은 8%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및 성별 건강검진 수검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으나, 2009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현재 보고되고 있지 않아 서울시의 성별 건강검진률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해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수검률이 향상되어 온 바, 2009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 수검률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 표 II-40 】 서울시 성별 건강검진 수검현황

(단위 : 명, %)

		1차 검진 + 2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2005	여성	1,254,319	533,849	42.6
	남성	1,509,466	743,779	49.3
2006	여성	1,352,414	519,252	38.4
	남성	1,640,160	779,876	47.5
2007	여성	1,568,579	786,697	50.2
	남성	1,798,718	969,330	53.9
2008	여성	1,845,192	1,030,381	55.8
	남성	2,084,364	1,194,136	57.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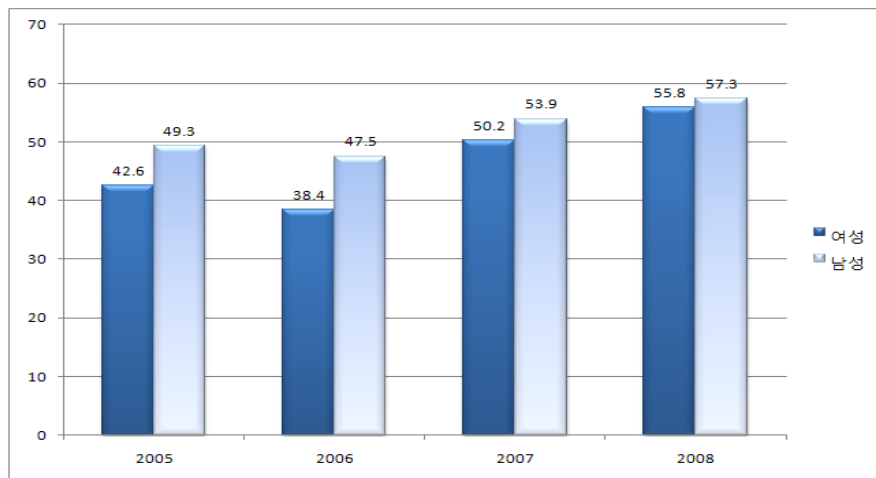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성별 건강검진률 지표값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검진 수검률에 있어 여성의 상승폭이 남성보다 컸던 만큼 지표값 역시 0.97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검진대상 남성 중 100%가 건강검진을 수검했다고 볼 때, 여성은 97%가 수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에 있어 성별 격차는 존재하지는 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표 II-41 】 성별 건강검진률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여성	42.6	38.4	50.2	55.8
남성	49.3	47.5	53.9	57.3
지표값	<b>0.86</b>	<b>0.81</b>	<b>0.93</b>	<b>0.97</b>

그러나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수검률 자체가 낮게 나타난다는 데 있다. 2007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50%를 웃돌기 시작했을 만큼,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강 실천 정도는 낮다. 이 지표의 경우 성별 격차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건강검진 실천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3)</sup>



【 그림 II-21 】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3) 관련하여 이애경 외(2007)에 따르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 1차 수검률은 51.60%,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은 46.94% 수준으로 2차 검진의 수검률이 더 낮으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수검률은 29.94%로 직장가입자 수검률 81.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건강검진 수검자 만족도 및 미수검자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건강검진 미수검 이유 1순위는 '시간이 없고 바빠다'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수검자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 개선 및 검진의 편의성 제고 등 건강검진 기획에서의 개선방안과 검진기관 서비스 질 향상, 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각각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 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광역의회 남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남성의원 수 / 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지표값(5대) : (여/남) = 0.16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는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여성들의 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들의 권한 강화는 서울시와 해당 지역 여성들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조영미 외, 2006).

【 표 II-42 】 서울시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 명, %)

	의원 수	여성의원	여성의원 비율
제1대(1995. 6)	147	14	9.5
제2대(1998. 6)	104	11	10.6
제3대(2002. 6)	102	8	7.8
제4대(2006. 5)	106	13	12.3
제5대(2010. 6)	96	13	13.5
비례대표	10	6	60.0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광역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제1대 9.5%, 제2대 10.6%, 제3대 7.8%, 제4대에 12.3%, 제5대 13.5%로 제3대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제5대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의원인 전체의 13.5%로 남성의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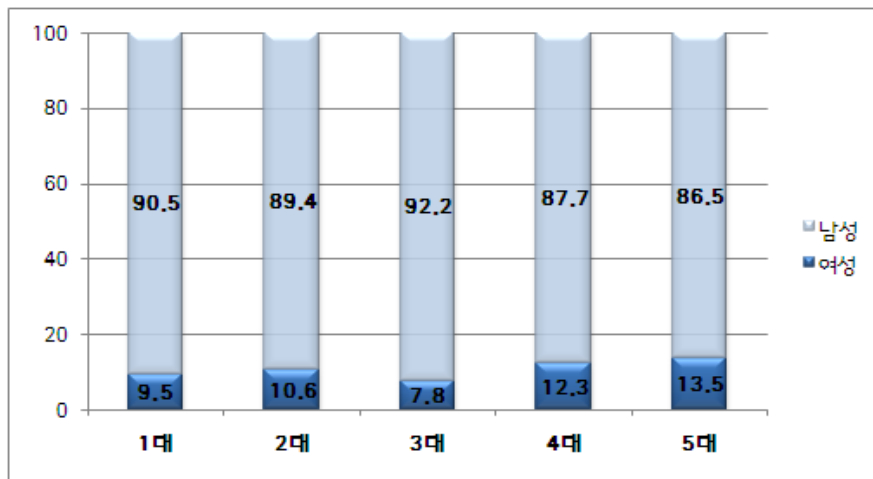
광역 여성의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남성의원 비율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 관련 사항을 의제로 올릴 수 있는 임계치(최소수치)가 여성

의원 비율이 30%를 넘었을 때라고 보고 있는데,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표 II-43 】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1대	2대	3대	4대	5대
여성	9.5	10.6	7.8	12.3	13.5
남성	90.5	89.4	92.2	87.7	86.5
지표값	<b>0.10</b>	<b>0.12</b>	<b>0.08</b>	<b>0.14</b>	<b>0.16</b>



【 그림 II-22 】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변화 추이

##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기초의회 남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남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지표값(5대) : (여/남) = 0.23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초의회의 경우 처음 출발할 당시 여성의원 비율이 4.3%로 광역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미약했으나, 4대에 접어들어서는 19.6%로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3대의 여성의원 비율(5.7%)에 비해 4대에는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대에서는 4대에 비해 오히려 여성의원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

【 표 II-44 】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 명, %)

	의원 수	여성의원	여성의원 비율
제1대(1995. 6)	806	35	4.3
제2대(1998. 6)	520	26	5.0
제3대(2002. 6)	513	29	5.7
제4대(2006. 5)	419	82	19.6
제5대(2010. 6)	366	68	18.6
비례대표	53	51	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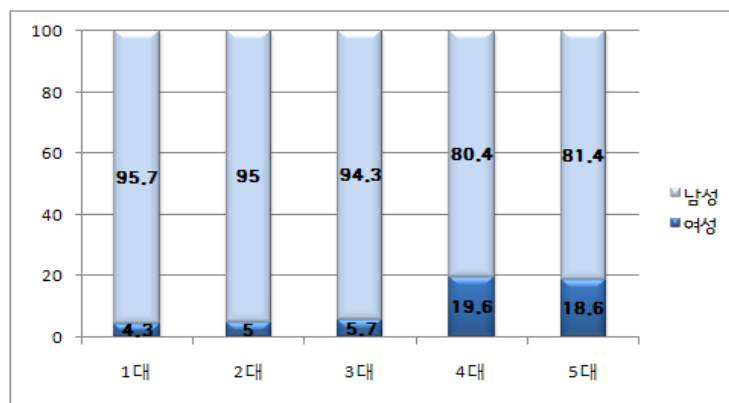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표값은 4대에서 0.24로 여성의원 수가 남성의원 수의 24%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대에 들어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원 수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이며, 임계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대에서는 여성의원원의 비율이 4대에 비해 다소 하락함에 따라 지표값 역시 감소하였다.

【 표 II-45 】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1대	2대	3대	4대	5대
여성	4.3	5.0	5.7	19.6	18.6
남성	95.7	95	94.3	80.4	81.4
지표값	0.04	0.05	0.06	0.24	0.23



【 그림 II-23 】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변화 추이

### (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begin{aligned} \text{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text{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 \text{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 수}) * 100 \\ \text{5급 이상 남성공무원 비율(\%)} &= (\text{5급 이상 남성공무원 수} / \text{서울시 전체 남성공무원 수}) * 100 \\ \text{지표값(2009년)} : (\text{여}/\text{남}) &= 0.16 \end{aligned}$$

여성들의 공직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지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5급 이상 관리직에 진출한 경우는 매우 낮은 편이다.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증가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행정 영역 내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여성 진출이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정책의 입안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서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여성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에 좋은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지표는 성별 전체 공무원 수 중 5급 이상 공무원 수로 측정된다. 5급 이상 공무원 중 성별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남성 공무원 중 5급 이상 비율과 여성 공무원 중 5급 이상 비율을 각각 측정한 후 여성 비율을 남성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한다.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서울시의 성별·직급별 공무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여성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도의 0.9%에서 2009년도의 1.3%로 증가폭은 미미하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2004년도까지 이 비율은 1.2%까지 상승했다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다시 2004년도의 수준을 회복하여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남성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도의 6.7%에서 2009년도에는 8.3%에 이른다. 5급 이상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8년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표 II -46 서울시 성 및 직급별 공무원 수(2001~2009)

(단위 : 명, %)

업 도	합계 (명 / %)	5급 이상						6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	진체 (41,065 / 100.0)	2,166	6	19	36	326	1,779	24,576	5,412	9,340	7,483	2,341	218	24	11,099	28	582	654	1,718
	여성 (9,983 / 100.0)	91 (0.9)	-	-	1	20	70	6,664	544	2,290	2,752	1,078	87	7	2,530	-	278	322	4
1	남성 (31,082 / 100.0)	2,075 (6.7)	6	19	35	306	1,709	17,912	4,868	7,050	4,731	1,263	131	17	8,569	28	304	332	1,714
	진체 (40,177 / 100.0)	2,200	5	21	38	334	1,802	24,298	5,379	9,444	7,339	2,136	223	24	10,539	29	524	685	1,655
2	여성 (9,987 / 100.0)	95 (1.0)	0	0	1	20	74	6,763	555	2,410	2,748	1,050	94	5	2,459	-	235	333	3
	남성 (30,190 / 100.0)	2,105 (7.0)	5	21	37	314	1,728	17,535	4,824	7,034	4,591	1,086	129	19	8,080	29	289	352	1,652
2	진체 (40,261 / 100.0)	2,313	5	18	46	342	1,902	24,553	5,724	10,780	6,230	1,819	228	25	10,282	24	489	732	1,615
	여성 (10,354 / 100.0)	116 (1.1)	0	0	2	21	93	7,133	706	2,654	2,798	975	99	7	2,431	-	210	355	3
3	남성 (29,907 / 100.0)	2,197 (7.3)	5	18	44	321	1,809	17,420	5,018	8,126	3,432	844	129	18	7,851	24	279	377	1612

연도	합계 (명 / %)	5급 이상						6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020	전체 (40,782 / 100.0)	2,270	5	14	42	320	1,889	24,891	5,784	11,110	5,957	2,040	250	23	10,109	27	482	1,155	1,575	
	여성 (10,839 / 100.0)	125	0	0	2	20	103	7,586	2,853	2,779	1,203	109	6	2,388	-	206	417	2		
	남성 (29,943 / 100.0)	2,145	5	14	40	300	1,786	17,305	5,033	8,257	3,178	837	141	17	7,721	27	276	738	1,573	
	전체 (41,076 / 100.0)	2306	4	16	43	335	1,908	25,286	6,178	11,434	5,076	2,598	254	23	11,341	29	468	908	461	
2020	여성 (11,632 / 100.0)	123	-	1	1	22	99	8,198	3,207	2,595	1,565	116	7	2,385	-	206	448	149		
	남성 (29,444 / 100.0)	2183	4	15	42	313	1,809	17,088	8,227	2,481	1,033	138	16	8,956	29	262	460	312		
	전체 (41,367 / 100.0)	2352	4	18	51	344	1,935	25,698	11,616	4,810	2,893	250	23	11,056	29	465	949	545		
	여성 (12,350 / 100.0)	127	-	1	-	22	104	8,875	3,565	2,565	1,807	119	7	2,371	1	208	479	163		
2020	남성 (29,017 / 100.0)	2225	4	17	51	322	1,831	16,823	8,051	2,245	1,086	131	16	8,685	28	257	470	382		

연도	합계 (명 / %)	5급 이상						6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007	전체 (40,819 / 100.0)	2445	4	14	53	349	2,025	25,915	6,486	11,754	4,925	2,750	265	23	10,603	27	457	1,084	-	
	여성 (12,834 / 100.0)	152	-	-	24	128	9,431	1,064	3,939	2,677	1,751	132	7	2,338	1	207	566	-		
	남성 (27,985 / 100.0)	2293	4	14	53	325	1,897	16,484	5,422	7,815	2,248	999	133	16	8,265	26	250	518	-	
2008	전체 (40,539 / 100.0)	2475	3	17	50	349	2,056	25,916	6,571	12,049	4,371	2,925	1,224	10,156	263	29	22	-		
	여성 (13,293 / 100.0)	168	-	-	33	135	9,885	1,197	4,290	2,491	1,877	625	2,310	197	131	1	6	-		
	남성 (27,246 / 100.0)	2307	3	17	50	316	1,921	16,061	5,374	7,759	1,880	1,048	599	7,846	132	28	16	-		
2009	전체 (41,303 / 100.0)	2449	5	20	42	338	2,044	26,784	6,945	12,000	4,132	3,707	272	22	10,041	27	445	1,263	-	
	여성 (14,119 / 100.0)	185	-	-	31	154	10,661	1,327	4,527	2,463	2,344	137	6	2,290	1	194	645	-		
	남성 (27,184 / 100.0)	2264	5	20	42	307	1,890	16,123	5,618	7,473	1,669	1,363	135	16	7,751	26	251	618	-	

※ 자료 : 서울특별시 인사과,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 주: 소방직, 교원직 제외

여전히 성별 격차는 크게 나타나, 이 지표의 2009년도 지표값은 0.16이다. 이는 전체 남성 공무원 중 5급 이상 남성 공무원이 100명일 때, 전체 여성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수는 남성의 16%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2001년도의 0.13에 비하면 다소 상승한 수치이며, 지표값은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다만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잠시 하락하기도 하여 2009년도에도 2004년도의 지표값인 0.17에는 못 미치고 있다.

표 II-47 |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0.9	1.0	1.1	1.2	1.1	1.0	1.2	1.3	1.3
남성	6.7	7.0	7.3	7.2	7.4	7.7	8.2	8.5	8.3
지표값	0.13	0.14	0.15	0.17	0.15	0.13	0.15	0.15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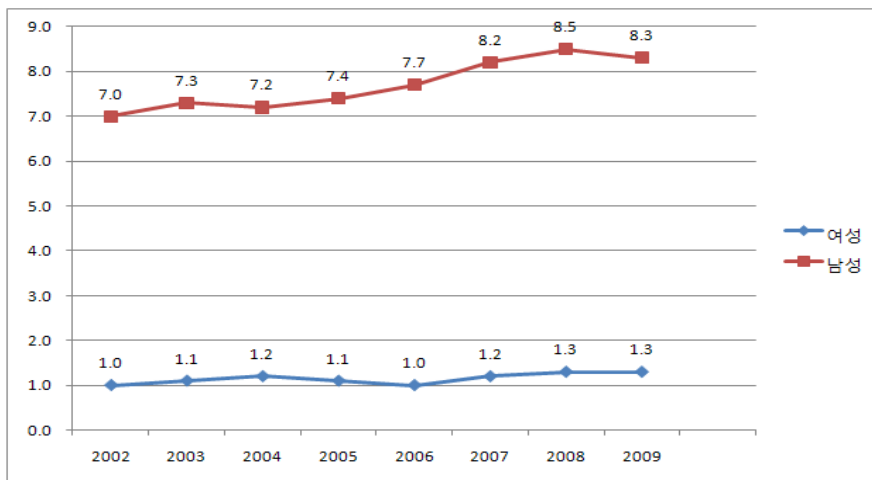


그림 II-24 |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 (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수 / 전체 여성공무원 수) \* 100

주요부서 남성공무원 비율(%) = (주요부서 남성공무원 수 / 전체 남성공무원 수) \* 100

지표값(2009년) : (여/남) = 1.28

여성의 정치·행정적 대표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직에 진출한 여성이 승진 제



한 없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서 배치에 있어서의 제한 없이 주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서 배치에 있어 여성 공무원은 여성·가족 부문이나 복지 부문, 민원 부문 등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특정 분야에 배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배치부서의 성별 불균형 현상은 성평등한 공직문화 달성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획, 예산, 감사 등의 주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제한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지표는 전체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과 전체 남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남성 공무원의 비율을 각각 측정한 후, 여성 비율을 남성 비율로 나누어 지표값을 산출한다.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별 차이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지표값이 1이 넘을 경우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서울시의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주요부서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관련 부서 및 실·국의 주무과를 의미한다.

서울시의 전체 여성 공무원 중 주요 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5년도의 9.2%에서 2009년도에는 12.3%로 3.1%p 상승하였다. 남성의 경우 2005년도의 8.9%에서 2009년도에는 9.6%로 0.7%p 상승하였다.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공무원의 주요 부서 배치 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07년도의 수치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남성 공무원의 주요 부서 배치 비율은 2007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년부터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 표 II-48 】 서울시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현황

(단위 :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시 전체 공무원 수	여성	11,748(100.0)	12,186(100.0)	13,162(100.0)	13,638(100.0)	14,511(100.0)
	남성	34,288(100.0)	28,607(100.0)	33,288(100.0)	32,632(100.0)	32,849(100.0)
주요부서 합계	여성	1,080(9.2)	1,634(13.4)	2,631(20.0)	1,538(11.3)	1,777(12.3)
	남성	3,035(8.9)	4,166(14.6)	5,740(17.2)	3,332(10.2)	3,138(9.6)
기획	여성	29	51	62	134	129
	남성	101	130	135	253	180
예산	여성	21	42	54	104	89
	남성	89	130	113	196	108
인사	여성	41	72	86	50	72
	남성	116	243	163	96	156

		2005	2006	2007	2008	2009
감사	여성	40	59	74	91	101
	남성	244	341	319	385	314
실국주무과	여성	949	1,410	2,355	1,159	1,386
	남성	2,485	3,322	7,365	2,402	2,380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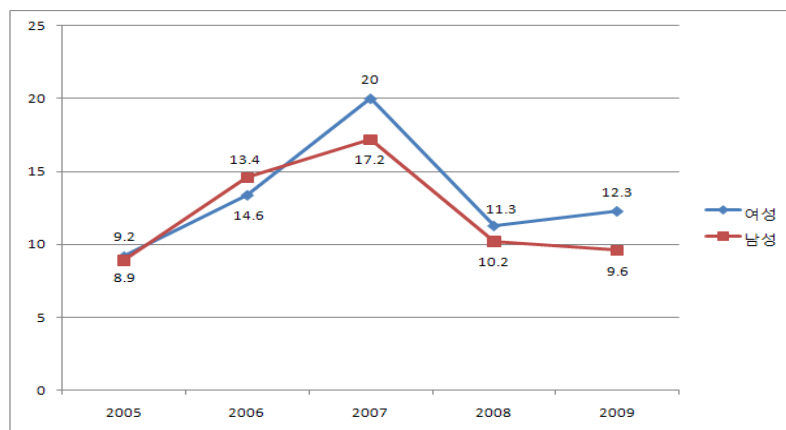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모두 주요 부서 중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실·국의 주무과이다. 여성의 경우 그 다음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기획 부서이며, 남성은 감사 부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표의 지표값은 1을 넘는다. 즉 전체 여성 공무원 중 주요 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남성 공무원 중 주요 부서에 배치된 남성 공무원의 비율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표값은 계속 1을 넘었으며, 지표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표 II-49 】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지표값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9.2	13.4	20.0	11.3	12.3
남성	8.9	14.6	17.2	10.2	9.6
지표값	<b>1.03</b>	<b>0.92</b>	<b>1.16</b>	<b>1.11</b>	<b>1.28</b>



【 그림 II-25 】 성별 주요 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변화 추이

지금까지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해 선정된 4개 영역 19개 지표의 측정치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성인지지수를 산출하고 성인지 지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 제2절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 1.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과정

이상적으로 개발된 성인지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태 비교와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각 영역별 지표를 종합해서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때 주안점은 ① 측정된 지표가 각 영역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② 각 영역 내에서 측정된 지표의 중요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③ 지수산출 산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두어야 한다(조영미 외, 2008).

서울시 성인지지수는 기 개발되었던 5개 영역 26개 지표로 구성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 지수 산출에 부적합한 지표를 제외하고 남은 4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2008년도에 개발되었다. 서울시 성인지지수의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다.

$g_{ij}$  = 각 지표별 남성대비 여성 지표값  
 $q_{ij}$  = 각 지표별 가중치  
 $i$  = 영역별 번호,  $j$  = 영역별 지표번호

$$G_{ij} = g_{ij} \times q_{ij}$$

$$G_i = (\sum_{j=1}^m G_{ij}) / m$$

$G_i$  는 각 영역별 지수  
 $m$  은 각 영역별 지수에 포함된 지표의 수

$$G = (\sum_{j=1}^m G_{ij}) / 19$$

$G$ 는 양성평등지수

우선 각 개별지표의 값  $g_{ij}$ 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얼마나 평등한가를 보여준다. 남성 대비 여성의 데이터 값인 성평등 지표값( $g_{ij}$ )에 전문가조사에서 결정된 가중치( $q_{ij}$ )를 곱하였다. 지표의 성격은 남성대비 여성의 값이 클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해진 가중 지표값( $G_{ij}$ )을 영역별로 더한 후 영역별 지표수( $m$ )로 나누어 영역별 지수( $G_i$ )를 구하고, 전체 지표의 지표값( $G_{ij}$ )을 더한 후 전체 지표수 19로 나누어 양성평등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성인지지수는 영역별 성평등 상태 비교와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향상 혹은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여성의 성평등 정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어떤 영역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2.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성인지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2005년도의 성인지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표 II-50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 $g_{ij}$ )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2.0	75.3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6.7	71.9	0.93	
	3. 성별 평균임금비	65.7	100.0	0.66	
	4. 성별 관리직 비율	22.0	35.0	0.63	
	5. 성별 정규직 비율	36.0	55.0	0.65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0.5	69.5	0.44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7.4	82.6	0.21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54.1	92.1	0.59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2	8.2	0.76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6.0	64.0	0.56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71.2	80.0	0.89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4.7	33.6	0.44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2006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42.6	49.3	0.86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1	7.4	0.15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9.2	8.9	1.03	

이 지표값을 토대로 산출된 2005년도 서울시 성인지지수는 다음과 같다.

【 표 II-51 】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47	41.15	42.85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3	71.45	66.44		
	3. 성별 평균임금비	0.66	87.90	58.01		
	4. 성별 관리직 비율	0.63	77.00	48.51		
	5. 성별 정규직 비율	0.65	78.55	51.05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4	57.40	25.25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1	53.37	11.20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59	76.07	44.88	43.88	42.85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76	64.87	49.30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56	66.93	37.48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9	67.50	60.08	58.19	42.85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44	85.14	37.46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0	78.18	62.54		
	4. 성별 건강검진율	0.86	84.55	72.7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30.13	42.85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15	75.33	11.29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1.03	76.67	78.97		

2005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2.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06년도의 성인지 지표 값과 그로부터 산출된 성인지지수를 살펴보겠다. 성인지 지표값은 【 표 II-52 】 와 같으며, 성인지지수는 【 표 II-53 】 과 같다.

표 II-52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9	74.7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6.4	73.4	0.90	
	3. 성별 평균임금비	65.6	100	0.66	
	4. 성별 관리직 비율	21.7	28.6	0.76	신직업분류 기준
	5. 성별 정규직 비율	38.9	55.6	0.70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0	69.0	0.45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7.6	82.4	0.21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57.2	93.6	0.61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4	8.6	0.86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7.5	62.5	0.60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68.0	77.8	0.87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7.7	38.1	0.46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4. 성별 건강검진율	38.4	47.5	0.8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0	7.7	0.13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13.4	14.6	0.92	

【 표 II-53 】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47	42.70	43.33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0	71.45	64.30		
	3. 성별 평균임금비	0.66	87.90	58.01		
	4. 성별 관리직 비율	0.76	77.00	58.52		
	5. 성별 정규직 비율	0.70	78.55	54.98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5	57.40	25.83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1	53.37	11.20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61	76.07	46.40	47.44	43.33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86	64.87	55.78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0	66.93	40.15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7	67.50	58.72	57.22	43.33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46	85.14	39.16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0	78.18	62.54		
	4. 성별 건강검진율	0.81	84.55	68.48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27.64	43.33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13	75.33	9.79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0.92	76.67	70.5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3.33로 전년도인 2006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2007년도의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54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7	74.7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5	72.9	0.89	
	3. 성별 평균임금비	65.4	100	0.65	
	4. 성별 관리직 비율	23.2	30.0	0.77	신직업분류 기준
	5. 성별 정규직 비율	42.1	57.7	0.73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7	68.3	0.46	2006년 자료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4	80.6	0.24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0.4	94.8	0.64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4	9.3	0.80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8.8	61.2	0.63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65	75.5	0.86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8.2	36.4	0.50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2006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50.2	53.9	0.93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2	8.2	0.15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20.0	17.2	1.16	



【 표 II-55 】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47	43.16	45.28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89	71.45	63.59		
	3. 성별 평균임금비	0.65	87.90	57.14		
	4. 성별 관리직 비율	0.77	77.00	59.29		
	5. 성별 정규직 비율	0.73	78.55	57.34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6	57.40	26.4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4	53.37	12.80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64	76.07	48.68	47.57	45.28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80	64.87	51.89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3	66.93	42.16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0.86	67.50	58.05	60.44	45.28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50	85.14	42.57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0	78.18	62.54		
	4. 성별 건강검진율	0.93	84.55	78.63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32.62	45.28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15	75.33	11.29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1.16	76.67	88.93		

2007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5.28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2008년도의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지수를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6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0	73.7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5.2	72.0	0.91	
	3. 성별 평균임금비	65.4	100	0.65	2007년 자료
	4. 성별 관리직 비율	24.8	31.6	0.78	신직업분류 기준
	5. 성별 정규직 비율	42.3	60.0	0.71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2.0	68.0	0.4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8	80.2	0.25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1.8	94.2	0.66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8	9.1	0.75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40.0	60.0	0.67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65.0	75.5	0.86	2007년 자료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22.2	41.1	0.54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51.4	60.5	0.85	
	4. 성별 건강검진율	55.8	57.3	0.97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3	8.5	0.15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11.3	10.2	1.11	

【 표 II-57 】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47	43.38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1	71.45	65.01		
	3. 성별 평균임금비	0.65	87.90	57.13		
	4. 성별 관리직 비율	0.78	77.00	60.06		
	5. 성별 정규직 비율	0.71	78.55	55.77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7	57.40	26.9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5	53.37	13.34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66	76.07	50.20	47.89	45.78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75	64.87	48.65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7	66.93	44.84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6	67.50	58.05	63.12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54	85.14	45.97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5	78.18	66.45		
	4. 성별 건강검진율	0.97	84.55	82.0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31.66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15	75.33	11.29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1.11	76.67	85.10		

2008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5.78로 역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는 2009년도의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지수의 산출 결과이다.

표 II-58 2009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9.8	72.5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3.3	69.2	0.91	
	3. 성별 평균임금비	65.4	100	0.65	2007년 자료
	4. 성별 관리직 비율	25.2	32.9	0.77	신직업분류 기준
	5. 성별 정규직 비율	43.2	64.3	0.67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2.0	68.0	0.47	2008년 자료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8	80.2	0.25	2008년 자료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3.5	94.2	0.67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5	9.4	0.80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41.3	58.7	0.70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68.5	80.0	0.86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21.7	39.5	0.55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51.4	60.5	0.85	2008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55.8	57.3	0.97	2008년 자료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3.5	86.5	0.16	5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8.6	81.4	0.23	5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3	8.3	0.16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9.6	12.3	1.28	

【 표 II-59 】 2009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47	42.8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1	71.45	65.01		
	3. 성별 평균임금비	0.65	87.90	57.13		
	4. 성별 관리직 비율	0.77	77.00	59.29		
	5. 성별 정규직 비율	0.67	78.55	52.62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7	57.40	26.9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5	53.37	13.34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67	76.07	50.96	49.90	46.70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80	64.87	51.89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70	66.93	46.85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6	67.50	58.04	63.33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55	85.14	46.82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5	78.18	66.45		
	4. 성별 건강검진율	0.97	84.55	82.0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6	79.67	12.74	35.31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3	79.67	18.3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16	75.33	12.05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1.28	76.67	98.13		

2009년도의 양성평등지수(G) 역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여 46.70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5년도의 양성평등지수인 45.85에 비해 0.85가 상승한 결과이다. 다음에서는 해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온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 지수값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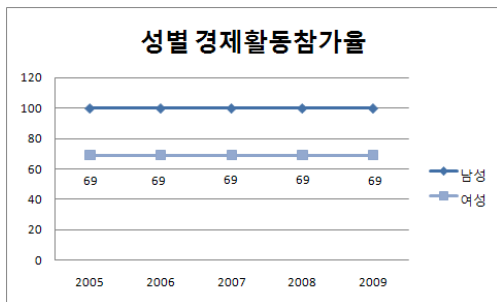
## 제3절 종합 평가

### 1.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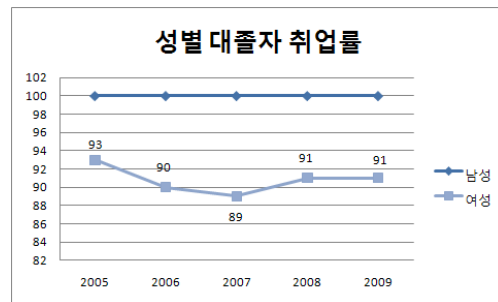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서울시 성인지 지표의 측정 결과를 통해서 서울 여성들의 현실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시 성인지 지표에서 세부지표별로 도출되는 지표값은 남성을 1로 보았을 때의 여성의 달성 정도이다. 일례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지표값은 0.69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이 100%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고 할 때, 여성은 69%만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지표값은 해당 지표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혹은 좁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영역에 따라 각 세부지표별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지표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1) 여성의 경제세력화

우선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8개 지표에 대한 지표값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그림 II-26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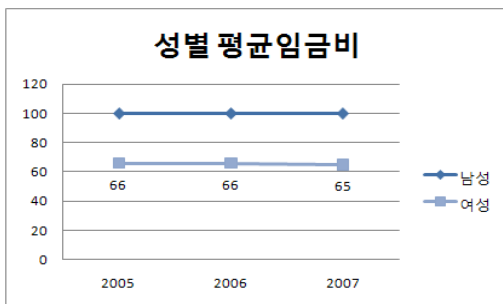


■ 그림 II-27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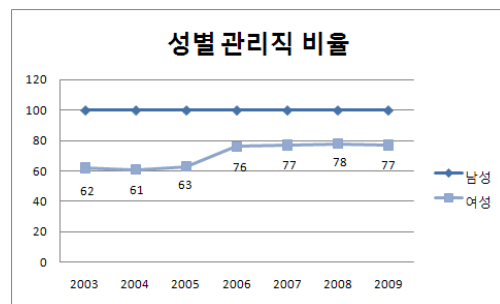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표값은 0.69(100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69)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2005년 이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성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망실업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성별 대졸자 취업률의 지표값을 통해서 보면 대졸자 취업률에서의 성별 차이는 2007년도까지 계속 벌어지다가 2008년도에 다시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9년도의 지표값도 2005년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자 취업률에서의 성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졸 여성들의 취업이 남성보다 어려운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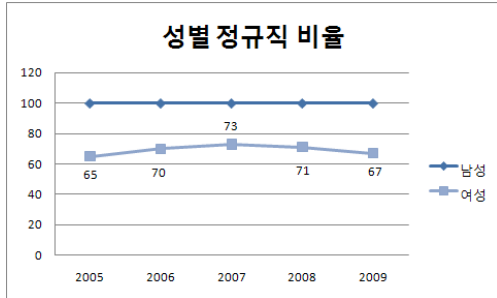
■ 그림 II-28 ■ 성별 평균임금비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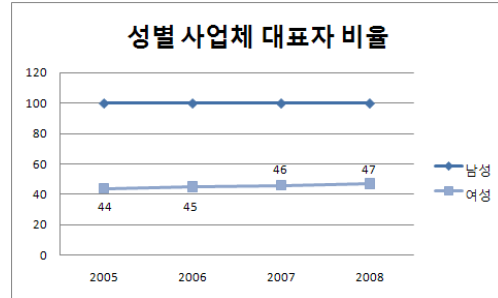
■ 그림 II-29 ■ 성별 관리직 비율 지표값 변화

성별 평균임금비는 2007년도 들어 조금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함은 물론이며, 승진이나 배치 등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줄어야 하며 성별 직종 분리가 사라져야 한다.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종 간 임금 차이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성별 평균임금비라는 지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별 평균임금비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문제는 성별 평균임금비의 지역별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성별 평균임금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리직 비율에서는 2006년 이후 조금씩이나마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06년도에는 전년도인 2005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후에도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민간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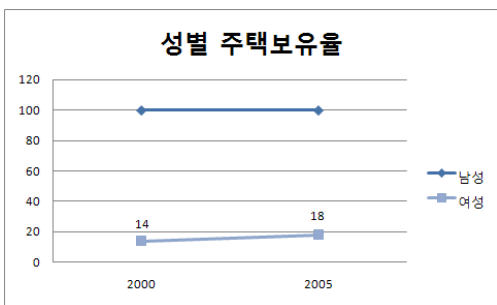
■ 그림 II-30 ■ 성별 정규직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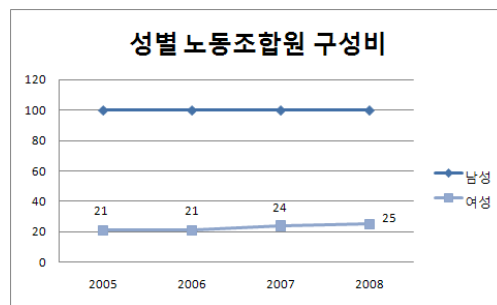
■ 그림 II-31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지표값 변화

성별 정규직 비율의 지표값 변화 추이는 위의 그래프와 같다. 2005년도에 비해 2009년도의 지표값은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성별 격차는 큰 상황이다. 2007년도까지는 성별 격차가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도부터 다시 지표값이 떨어지면서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성별 격차는 비정규직의 감소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꾸준히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지표이다. 아직까지 여성 사업체 대표자는 남성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별 격차는 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창업 지원은 서울시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을 통해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표값에서는 (물론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미미한 변화를 보일 뿐이라는 점에서 여성 창업 활성화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여기에는 물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된다.



■ 그림 II-32 ■ 성별 주택보유율 지표값 변화



■ 그림 II-33 ■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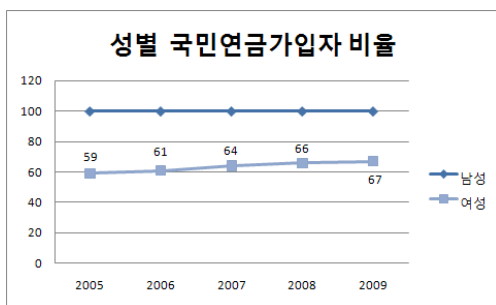
성별 주택보유율은 2000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는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이지만 성별 격차가 대단히 큰 지표 중 하나이다. 이 지표는 지표 의미에 적합한 통계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고, 대체 데이터 역시 5년에 한 번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측정의 의미가 적은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지표에 대해서는 계속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역시 지표값이 미미하게 상승함에 따라 성별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성별 정규직 비율 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될 경우 이 지표의 지표값 상승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가장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집단이 가장 배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여성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비율이 낮음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이해와 필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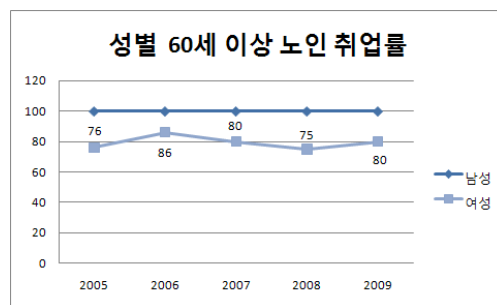
##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총 3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값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남성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100% 환산 비율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은 이 영역의 지표 중 가장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표이다. 다만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에서의 성별 격차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성인지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림 II-34 ■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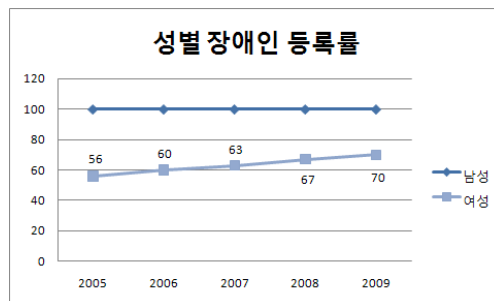
■ 그림 II-35 ■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지표값 변화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지표의 지표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지표는 2009년도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취업률이 100%일 때, 여성 노인의 취업률은 80%를 보이고 있어 지표값이 크고 따라서 성별 격차도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60세 이상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선희 외(2009)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50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은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약값을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적당한 일을 찾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절반 정도도 공공근로나 공병수거, 청소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일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여성은 소수임을 보고하고 있다.

즉, 노인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빈곤계층이 되기 쉬운 집단이며, 여성 노인의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보다 낮아 여성노인의 빈곤화가 우려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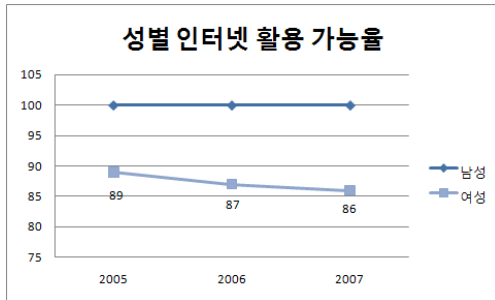
성별 장애인 등록률은 본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역으로 기존의 낮은 여성 장애인 등록률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저상버스 및 휠체어 리프트 도입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그러한 변화들이 장애인 등록률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장애인들이 점차 더 가시화되고 있어 추후 장애 관련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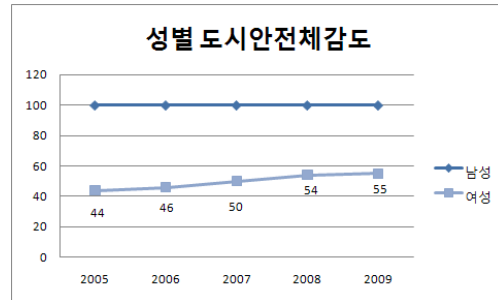
■ 그림 II-36 ■ 성별 장애인 등록률 지표값 변화

###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는 총 4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 지표별 지표값 변화 및 성별 격차 정도를 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7】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지표값 변화



【그림 II-38】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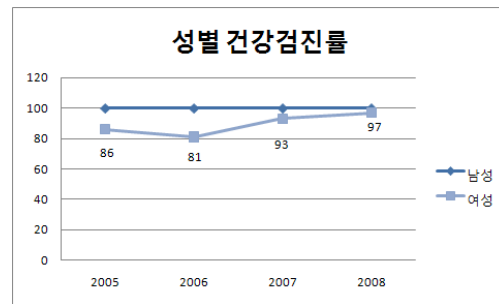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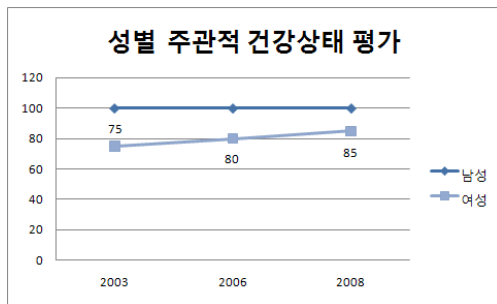
우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은 지표값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성별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어서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지표는 서울 서베이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데, 서울 서베이의 조사 문항 자체가 바뀔에 따라 지표값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지표는 정보 접근이나 획득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발되어 측정되어 온 지표이다. 정보 접근성 및 정보 획득력에 있어 성별 격차가 있고 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인터넷 활용 가능성이나 인터넷 활용 여부 등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재의 정보 산업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성별 격차를 고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지표로 대체할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성별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고 있는 지표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민선 4기 동안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공간의 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sup>4)</sup>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성별 격차는 더욱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역시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지표이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4) 관련 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설계에 CPTED 도입, 여행 콜택시 운영, 여행 화장실 및 여행 주차장 등 여행 시설 인증, 검침 안심서비스, 여성 안전지도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성별 건강검진률은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하여 성별 격차가 매우 미미한 지표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표이다.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그림 II-39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그림 II-40 ■ 성별 건강검진률 지표값 변화

####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는 총 4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및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성별 격차가 매우 크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표이다. 특히 4대 지방선거에서부터 여성들의 약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광역의회보다는 기초의회에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역의회에서의 지표값은 1대의 10에서 5대의 16으로 6만큼 성장하였으나, 기초의회에서의 지표값은 1대의 4에서 5대의 23으로 무려 18만큼 성장하였다. 두 지표 모두 지표값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우선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지표값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성별 격차가 대단히 크지만,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서울시 성 및 직급별 공무원 수'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의 경우 1급~3급에서는 여성이 전무하고, 4급에 31명(남성은 307명), 5급에 154명(남성은 1,890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8급의 경우 여성이 2,463명이고 남성은 1,669명이며, 9급의 경우 여성이 2,344명이고 남성이 1,363명인 것으로 나타

나 5급 이상과 6급 이하에서의 성별 관계는 서로 상반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에서는 여성이 대단히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공무원 중 고위직 비율은 낮지만,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소위 주요부서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은 남성의 그것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주요부서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여성의 업무능력이 그만큼 인정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승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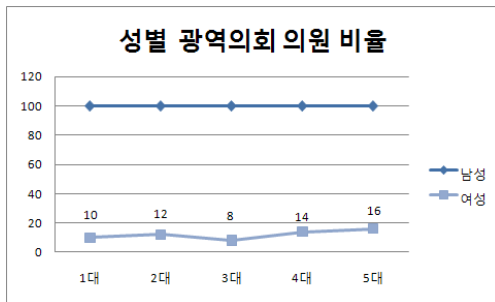


그림 II-4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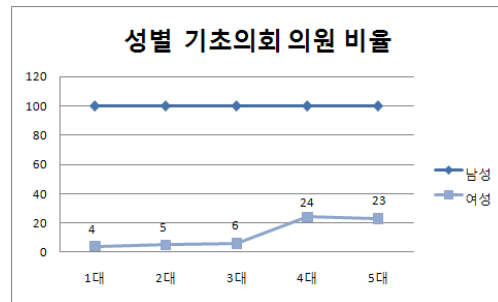


그림 II-42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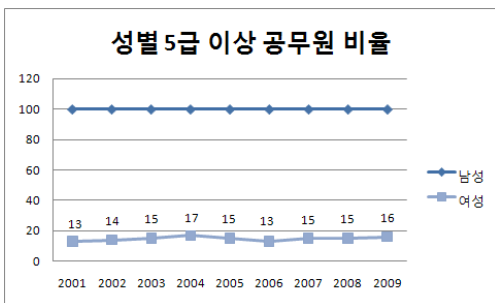


그림 II-4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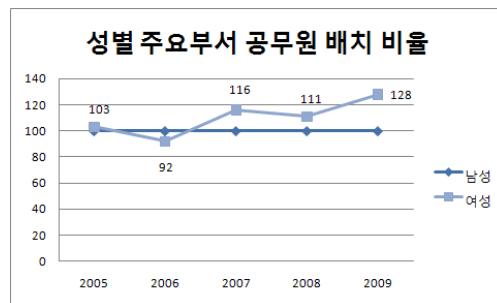


그림 II-4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지표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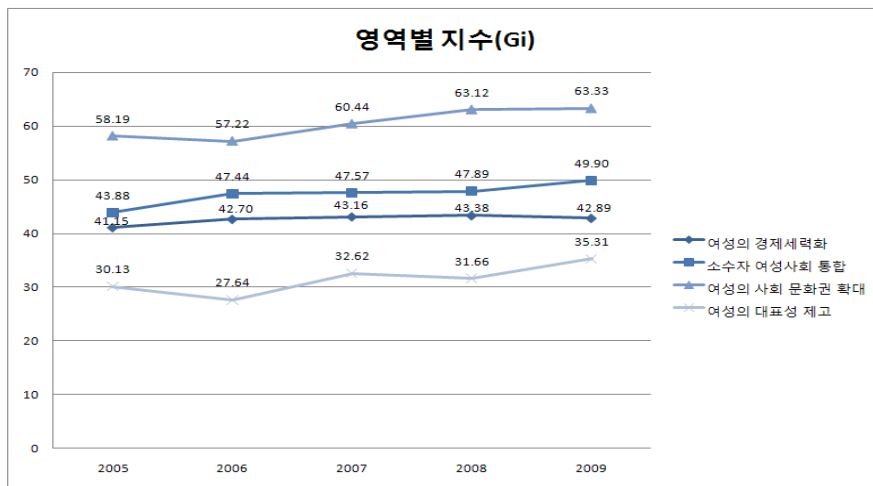
## 2. 서울시 성인지지수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 측정 결과들이 서울시 성인지지수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인지지수는 영역별 지수와 전체 지수로 구성된

다. 우선 영역별 성인지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로 살펴볼 때 성평등 수준이 현재 가장 높은 영역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이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순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과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지수값 차이는 28.02에 달한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년도에 비해 지수값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유일하게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만 전년도에 비해 지수값이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이 영역의 지수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성별 정규직 비율로, 여성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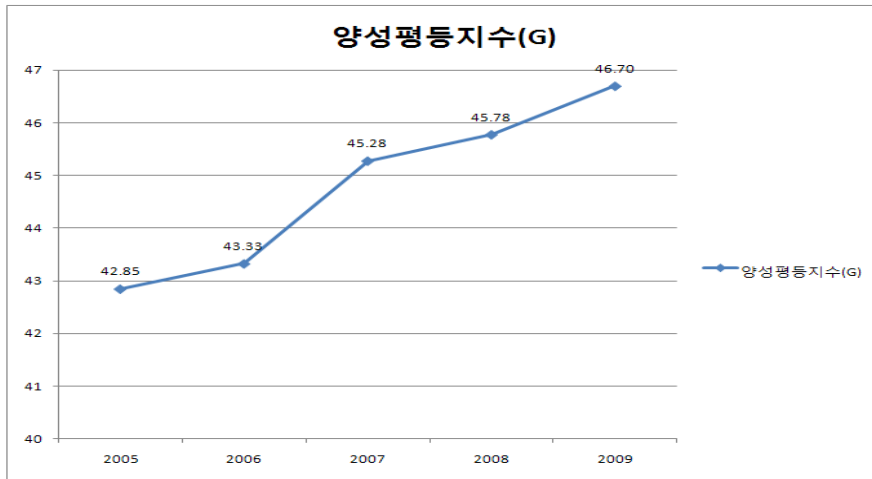


■ 그림 II-45 ■ 영역별 서울시 성인지수 변화

전년도에 비해 성평등 정도의 향상폭이 가장 큰 영역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이다. 이는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에서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비율이 남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비율을 상회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역시 이 영역의 성평등 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역은 지표값 자체가 대체로 낮아 4개 영역 중 성평등 정도가 가장 낮지만, 그만큼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다만 각 지표에서, 특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지표에서 지표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역별 성인지수 산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서울시 양성평등지수(G) 역시 2005년도의 42.85에서 2009년도에는 46.70으로 3.85만큼 향상되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평등 정도가 향상된 결과의 반영이다. 서울시 여성의 전반적인 성평등 정도가 매년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II-46 ■ 서울시 양성평등지수 변화





# III

국제비교



# III 국제비교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서울시 여성의 현황과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국가나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여 서울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조영미 외, 2008).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특히 선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이 가져야 할 목표지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OECD 10개국과 비교하였고 부수적으로 베를린, 뮌헨, 뉴욕, 도쿄, 스톡홀름의 데이터와 부분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가 도시단위의 통계인데 비해 OECD 10개국의 통계는 국가단위의 통계이므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만 한다. 또한 비교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정의나 산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대등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현황을 OECD 국가 현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의 5개 도시 통계와의 비교하는 경우도 유사한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국제적 상황과 서울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제비교는 국제적으로 주로 산출되는 경제영역과 대표성 영역 지표들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은 OECD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와 UNDP, UNECE 자료, 그리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생산한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도시 간 비교를 위해서는 각국 통계청의 지역별 통계자료, 각 도시 통계부서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절 여성의 경제세력화

###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9년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8%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는 서울시와 OECD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인 반면, OECD 국가

는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비율이므로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표 III-1 OECD 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주	여	66.1	67.0	66.7	68.2	68.9	69.5	69.9	70.1
	남	82.1	82.0	82.0	82.6	82.8	83.0	83.0	82.6
캐나다	여	72.1	73.2	73.4	73.1	73.5	74.3	74.4	74.4
	남	82.7	83.1	82.9	82.5	82.2	82.5	82.7	81.8
프랑스	여	62.1	63.7	64.0	64.3	64.5	65.0	65.2	66.2
	남	74.5	74.8	74.7	74.6	74.4	74.2	74.3	75.1
독일	여	64.2	64.5	65.8	66.9	68.5	69.4	69.7	70.4
	남	78.7	78.0	79.2	80.6	81.4	81.8	82.1	82.2
이태리	여	47.9	48.3	50.6	50.4	50.8	50.7	51.6	51.1
	남	74.5	74.8	74.5	74.4	74.6	74.4	74.4	73.7
일본	여	59.7	59.9	60.2	60.8	61.3	61.9	62.2	62.9
	남	84.8	84.6	84.2	84.4	84.8	85.2	85.2	84.8
한국	여	53.5	52.9	54.1	54.5	54.8	54.8	54.7	53.9
	남	77.9	78.0	78.3	78.2	77.7	77.6	77.3	76.9
스웨덴	여	77.1	76.8	76.6	77.7	77.7	78.2	78.2	76.4
	남	81.1	80.8	80.7	82.5	82.6	82.9	83.1	81.3
영국	여	69.3	69.2	69.6	69.6	70.3	69.8	70.2	70.2
	남	83.3	83.6	83.1	83.0	83.2	83.1	83.4	83.2
미국	여	70.1	69.7	69.2	69.2	69.3	69.1	69.3	69.0
	남	83.0	82.2	81.9	81.8	81.9	81.7	81.4	80.4
OECD 유럽	여	57.1	57.3	57.8	58.3	58.8	59.0	59.7	60.2
	남	77.4	77.3	77.5	77.9	78.0	78.0	78.3	78.2
OECD 계	여	59.4	59.4	59.8	60.2	60.7	60.9	61.4	61.5
	남	80.4	80.1	80.1	80.2	80.4	80.4	80.4	79.9

※ 자료 :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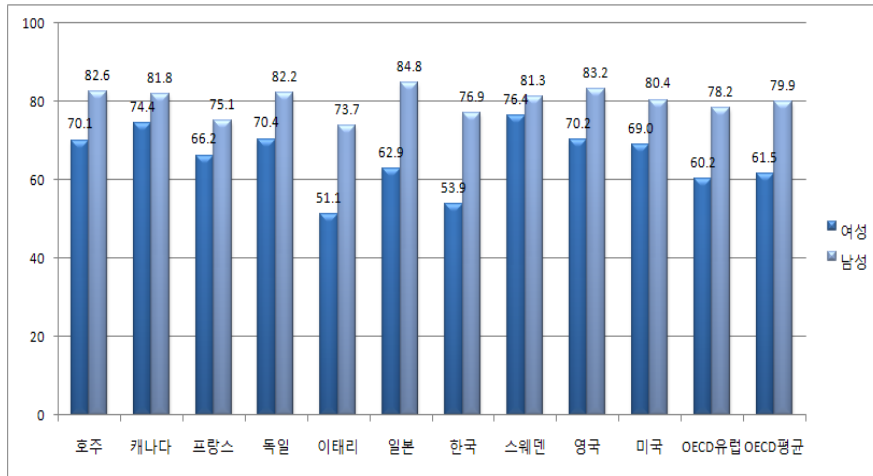


그림 III-1 OECD 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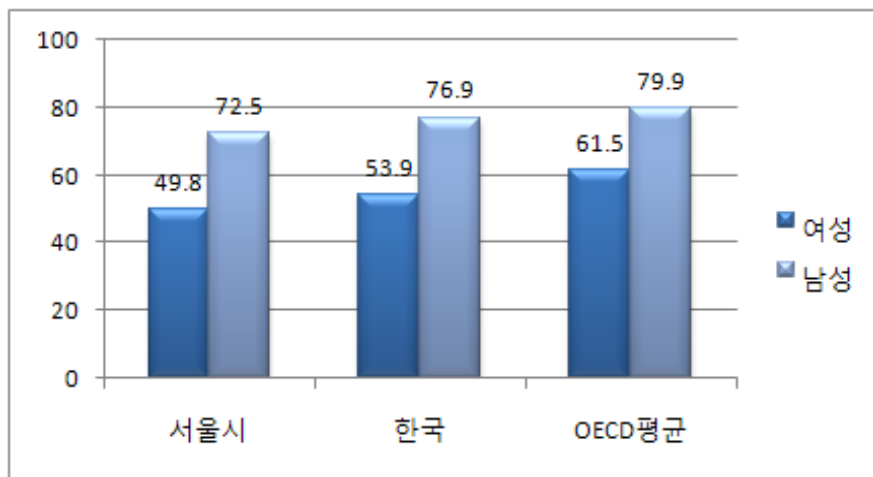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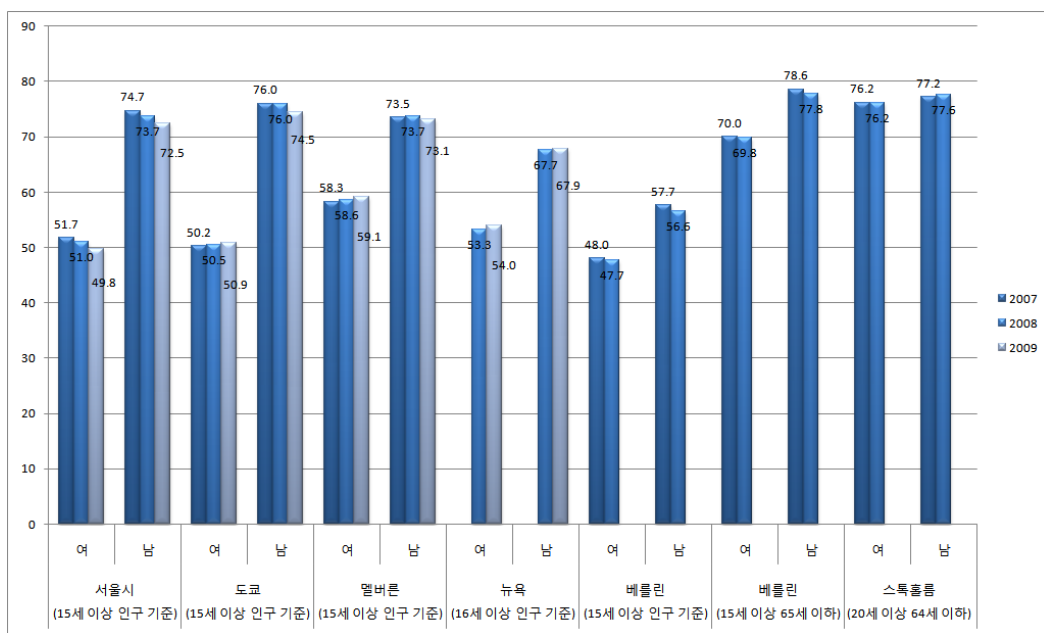


그림 III-2 서울시, 한국, OECD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9년)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0개국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76.4%와는 26.6%의 차이를 보이며, 캐나다의 74.4%, 영국의 70.2%, 호주의 70.1%, 독일의 70.4%, 미국의 69.0%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6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이래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서울시를 도쿄, 멜버른, 뉴욕, 베를린 그리고 스톡홀름과 비교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든 도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호주의 멜버른으로 2009년에 59.1%를 기록하고 있으나 OECD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OECD 보고서는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비율이므로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차이는 베를린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연령집단을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OECD 보고서의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톡홀름도 유사하다.



■ 그림 III-3 ■ 서울시, 도쿄, 멜버른, 뉴욕, 베를린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서울시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도쿄인데, 두 도시 모두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20%가 넘어 비교 도시들 중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차이점은 도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미약하게나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매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로 2009년의 경우에는 49.8%를 기록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5)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東京都, 도쿄도총무국통계부사회통계과 노동력조사계, 「도쿄의 노동력(노동력조사결과)(東京の労働力労働力調査結果)」, Statistics of Tokyo.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 Electronic Deliver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Statistics, *Geographic Profile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2008, 2009*.

Berlin, Amt für Statistik Berlin-Brandenburg, *Statistisches Jahrbuch Berlin 2007, 2009*.

Stockholm, USK, *Statistik om Stockholm 2007, 2008*.

##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대졸자 취업률의 경우 OECD 국가의 자료가 200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 데이터도 2008년도 수치와 비교해야 한다. 2008년도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65.2%이다. 서울시의 산출 기준은 당해 연도 여성 대졸자 중 취업자 비율인 반면, OECD의 기준은 25세~64세 대졸 여성 중 취업자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서울시의 취업률이 OECD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표 III-2 OECD 국가 교육정도별·성별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 (2008년)

(단위 : %)

		남성			여성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호주	실업률	5.3	2.3	2.1	5.0	3.2	2.2
	경제활동참가율	80.7	90.9	93.0	59.8	75.8	82.1
	취업률	76.3	88.6	90.7	49.8	69.8	76.8
캐나다	실업률	9.5	5.5	4.2	8.5	5.3	4.1
	경제활동참가율	73.6	86.6	90.2	51.1	74.3	82.7
	취업률	66.6	81.8	86.4	47.0	70.4	79.4
프랑스	실업률	9.0	4.7	3.7	10.7	6.6	4.3
	경제활동참가율	73.5	84.3	91.5	56.3	76.0	84.7
	취업률	66.9	80.3	88.0	50.3	71.0	81.1
독일	실업률	18.1	7.2	2.9	15.0	7.2	3.9
	경제활동참가율	81.0	87.2	92.1	56.1	75.3	84.3
	취업률	66.3	81.0	89.4	47.7	69.8	81.1
이태리	실업률	6.0	3.4	3.1	10.4	6.1	5.3
	경제활동참가율	75.2	86.9	89.3	37.5	68.8	80.1
	취업률	70.7	84.0	86.5	33.6	64.5	75.9
일본	실업률	*	4.7	2.8	*	4.0	3.5
	경제활동참가율	*	91.9	96.0	*	64.2	67.9
	취업률	*	87.6	93.3	*	61.7	65.6
한국	실업률	3.5	3.9	2.7	1.5	2.5	2.4
	경제활동참가율	81.1	87.6	91.7	59.3	58.2	62.6
	취업률	78.2	84.2	89.1	58.4	56.8	61.1
스웨덴	실업률	6.0	3.8	3.4	8.9	4.5	3.1
	경제활동참가율	78.9	90.1	93.4	61.4	83.0	91.2
	취업률	74.1	86.8	90.2	56.0	79.2	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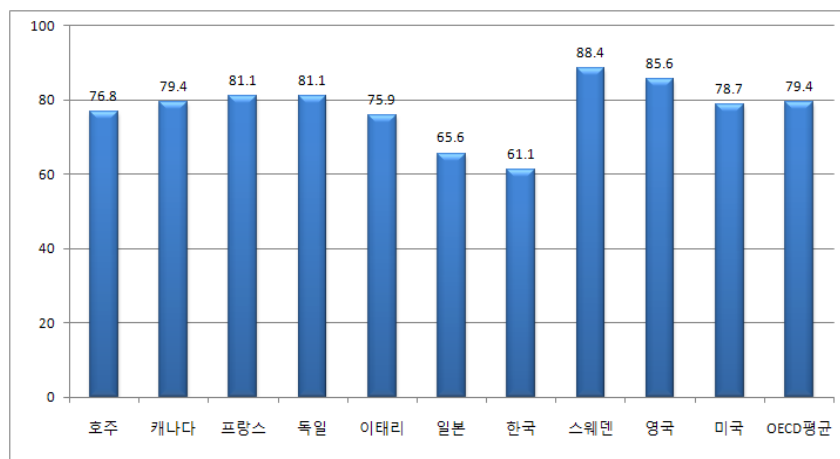
		남성			여성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영국	실업률	6.7	3.7	2.0	5.5	3.7	2.0
	경제활동참가율	78.4	89.3	91.8	61.4	80.4	87.3
	취업률	73.2	85.9	89.9	58.0	77.4	85.6
미국	실업률	10.9	5.6	2.4	8.5	4.9	2.5
	경제활동참가율	74.7	83.5	90.2	47.9	70.3	80.7
	취업률	66.6	78.8	88.1	43.8	66.8	78.7
OECD 전체**	실업률	8.8	4.3	2.9	9.5	5.7	3.7
	경제활동참가율	77.3	88.1	92.2	52.3	71.0	82.4
	취업률	70.9	84.4	89.5	47.6	67.1	79.4

※ 주 : \* '중등교육이상'에 포함됨

\*\*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OECD회원국의 비가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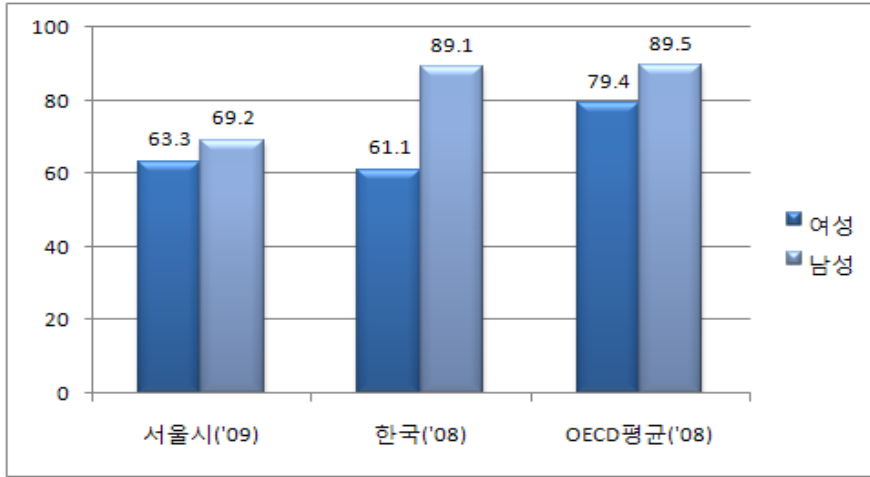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 OECD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교육정도별 취업률에서 3차 교육 여성들의 취업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다. 스웨덴과 영국은 각각 88.4%와 85.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국가들도 70% 중후반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인 79.4%보다도 낮으며, 200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09년도 취업률인 63.3%와 비교했을 때는 격차가 더 크다.



■ 그림 III-4 ■ 여성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 (2008년)





■ 그림 III-5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비교

한국 남성의 대졸자 취업률은 89.1%로 OECD 국가 평균인 89.5%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우에 2008년도 남성 대졸자 취업률은 72.0%로, OECD 국가들의 남성 취업률에는 못 미치지만, 7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II-3 ■ OECD 국가의 대졸 이상 여성 취업률 및 성별격차 (2008년)

(단위 : %)

	대학 및 3차 교육	
	취업률	성별격차 (Gender gap)
호주	76.8	13.9
캐나다	79.4	7.0
프랑스	81.1	6.9
독일	81.1	8.3
이태리	75.9	10.6
일본	65.6	27.7
한국	61.1	28.0
스웨덴	88.4	1.8
영국	85.6	4.3
미국	78.7	9.4
OECD 평균	79.4	10.1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이는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역시 OECD 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성별격차는 28.0%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다. 두 번째로 큰 국가는 일본으로 27.7%인데, 같은 아시아권 국가이며 한국과는 0.3%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성별격차는 가장 격차가 작은 국가인 스웨덴의 1.8%(약 15.6배 차이)이나 영국의 4.3%(약 6.5배 차이), 프랑스의 6.9%(약 4.1배 차이)에 비하여도 대단히 큰 격차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인 10.1%과 비교해도 2.8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 경력단절, 재취업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고학력 노동력과 인적 자원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성별 평균임금비

서울시의 성별 평균 임금비는 2008년부터 지역별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는 관계로 2007년도의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 보아야 한다. 서울시 평균 임금비는 2006년도의 65.6%에서 2007년 65.4%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는 2006년도의 34.4%에서 34.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도 약 2배가량 큰 것이다. 이들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의 임금격차는 3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앞서 살펴본 성별 대졸자 취업률에서도 한국의 성별격차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불평등은 노동시장 진입 시에도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입 후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임금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 노동력과 여성 노동력이 처한 위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저임금 직종이나 하위직, 비정규직, 임시직과 같이 노동안정성이 낮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이 낮은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고용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다양한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적 노동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III-4 OECD 국가 성별 임금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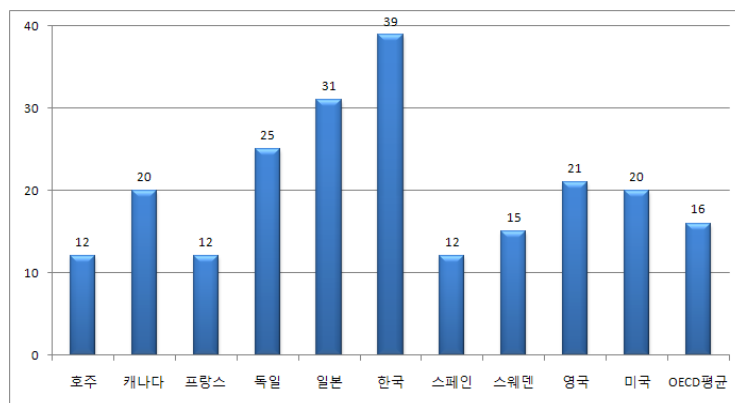
(단위 : %)

	1996	1997	1998	2006	2007	2008
호주	15	15	13	17	17	12
캐나다	25	25	25	21	21	20
프랑스	10	10	9	12	12	12

	1996	1997	1998	2006	2007	2008
독일	24	24	22	23	23	25
일본	37	37	35	33	32	31
한국	42	41	41	38	38	39
스페인	-	29	-	-	17	12
스웨덴	16	17	17	15	15	15
영국	26	26	26	21	21	21
미국	24	24	24	19	20	20
OECD 평균	22	21	21	18	18	16

※ 주 : 1.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 임금의 중앙값과 남성 임금 중앙값 대비 여성 임금의 중앙값의 차이로 계산됨  
 2. 평균임금계산은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세전소득(gross earnings)을 사용하였음  
 3. OECD 평균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 그림 III-6 ■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차이 (2008년)

OECD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의 경우 2005년도에 남녀소득비가 79%를 기록하고 있다. OECD 보고에서 덴마크의 성별 임금 차이는 1998년도에 15%에서 2008년도에 12%를 기록하고 있다(OECD EMPLOYMENT OUTLOOK 2010). 한국은 앞서 표 II-7 에서 보듯 남녀 임금비가 2006년도에 61.5%, 2009년도에 62.3%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05년도에 65.7% 그리고 2007년도에 65.4%로 나타나고 있다(표 II-6). 직접적이고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2005년도 서울시와 덴마크 간의 차이는 13.6%로 작다고 볼 수는 없다.

표 III-5 덴마크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

(단위 : DKK, %)

	1993	1996	1999	2002	2005
여성가처분소득	106,414	114,406	121,141	128,396	139,047
남성가처분소득	129,821	143,078	154,358	160,339	175,081
남녀가처분소득비	82	80	78	80	79

※ 자료 : 덴마크 성평등부(Minister for Gender Equalit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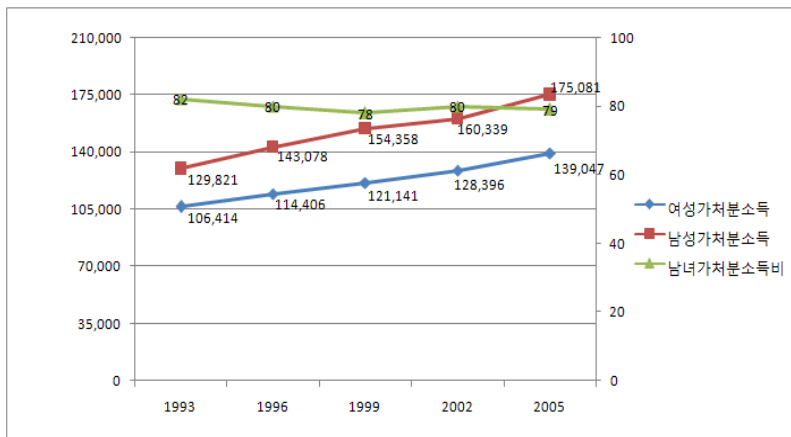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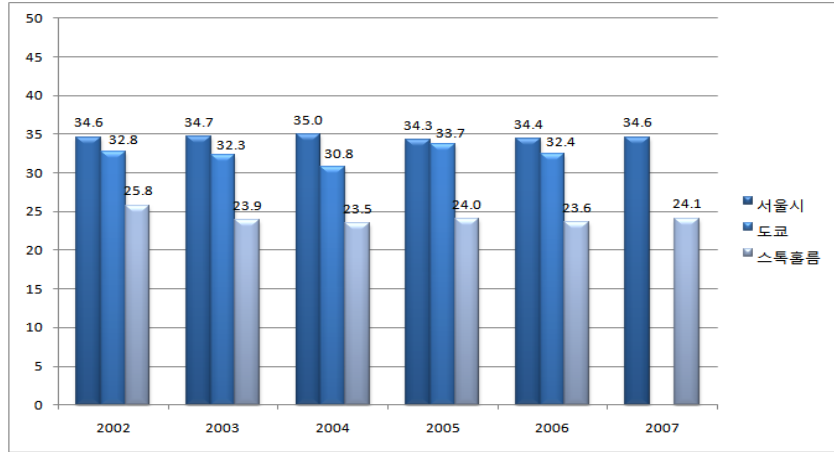


그림 III-7 덴마크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

서울시, 도쿄, 스톡홀름의 성별 임금격차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sup>6)</sup> 서울시는 35%에 가까운 수치로 3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OECD 보고서의 한국 38%(2006, 2007)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3개 도시 중 스톡홀름의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작는데 서울시 보다는 8.8~11.5%가량 낮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3개 도시 모두 OECD 평균인 18%(2006, 2007)보다는 큰 임금격차를 보인다. 또한 보고된 수치의 크고 작음을 떠나, 수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감소 추세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 내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도쿄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자료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스톡홀름의 데이터는 Stockholm Office of Research and Statistics를 참조하였다.



■ 그림 III-8 ■ 서울시, 도쿄, 스톡홀름의 임금격차

####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얼마나 진출해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여성들이 양적으로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노동시장 내에서의 세력화 또한 여성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성별 관리직 비율에서 ‘관리직’ 정의는 UNDP가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사용한 정의와 일치한다. 다만, UNDP는 2010년 Human Development Report부터 여성권한척도(GEM)가 아닌 성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를 도입, 측정하고 있으므로 ‘여성 행정, 고위관리 비율’과 ‘여성 전문가 기술공 비율’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2009년 보고서로 살펴본다. 서울시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08년도에 24.8%, 2009년도에는 25.2%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0개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시 데이터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 비율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 2개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모든 국가에서는 30% 혹은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도 35.4%로 보고되고 있다.

표 III-6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단위 : %)

국가	GEM 순위 (OECD 30개국)	여성 의회의원(A) 비율	여성 행정, 고위관리(B) 비율	여성 전문가, 기술공(C) 비율	여성 관리직 (A+B+C)비율
아이슬란드	8	33	30	56	39.7
노르웨이	2	36	31	51	39.3
호주	7	30	37	57	41.3
캐나다	12	25	37	56	39.3
아일랜드	20	15	31	53	33.0
스웨덴	1	47	32	51	43.3
스위스	13	27	30	46	34.3
일본	27	12	9	46	22.3
네덜란드	5	39	28	50	39.0
프랑스	15	20	38	48	35.3
핀란드	3	42	29	55	42.0
미국	16	17	43	56	38.7
스페인	11	34	32	49	38.3
덴마크	4	38	28	52	39.3
오스트리아	18	27	27	48	34.0
영국	14	20	34	47	33.7
벨기에	6	36	32	49	39.0
룩셈부르크	-	23	-	-	-
뉴질랜드	10	34	40	54	42.7
이탈리아	19	20	34	47	33.7
독일	9	31	38	50	39.7
그리스	21	15	28	49	30.7
한국	28	14	9	40	21.0
포르투갈	17	28	32	51	37.0
체코공화국	22	16	29	53	32.7
헝가리	26	11	35	60	35.3
폴란드	24	18	36	60	38.0
슬로바키아	23	19	31	58	36.0
멕시코	25	22	31	42	31.7
터키	29	9	8	33	16.7
29개국 평균	-	25.3	30.3	50.6	35.4

※ 주 : 1. 여성의원비율은 상하 양 원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 비율이며, 여성 행정·고위관리 비율은 ISCO-88(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을 기준으로 구한 추정치임

2. 평균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9개국의 평균임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여성관리직 비율이 42.7%로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7년 뉴질랜드의 여성 고위직 비율 현황은 Ⅲ 표 III-7 과 같다. 서울시 데이터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이나, 구직업분류를 이용한 Ⅲ 표 II-8 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항목인 서울시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여성이 2007년 16%, 2008년 15%로 뉴질랜드와 큰 차이를 보인다.

Ⅲ 표 III-7 뉴질랜드 여성 고위직 비율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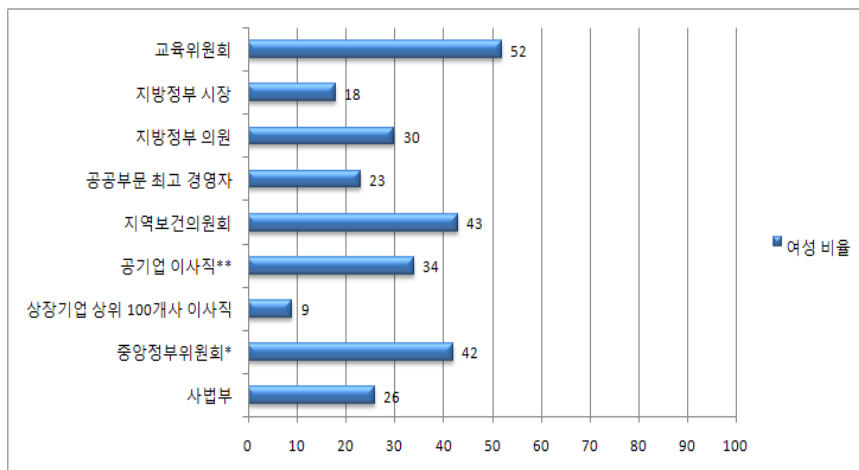
(단위 : 명, %)

	여성	전체	여성 비율
사법부	51	198	26
중앙정부위원회*	1128	2716	42
상장기업 상위 100개사 이사직	54	624	9
공기업 이사직**	77	226	34
지역보건위원회	95	219	43
공공부문 최고 경영자	8	35	23
지방정부	의원	280	30
	시장	13	18
교육위원회	9,634	18,573	52

※ 주 : \* 장관급 지명(2007.12)

\*\* 2008. 1. 1 현재

※ 자료 : 뉴질랜드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2008.



Ⅲ 그림 III-9 뉴질랜드 여성 고위직 비율 (2007년)

## 5. 성별 비정규직 비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 노동시장 내 위치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격차가 클수록 여성노동자나 여성집중직종에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정(+)의 성격인 '성별 정규직 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표 2-11**에서 볼 수 있듯 서울시의 성별 비정규직 비율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측정한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것이다. OECD 국가 통계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시간제 고용과 임시직으로 구하고 있어 산출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대략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8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단위 : %)

	남						여					
	1994	2005	2006	2007	2008	2009	199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 주	12.9	12.0	12.2	12.3	12.3	13.2	-	38.7	38.2	37.7	37.7	38.3
캐나다	10.8	10.8	10.9	11.0	11.3	11.9	28.8	26.9	26.2	26.1	26.4	27.0
프랑스	5.3	5.2	5.0	4.9	5.0	5.1	24.5	23.0	22.6	22.7	21.9	22.4
독 일	3.0	7.4	7.6	7.8	7.9	8.0	28.0	39.4	38.8	38.9	38.3	38.1
이태리	4.2	5.1	5.5	5.5	6.1	5.9	20.6	29.2	29.3	29.8	30.6	30.5
일 본	-	8.8	8.5	9.2	9.9	10.5	-	31.7	31.3	32.6	33.2	33.8
한 국	2.9	6.5	6.3	6.3	6.5	6.9	6.8	12.5	12.3	12.5	13.2	14.2
스웨덴	7.1	8.5	8.4	9.5	9.6	10.0	24.9	19.0	19.0	19.7	19.6	19.8
영 국	7.0	9.8	9.8	9.8	10.3	10.9	41.2	39.1	38.6	38.3	37.8	38.8
미 국	8.5	7.8	7.8	7.6	8.0	9.2	20.4	18.3	17.8	17.9	17.8	19.2
OECD 평균	5.1	7.3	7.4	7.5	7.8	8.4	19.7	25.3	25.1	25.3	25.3	26.1

※ 주 : 파트타임 고용자는 주당 30시간 이하의 임금 근로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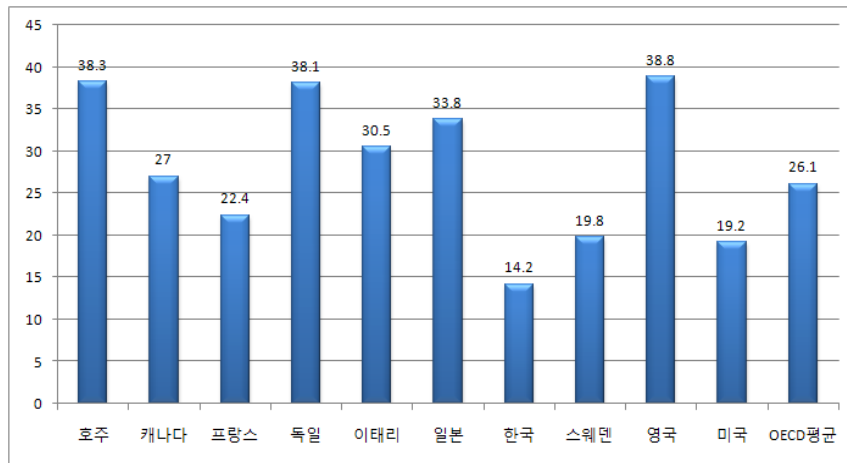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우선 서울시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도의 57.7%에서 2009년도의 56.8%로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여전히 여성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08년도의 40.0%, 2009년도의 35.7%가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2009도의 경우 21.1% 발생하였다.

OECD 국가의 경우 2009년도를 보면 남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매우 낮은데 비해, 여



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이 높아 성별 격차가 17.7%로 크게 나타난다.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국가라 하더라도 대부분 30~40% 사이를 기록하고 있어 50% 중반을 넘어서는 서울시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 그림 III-10 ■ OECD 국가별 여성의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2009년)

성별 임시직 비율의 경우 OECD 국가들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OECD 국가 평균은 2009년도에 여성이 12.4%, 남성이 10.8%로 약 1.6% 정도 여성이 더 높다.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인데, 여성이 21.3%이고 남성이 8.1%로 13.2% 정도 여성이 더 높다. 가장 작은 국가는 영국으로 성별 격차가 0.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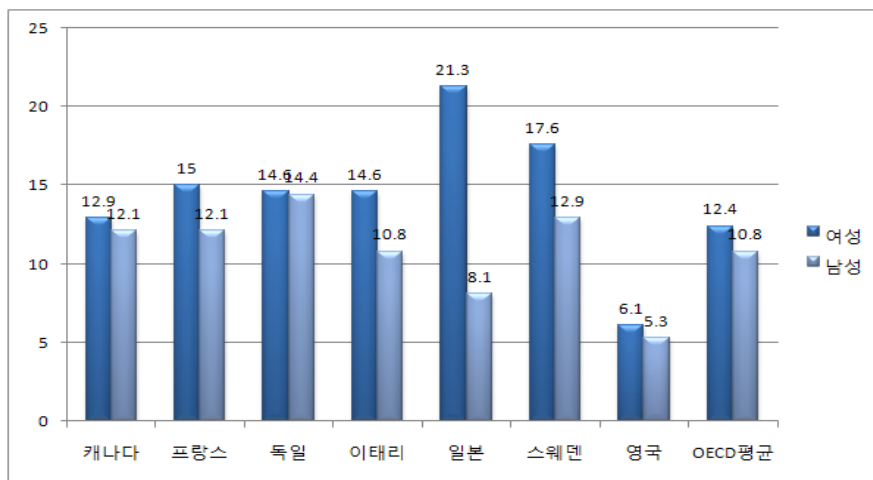
■ 표 III-9 ■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단위 : %)

국가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주	여	-	5.4	-	-	4.8	-	5.9	-	-	-
	남	-	4.3	-	-	3.9	-	4.5	-	-	-
캐나다	여	13.2	13.7	13.6	12.9	13.5	13.9	13.8	13.5	12.7	12.9
	남	11.8	12.0	12.3	12.0	12.0	12.5	12.3	12.3	11.9	12.1
프랑스	여	16.5	16.3	16.0	15.2	14.9	15.1	14.9	15.5	15.4	15.0
	남	14.6	13.6	12.5	12.1	12.3	13.3	13.3	13.3	13.0	12.1
독일	여	13.1	12.7	12.2	12.3	12.2	13.8	14.1	14.5	14.6	14.6
	남	12.5	12.2	11.8	12.1	12.7	14.4	14.7	14.7	14.7	14.4

국가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태리	여	12,2	11,5	12,0	12,2	14,5	14,7	15,8	15,9	15,6	14,6
	남	8,8	8,2	8,4	8,2	9,9	10,5	11,2	11,2	11,6	10,8
일본	여	20,9	21,1	22,1	22,3	22,2	22,3	22,0	21,7	21,0	21,3
	남	6,8	7,1	7,7	7,9	8,0	8,2	6,2	8,3	8,4	8,1
스웨덴	여	17,4	17,1	17,1	17,0	17,1	17,6	18,7	19,9	18,7	17,6
	남	13,0	12,4	12,3	12,3	13,1	13,9	14,8	15,0	13,4	12,9
영국	여	7,7	7,6	7,2	6,8	-	6,3	6,5	6,5	6,0	6,1
	남	5,9	5,9	5,7	5,4	5,5	5,3	5,2	5,3	4,9	5,3
미국	여	-	4,2	-	-	-	4,2	-	-	-	-
	남	-	3,9	-	-	-	4,2	-	-	-	-
OECD평균	여	11,9	11,6	11,7	11,9	12,5	12,5	12,7	12,7	12,5	12,4
	남	10,8	10,4	10,4	10,7	10,6	11,3	11,0	11,5	11,1	10,8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OECD Online Employment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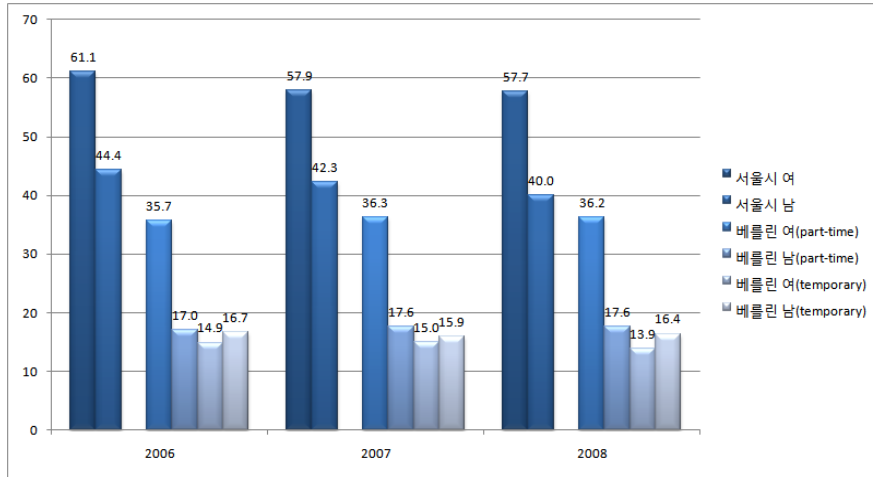


■ 그림 III-11 ■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2009년)

서울시와 베를린을 비교해보면, 먼저 베를린의 경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과 임시직 비율은 OECD 보고서의 독일의 수치보다 약 2~3%가량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sup>7)</sup> 남성의 시간제와 임시직 비율은 모두 베를린이 10% 이상 더 낮다. 또한 임시직 비율의 성별 격

7) 베를린에 대한 데이터는 *Statistisches Jahrbuch Berlin* (2007, 2009)와 *Gender Datenreport Berlin* (2009)를 참조하였다.

차는 작지만 시간제 고용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성별 격차가 크다.



■ 그림 III-12 ■ 서울시 비정규직, 베를린 시간제 고용(Part-time)과 임시직(Temporary) 비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의 임시직 비율이 베를린의 시간제 고용과 임시직을 합한 비율보다도 7.6~10.5% 더 높아 서울시 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베를린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확연히 높아 서울시가 베를린 보다 남녀 모두 고용 환경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베를린이 시간제 고용과 임시직 비율에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에 비해 서울시는 미약하게나마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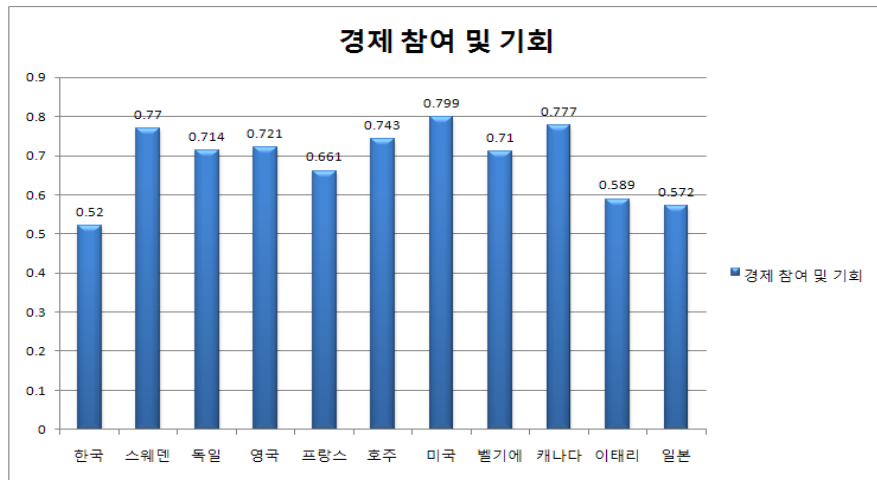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관련 지표들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임금격차,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 등에서 모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그 차이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산하는 세계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의 경제참여 부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표 III-10 】 경제영역 GGG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세부 지표	지 수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일본
경제 참여 및 기회	0.52	0.770	0.714	0.721	0.661	0.743	0.799	0.710	0.777	0.589	0.572
<b>순 위</b>	<b>111</b>	<b>11</b>	<b>37</b>	<b>34</b>	<b>60</b>	<b>24</b>	<b>6</b>	<b>39</b>	<b>8</b>	<b>97</b>	<b>101</b>
남녀 경제활동참여 비율	0.73	0.94	0.87	0.84	0.87	0.85	0.85	0.83	0.90	0.70	0.73
남녀 동일 직종 조건 임금 차이	0.52	0.73	0.61	0.67	0.44	0.67	0.66	0.66	0.76	0.51	0.61
남녀 근로 소득 차이	0.52	0.74	0.64	0.71	0.64	0.72	0.87	0.68	0.71	0.50	0.53
남녀 관리직 비율	0.11	0.48	0.61	0.53	0.63	0.58	0.74	0.49	0.56	0.50	0.10
남녀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	0.69	1.00	1.00	0.90	0.97	1.00	1.00	0.96	1.00	0.89	0.87

※ 주 : 완전평등지수를 '1'로 함. 이 영역은 경제활동참여율, 임금차이, 승진차이 등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제참여는 시장노동참여, 보수는 임금소득, 승진은 관리직(고위관리직, 기술직, 전문근로자) 중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의미함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 그림 III-13 】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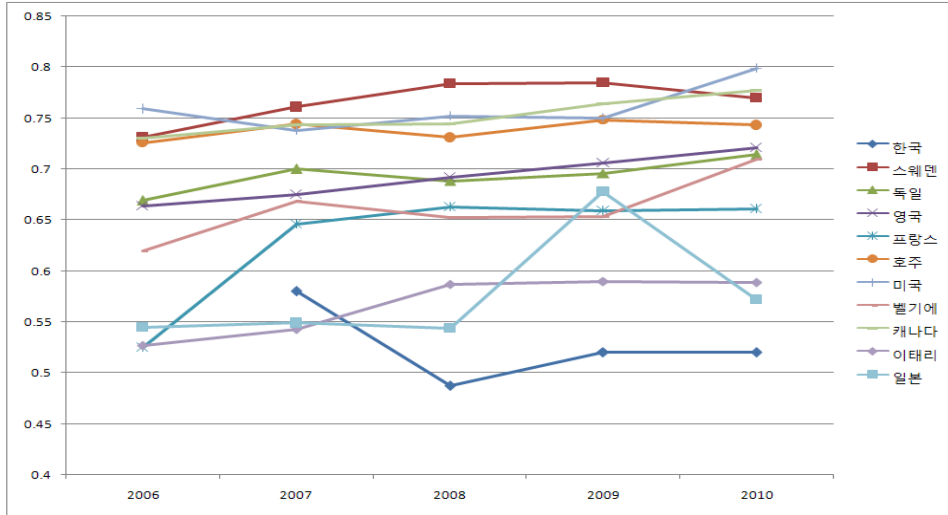


그림 III-14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2006-2010)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산하는 GGG 지수는 경제부문(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부문(educational attainment), 정치세력부문(political empowerment), 건강부문(health and survival)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부문은 경제활동참여율, 동일조건 남녀임금차이, 근로소득차이, 관리직 비율,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의 5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지표에서 성별 격차(gender gap)를 구하여 국가별로 성별격차 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134개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10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4개 국가 중 111위를 차지하여, 2009년의 113위에서 2계단 상승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73%, 임금격차는 52%, 근로소득차이는 52%, 관리직 비율은 11%,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은 69%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가 100위대에 가까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특히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에서 약 20% 정도의 낮은 비율을 보인다. 한국은 5개 지표 중에서 특히 경제활동참가율 및 관리직 비율,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추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 관련 지

표이나 최종선정된 서울시 성인지표 19개 중에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지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통해서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러나 강간범죄만을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죄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강간범죄 발생 건수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서울시의 강간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도에 4,053건이고 검거건수는 3,968건이며 검거인원은 4,350명이다.

표 Ⅲ-11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 건수,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6	3,577	3,467	3,704		
2007	3,548	3,441	3,789		
2008	3,569	3,384	3,709		
2009	4,053	3,968	계	남	여
			4,350	4,270	80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UNECE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국가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로도 구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영국의 경우에는 최신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남성 피해자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및 서울시에서도 보다 정확한 성폭력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검거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구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단순히 강간범죄에 대한 통계만 생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점을 재고해서 UNECE의 통계처럼 강간건수나 성추행 등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통계를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II-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캐나다</b>									
전체	24,001 (100.0)	24,044 (100.0)	24,499 (100.0)	23,514 (100.0)	23,036 (100.0)	23,521 (100.0)	22,245 (100.0)	21434 (100.0)	21483 (100.0)
여성	-(86.0)	-( )	-( )	-( )	-( )	-( )	-( )	-( )	-( )
남성	-(14.0)	-( )	-( )	-( )	-( )	-( )	-( )	-( )	-( )
<b>독일</b>									
전체	13,145 (100.0)	13,725 (100.0)	15,324 (100.0)	15,702 (100.0)	15,979 (100.0)	15,977 (100.0)	15,415 (100.0)	14765 (100.0)	13902 (100.0)
여성	12,403 (94.4)	12,961 (94.4)	14,507 (94.7)	14,753 (94.0)	14,966 (93.7)	15,105 (94.5)	14,477 (93.9)	13871 (93.9)	13106 (94.3)
남성	742 (5.6)	764 (5.6)	817 (5.3)	949 (6.0)	1,013 (6.3)	872 (5.5)	938 (6.1)	894 (6.1)	796 (5.7)
<b>영국</b>									
전체	32,414 (100.0)	35,121 (100.0)	-	-	-	57,542 (100.0)	57,542 (100.0)	-	-
여성	28,230 (87.1)	30,773 (87.6)	-	-	-	-	-	-	-
남성	4,184 (12.9)	4,348 (12.4)	-	-	-	-	-	-	-

※ 주 : 성폭력 범죄(Sexual assault)는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등이 포함됨

※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 제3절 여성의 대표성 제고

###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서울시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대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제5대의 경우 13.5%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도 OECD 국가들의 국가별 하원 또는 단원제 의원의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한국은 14.7%, 서울시는 13.5%로 가장 낮은 비율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보다 높다. 특히 벨기에, 독일, 스웨덴의 경우 2004년 이래로 계속 임

계치인 30%를 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46.4%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다.

【 표 III-13 】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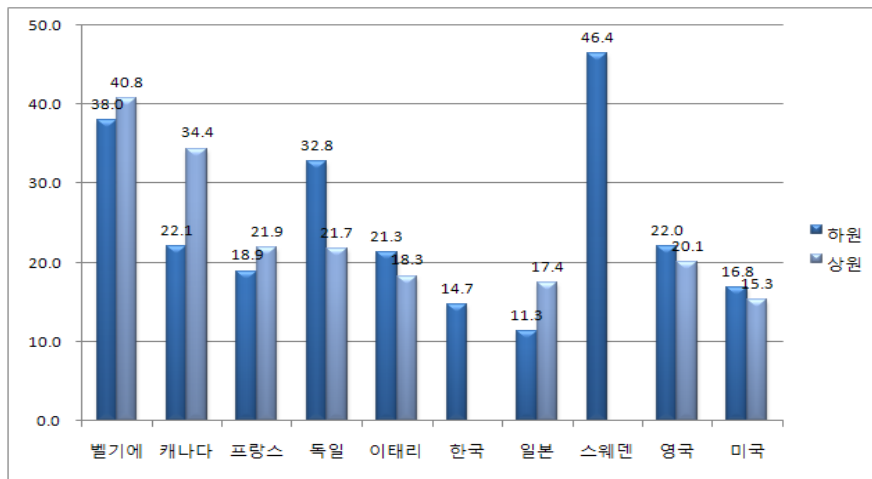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하원*	상원
벨기에	35.3	31.0	34.7	38.0	34.7	38.0	34.7	38.0	35.3	38	35.3	38.0	38.0	40.8
캐나다	20.6	32.4	21.1	37.1	20.8	35.0	20.8	35.0	21.3	34.4	22.1	34.4	22.1	34.4
프랑스	12.2	10.9	12.2	16.9	12.2	16.9	12.2	16.9	18.2	18.2	18.2	21.9	18.9	21.9
독 일	32.2	24.6	32.8	18.8	31.8	18.8	31.6	21.7	31.6	21.7	32.2	21.7	32.8	21.7
이태리	11.5	8.1	11.5	8.1	17.3	13.7	17.3	13.7	21.1	18.0	21.3	18.0	21.3	18.3
한 국	5.9	-	13.0	-	13.4	-	13.4	-	13.7	-	13.7	-	14.7	-
일 본	7.1	15.4	7.1	13.6	9.0	14.0	9.4	14.5	9.4	18.2	9.4	18.2	11.3	17.4
스웨덴	45.3	-	45.3	-	45.3	-	47.3	-	47.0	-	47.0	-	46.4	-
영 국	17.9	16.7	18.1	17.8	19.7	17.5	19.7	18.9	19.5	19.7	19.5	19.7	22.0	20.1
미 국	14.3	13.0	15.0	14.0	15.2	14.0	16.3	16.0	16.8	16.0	16.8	15.3	16.8	15.3

※ 주: \* 하원 또는 단원제 의원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2005, 2006,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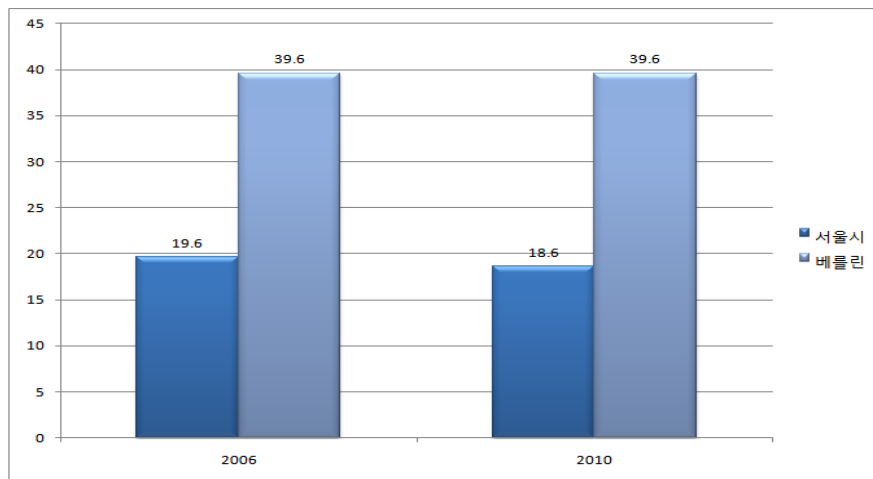
IPU Archive of Statistical data



【 그림 III-15 】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2010년)



베를린 의회의 경우 임계치인 30%를 넘는 여성의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Berlin, 2009). 다음 선거가 2011년에 실시될 예정이므로 2006년 9월 17일에 치러진 선거의 의석 결과를 보면 여성 의원 비율이 39.6%로 임계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거의 4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비율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 그림 III-16 ■ 서울시, 베를린 여성 의원 비율 (2010년)

서울시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몇 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기여한 바가 크다(조영미 외, 2008). 추후에는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7년도에 1.2%,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동일하게 1.3%로 매우 낮은 비율일 뿐만 아니라 증가 정도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국제 통계에서 고급 공무원의 정의는 정부 고위 행정가, 정부 간 기구 행정가, 대사, 총영사 및 기타로 정의되거나 혹은 장관직, 주정부 및 연방 정부 대표로 정의되고 있어 서울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OECD 국가 중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임계치인 30%를 꾸준히 넘고 있으며, 4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영

국의 경우 2000년도의 19.4%에서 2006년도에는 약 10% 가량 상승한 29.2%를 나타내고 있어 거의 임계치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증가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1.3%인 서울시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꾸준한 증가세도 보이고 있다.

표 III-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프랑스</b>									
전체	3,188 (100.0)	3,269 (100.0)	3,376 (100.0)	3,501 (100.0)	3,573 (100.0)	3,650 (100.0)	-	-	-
여	381 (12.0)	409 (12.5)	435 (12.9)	494 (14.1)	532 (14.9)	590 (16.2)	-	-	-
남	2,807 (88.0)	2,860 (87.5)	2,941 (87.1)	3,007 (85.9)	3,041 (85.1)	3,060 (83.8)	-	-	-
<b>스웨덴</b>									
전체	-	1,560 (100.0)	1,536 (100.0)	1,459 (100.0)	1,206 (100.0)	1,089 (100.0)	1,079 (100.0)	1001 (100)	-
여	-	588 (37.7)	571 (37.2)	560 (38.4)	456 (37.8)	435 (39.9)	425 (39.4)	378 (37.8)	-
남	-	972 (62.3)	965 (62.8)	899 (61.6)	750 (62.2)	654 (60.1)	654 (60.6)	623 (62.2)	-
<b>영국</b>									
전체	3,720 (100.0)	-	-	-	-	-	4,480 (100.0)	-	-
여	720 (19.4)	-	-	-	-	-	1,310 (29.2)	-	-
남	3,000 (80.6)	-	-	-	-	-	3,170 (70.8)	-	-
<b>독일</b>									
전체	70,297 (100.0)	69,007 (100.0)	65,306 (100.0)	-	-	-	-	-	-
여	9,216 (13.1)	10,478 (15.2)	10,274 (15.7)	-	-	-	-	-	-
남	61,081 (86.9)	58,529 (84.8)	55,032 (84.3)	-	-	-	-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노르웨이</b>									
전체		-	-	-	-	-	-	421 (100.0)	441 (100.0)
여		-	-	-	-	-	-	104 (24.7)	143 (32.4)
남		-	-	-	-	-	-	317 (75.3)	441 (100)
<b>스위스</b>									
전체	9,068 (100.0)	-	-	-	-	-	-	-	-
여	1,920 (21.2)	-	-	-	-	-	-	-	-
남	7,148 (78.8)	-	-	-	-	-	-	-	-
<b>스페인</b>									
전체	190 (100.0)	190 (100.0)	-	-	-	-	-	-	-
여	9 (4.7)	9 (4.7)	-	-	-	-	-	-	-
남	181 (95.3)	181 (95.3)	-	-	-	-	-	-	-

※ 주 : 고위시공무원은 ISCO 1120(고급정부관료 - 정부 행정가, 정부간 기구 행정가, 대사, 총영사, 기타를 포함함)에 따라 정의함.

※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표 III-15 덴마크 공공부문 고위관리직의 성별분포

(단위 : 명, %)

		2003		2005		200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국가	1단계 - 최고책임자	18	82	20	80	20	80
	2단계 - 임원진	21	79	21	79	23	77
	3단계 - 관리자	28	72	36	64	40	60
	4단계 - 기타	46	54	46	54	54	46
지자체	1단계 - 최고책임자	15	85	18	82	22	78
	2단계 - 임원진	41	59	46	54	43	57
	3단계 - 관리자	60	40	63	37	64	36
	4단계 - 기타	78	22	78	22	77	23

※ 자료 : 덴마크 성평등부(Minister for Gender Equality), 2009

덴마크의 공공부문에서의 고위관리직 성별분포 자료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최고책임자는 남성 비율이 높지만 임원진, 관리자와 기타는 여성의 비율이 모두 40%를 넘어 서울시를 압도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의 결과를 생산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정책적 조력과 개입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개선 방향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그림 III-17 ■ 덴마크 공공부문 고위관리직의 성별분포

세계경제포럼의 2010년도 GGG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영역 성별격차지수는 134개국 중 86위로 하위권이라 할 수 있으나 2009년도 보고서의 130개국 중 104위에서는 18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남녀 정부 수장의 수를 제외하고는 남녀 의회 의원 수와 남녀 장관직 수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일본은 101위로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녀 의회의원 수와 남녀 장관직 수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앞서 살펴본 모든 항목에서 나란히 하위권에 자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성평등 정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표 III-16 ■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세부 지표	지 수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일본
정치 영역 전체	0,097	0,471	0,325	0,293	0,169	0,192	0,186	0,324	0,196	0,152	0,072
<b>순위</b>	<b>86</b>	<b>4</b>	<b>15</b>	<b>22</b>	<b>47</b>	<b>39</b>	<b>40</b>	<b>16</b>	<b>36</b>	<b>54</b>	<b>101</b>
남녀 의회 의원 수	0,17	0,87	0,49	0,28	0,23	0,38	0,20	0,65	0,28	0,27	0,13
남녀 장관직 수	0,14	0,82	0,50	0,29	0,36	0,30	0,50	0,50	0,42	0,28	0,13
남녀 정부 수장의 수	0,02	0,00	0,11	0,30	0,02	0,00	0,00	0,00	0,01	0,00	0,00

※ 주 : 완전평등지수를 '1'로 함. 이 영역은 장관, 의회의원, 최근 50년간 행정부 수장(수상 혹은 대통령) 등에서 남성에 대비한 여성의 비율을 의미함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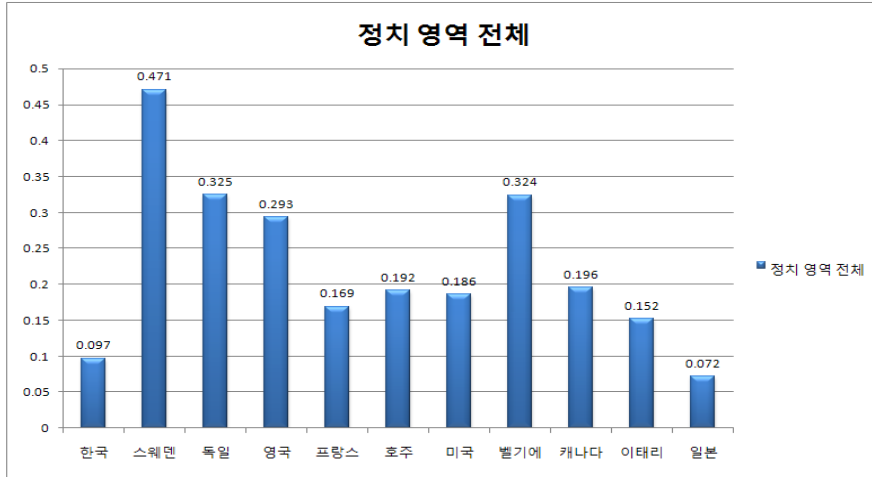


그림 III-18 GGG 국가별 정치영역 참여 지수

2006년부터의 정치 영역 성별 격차지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정치영역 참여 지수가 미약하게나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벨기에이다. 스웨덴은 지수가 점점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여전히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영역 참여 지수는 변화폭이 크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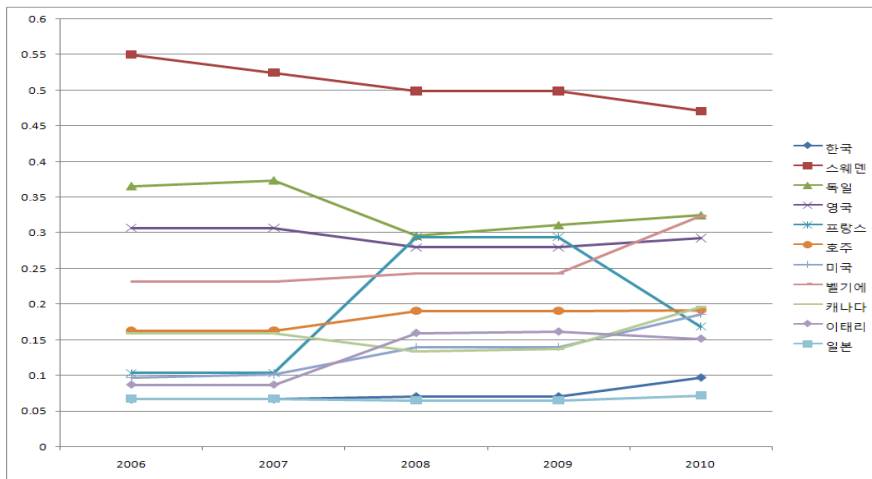


그림 III-19 GGG 국가별 정치영역 참여 지수 2006~2010

UNDP에서 발표하는 GII는 앞서 언급했듯 2010년부터 보고서에 도입되었다. 도입의 이유는 크게 3가지 결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전에 사용했던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나 GEM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성취평가를 모두 결합하므로 낮은 절대 소득을 가진 나라는 완전한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조한 순위로 기록되었다. 둘째, 결측데이터를 메우기 위해 광범위한 대처법이 요구되었다. 셋째,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GEM의 거의 모든 지표들이 강한 도시 엘리트 편향을 반영하며 몇몇 지표들은 선진국에 더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GII는 138개국을 측정하였는데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정치세력화, 노동시장 참여의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를 드러낸다. 지수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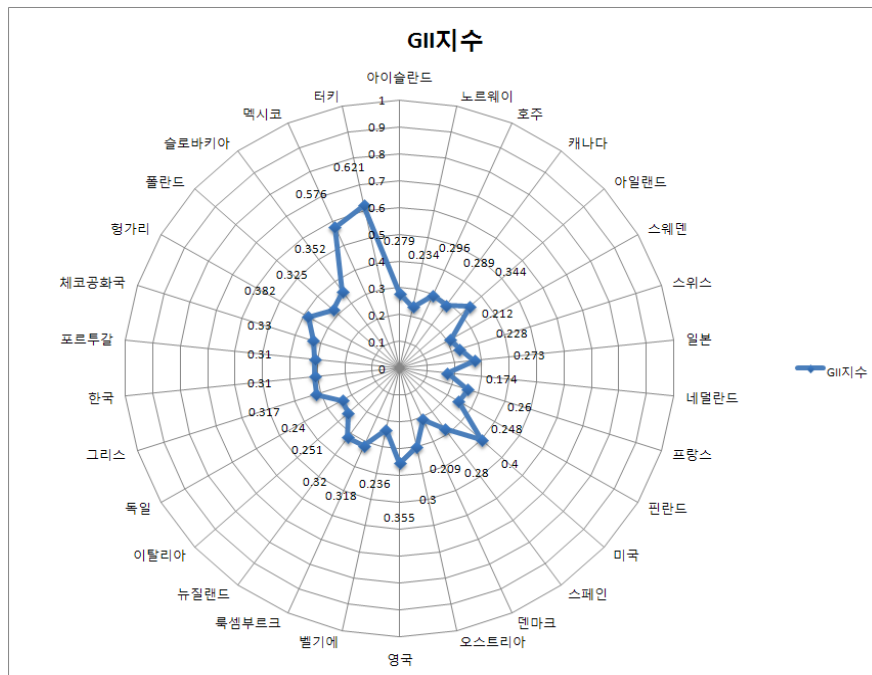
표 III-17 | GII(Gender Inequality Index)순위 비교(2008)

국가	GIIS순위 (OECD 30개국 기준)	GIIS순위 (UNDP 169개국 중)	GIIS지수*
아이슬란드	12	13	0,279
노르웨이	5	5	0,234
호주	15	18	0,296
캐나다	14	16	0,289
아일랜드	24	29	0,344
스웨덴	3	3	0,212
스위스	4	4	0,228
일본	11	12	0,273
네덜란드	1	1	0,174
프랑스	10	11	0,260
핀란드	8	8	0,248
미국	28	37	0,400
스페인	13	14	0,280
덴마크	2	2	0,209
오스트리아	16	19	0,300
영국	26	32	0,355
벨기에	6	6	0,236
룩셈부르크	20	24	0,318
뉴질랜드	21	25	0,320
이탈리아	9	9	0,251
독일	7	7	0,240
그리스	19	23	0,317
한국	17	20	0,310

국가	GII순위 (OECD 30개국 기준)	GII순위 (UNDP 169개국 중)	GII지수*
포르투갈	18	21	0,310
체코공화국	23	27	0,330
헝가리	27	34	0,382
폴란드	22	26	0,325
슬로바키아	25	31	0,352
멕시코	29	68	0,576
터키	30	77	0,621

※ 주 : \*안전불평등지수를 1로 함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 그림 III-20 ■ 국가별 GI이지수 (2010년)

GII가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0.174이다. 한국(0.310)은 UNDP 보고서의 169개국 중에서는 20위이고 OECD 30개국 기준에서는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의 데이터들에서 한국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던 일본(0.273)은 UNDP 보고서 169개국 중에서는 12위, OECD 30개국 중에서는 11위로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보인다. OECD 30개국 중에서 GII가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0.621을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0.576)와 미국(0.400)이 각각 29위 28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V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발



## IV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개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는 서울시 성인지표의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민선 4기 동안 이루어진 서울시의 대표적 여성정책인 여행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담아 민선 5기 동안 서울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도 및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지표는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와 사회조사 분야로 구성되어 행정통계 및 조사 통계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서울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 및 욕구를 직접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8년도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표 개발 3년차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여성 관련 이슈들이 변화하였고 새로운 관련 통계 자료도 생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 여성정책에서 여행프로젝트의 비중이 커지고 다문화 관련 이슈들도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기존의 서울시 성인지표의 구성을 대체 혹은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영역별로 대체 혹은 보완해야 할 지표를 제시하였다(조영미 외, 2009). 그리고 2009년도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행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여행프로젝트를 계기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서울 조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데 따라 서울시 성인지표를 대체할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안)을 구성, 전문가 조사를 통해 1차안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연구를 통해 구성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1차안을 토대로 지표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각 영역별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각 부처가 관리하여야 할 관리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김태홍 외(2010)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면서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표지표(representative indicator)는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그 변동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그리고 관리지표(administrative indicator)는 대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로서 각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말한다(김태홍 외, 2010).

대표지표 이외에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표지표와 각 행정부처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적 노력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국가성평등지수 혹은 성인지표 등과 같은 대표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성평등지수나 서울시 성인지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등과 같은 지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이다. 지표값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였을 때, 그것이 사실(fact)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지표가 실제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4장에서는 전년도에 구성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영역별로 서울시의 실무부처에서 관리하여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비교자 한다. 여성친화도시지표의 관리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의 사업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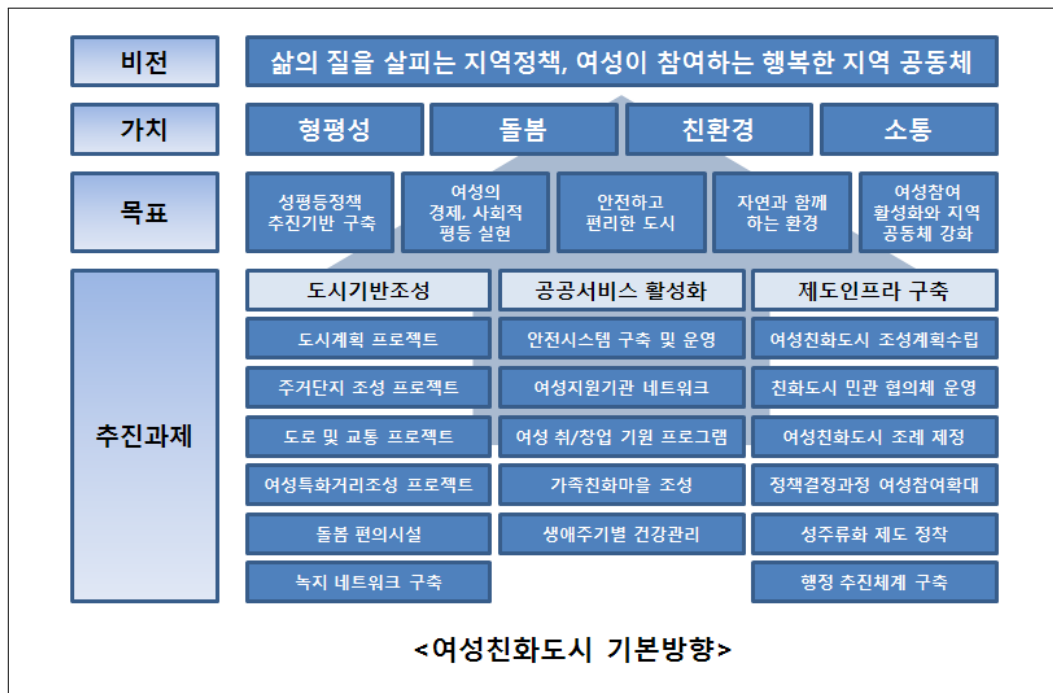
## 제1절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요

### 1. 지표의 명칭 및 개념

“여성친화”라는 용어에서의 ‘여성’은 흔히 ‘생물학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여성친화(women-friendly)” 개념은 정책의 주체나 연구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된다. ‘여성친화도시’는 한편에서는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도시 여성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조영미 외, 2009).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 “여성친화” 혹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례로 여성부에서 정의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이다(이미원, 2009). 이러한 정의는 여성친화개념에 성평등한 참여와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 공간 정책이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과 같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된다(조영미 외, 2009). 관련하여 윤희정 외(2010)는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을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그림 IV-1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또한 충남 연기군에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제시된 여성친화 개념은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구를 고르게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의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여성의 일상적 삶을 배려할 것, 여성과 아동의 안전감과 이동의 자유를 증진할 것, 소통과 만남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 법령과 지침, 여성친화적 도시를 위한 정책 및 운영체계를 갖출 것, 도시 조성 시 여성주민과 여성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할 것이 요구된다(김양희 외,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실제 도시 건설 및 조성을 위한 개념으로서 도시를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있어 도시 여성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도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 정책의 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들의 도시계획 참여가 확보되어야만 도시 정책이 여성친화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조영미 외, 2009).

해외의 경우 여성친화 개념은 성평등 정책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몬트리올시의 경우 각 도시의 여성친화정도 등급을 매기는 체크리스트를 매기고 이에 따라 각각의 도시들이 얼마나 여성친화적인지를 측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의 여성친화 도시 개념은 정치, 행정, 시정 전반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로 정의한다 (조영미 외, 2009). 몬트리올시의 여성친화도시 지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V-1 몬트리올시의 여성친화도시 지표

구분	세부지표
정치영역	여성의 기본권, 성평등법, 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할당제 각종 위원회 및 공기업의 여성비율, 여성의원 네트워크 여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공공정책, 폭력/안전정책 성인지성 반영정도, 정부간 협력 등
행정조직	여성독립부서, 성주류화 전담 행정부서, 성평등 액션플랜 공무원 성인지 훈련, 성별분리통계, 도시 정책 성별영향평가 성별직종분리 해소, 시정정보 제공 및 요구 반영 정도
사회참여 및 협력	여성위원회, 의회 여성기구 구/동/마을 단위에서의 여성시민 참여절차, 여성자문단 시민교육 및 캠페인, 여성시민 활동 도시생활정책 자문을 위한 상설위원회 혹은 협력기구 마을 단위의 대중 집회 및 정기적 모임

※ 자료 : 조영미 외(2009)

미국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소(IWPR)에서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 기초하여 “여성친화정책 : 여성자원 및 권리 체크리스트(Indicators of Women-Friendly Policy : Women's Resources and Rights Checklist)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지표에서는 여성친화정책 개념이 여성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영미 외, 2009). 이 지표의 세부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2 미국 IWPR 여성친화정책 지표

주요영역	세부지표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법, 스토킹법, 경찰인력 가정폭력 훈련의무규정 인구 1인당 가정폭력/성폭력 지원비용 경찰과 검찰의 성희롱 교육이수 법규정
아동지원정책	싱글맘 가구 중 아동수당/생활비 보조를 받는 비율 복합아동지원정책 수혜 비율
여성복지정책	한시적긴급가족지원(TANF) 대상 여성/아동 범위 확대, 지원기간 연장, 가정폭력피해자 포함, 지원기준 완화, 월평균 수당 지급액수

주요영역	세부지표
고용 및 실업수당	주별 최저임금기준, 일시장애보험가입 의무규정, 실업급여수여비율 유급가족휴가, 공공부문 성별임금형평성 보장여부
성적지향성 및 젠더 정체성	성적지향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법조항, 성적지향 증오범죄법 동성애 결혼금지법
재생산권	낙태허용, 비용지원, 의료보험에서 피임/불임치료 포함 게이/레즈비언 커플의 입양 허용, 학교 성교육 시행여부
제도적 지원	여성위원회 등

※ 자료 : 조영미 외(2009)

이처럼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가 성평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혹은 여성친화정책의 개념을 전반적인 도시 정책으로 보는 개념에서건 여성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개념에서건 공통적이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여성의 일상적 요구에 대한 반영을 주요하게 다루는 등 ‘일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여성친화 개념과 몬트리올 시의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여성의 참여, 즉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10월에 개최된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킹 포럼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서울시가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개념화하였다. 서울 선언문이 채택한 여성친화도시의 전략과 행동수칙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서울 선언문의 여성친화도시 개념 역시 물리적인 도시 공간 정책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추구하는 성평등한 도시 정책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선언문에서도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와 젠더 거버넌스의 실현을 주요한 과제로 두고 있어 이것을 여성친화도시 수립을 위한 주요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IV-3 ■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의 전략과 행동수칙

전략	행동수칙
도시정책과 행정전반에 성주류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분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을 체계적으로 활용</li> <li>○ 정치, 행정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li> <li>○ 풀뿌리조직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도시 정책과 도시 행정에 자문가로서 참여</li> <li>○ 일/가족의 균형 증진</li> <li>○ 남녀의 정형화된 역할 변화</li> </ul>

전략	행동수칙
경제위기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li> <li>○ 여성기업 지원</li> <li>○ 경제위기 시 빈곤퇴치정책 강화</li> <li>○ 무보수 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불평등한 이중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li> <li>○ 여성의 사회보장권과 연금수급권을 확대</li> </ul>
여성이 안전한 도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장소, 직장,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에 대응</li> <li>○ 대중에게 가정폭력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지역사회 조직과 비정부기구를 지원</li> <li>○ 여성에 의한 안전 감시를 시행하고, 도시 인프라와 도시 공간 설계를 개선하고,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li> </ul>
다양성과 여성의 창조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여성, 이주여성, 노인여성이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들 모두가 도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li> <li>○ 여성이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li> <li>○ 예술작품이나 미디어에서 여성상을 향상시키고 특히 여성의 지도적 역할을 표현하도록 지지, 장려</li> <li>○ 여성 예술가들에 의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명한 여성을 거리 이름, 조각상 등의 형태로 공공장소에서 드러냄</li> </ul>

※ 자료 :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 홈페이지(<http://www.womenfriendlyci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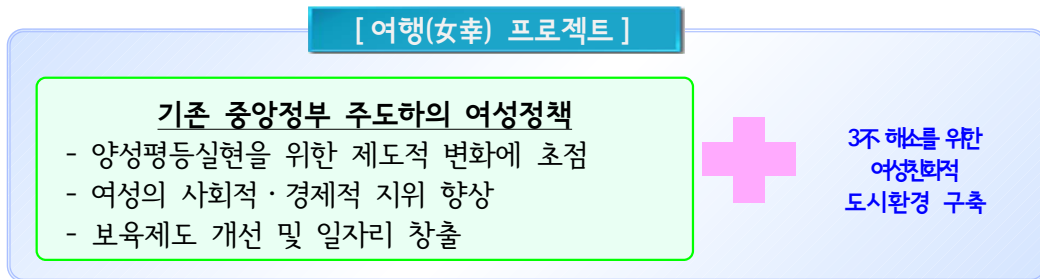
한편 조영미 외(2009)는 민선 4기 동안 진행된 여행프로젝트의 정착을 위한 이론화 방안을 연구하면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를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친화적인 도시 정책의 목표는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 공간 외의 고용, 돌봄, 일/가정 양립, 문화, 건강, 폭력 등의 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하여 도시 여성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향유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 때의 “여성”이란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집단으로 범주화된다(조영미 외, 2009).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의 영역 및 추진방향은 위의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조영미 외(2009)의 개념화를 따르고자 한다. 즉,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때 필요한 정책영역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기존의 여성정책이 담보하였던 영역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성인지표에 포함된 영역인 경제, 돌봄, 사회통합, 문화, 건강, 폭력대응, 대표성 등에 더하여 교통안전, 주거안정, 환경,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표가 도시 전반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수립에 있어 여성시민 및 여성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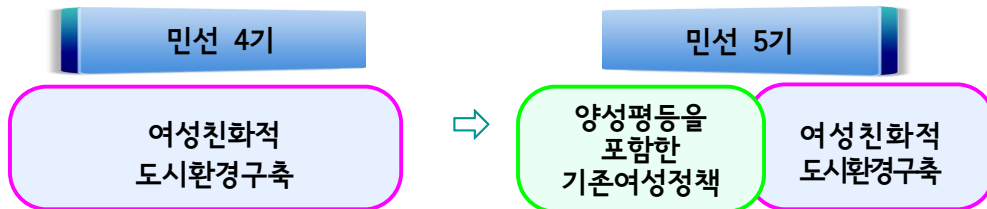


이고자 한다. 또한 영역의 이러한 확대는 여성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화함으로써 도시 정책이 여성의 일상적 경험에 주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는 서울시의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 비전 체계도와도 일치한다. 서울시는 최근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행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여성정책이 포괄하였던 영역과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 생활 전반에서의 성평등성 제고 및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 그림 IV-2 ■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 정체성(안)



■ 그림 IV-3 ■ 민선4기와 민선5기 여행프로젝트 정체성 차이

또한 민선 4기와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의 가장 큰 변화는 영역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선 4기 여행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 발전계획에는 기존의 5대 영역에 ‘건강한 서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넉넉한 서울’ 영역에 양성평등 구현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성평등 도시 서울 건설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의 영역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건강한 서울
보육서비스 강화 가족돌봄 지원 소외여성 지원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 창업·기업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여성친화 문화 프로그램 여성의 역량 강화 양성평등 구현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여성친화시설 확충 여성민원 해소 및 정보제공 시설점검 및 평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 그림 IV-4 ■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 영역별 중점과제(안)

본 연구에서 여성친화도시지표의 대표지표 구성 및 관리지표 구성에 있어 이러한 민선 5기의 여행프로젝트 발전방향이 반영되었다. 건강한 서울 영역이 여행프로젝트 영역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도 건강을 영역화하였으며, 성평등 구현 및 도시환경의 여성친화적 구축이라는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의 2개의 큰 방향을 모두 여성친화도시지표에 담고자 하였다.

## 2. 지표의 구성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크게 두 분야로 구성된다. 하나는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이고 하나는 사회조사이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는 각종 조사통계 및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세부지표로 구성, 서울시 성인지지표(GSI)와 마찬가지로 매년 측정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영역별 관리지표가 포함된다. 영역별 관리지표는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서 매년 측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가 해마다 발전적인 측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조사 분야는 여성의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여성 집단별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하는 가변지표로 활용한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의 분야별 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구성	측정방법
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로 구성</li> <li>○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영역 일부 유지</li> <li>○ 도시 공간의 여성친화적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li> <li>○ 도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li> <li>○ 영역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 도시 공간 및 환경,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측정</li> <li>○ 통계청 통계자료, 중앙부처 및 주요기관 통계자료, 서울시 행정통계, 서울서베이 활용</li> </ul>
② 사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집단별 주요 조사 항목으로 구성</li> <li>○ 여성 집단별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파악,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구성</li> <li>○ 가변지표로 활용</li> <li>○ 집단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혼여성, 기혼여성, 여성노인, 여성한부모, 기타 (장애여성,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 여성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li> <li>○ 주요조사항목 외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추가</li> </ul>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서울시 여성들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성은 단일한(monolithic) 집단이 아니며, 여성들 간의 차이는 점점 더 세밀하고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성정책에서는 여성들의 다양한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평가하려는 노력이 부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민선 4기 대표적 여성정책인 여행프로젝트의 가장 큰 한계는 중산층 전업주부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로는 이러한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통계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는 한 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의 각기 다른 경험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집단별 조사를 추가하였다.

둘째, 가변지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나 여성친화도시지표는 현실을 측정,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표이다. 그런데 고정지표만으로는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표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

고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는 사회조사 분야를 가변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2절 영역별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 1. 일

‘일’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일-가족 양립을 통해 여성이 이중부담 없이 일과 돌봄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일 영역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역목표 : 일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통한 여성 경제력 향상
-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의 지속성 증대
- 일-가족 양립을 통한 여성의 이중부담 경감

이러한 영역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요구된다. 우선 여성 경제활동활성화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리고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또한 자신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방법이므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고용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승진에서의 성별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는 성별 평균임금비로, 그리고 승진에서의 성별격차는 성별 관리직 비율로 파악할 수 있다. 고용평등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지표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비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지표의 경우 성별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의미가 적고, 무엇보다도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표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성희롱 없는 서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리지표에 포함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 여성고용안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성별 정규직 비율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성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일과 돌봄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돌봄 노동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 참여에의 성별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크게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과 부부 가사노동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남성의 휴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가사노동 시간 역시 현재로서는 가사 및 돌봄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일' 영역의 영역 목표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목표 별 대표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세부지표의 산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표지표 :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li> <li>○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li> <li>○ 일-가족 양립 -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부부 가사노동 시간</li> </ul>

표 IV-5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일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text{여성 경제활동인구} / \text{15세 이상 여성인구}) \times 100$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text{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text{전체 사업체 수}) \times 100$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강화	성별 평균임금비	$(\text{여성 월평균임금} / \text{남성 월평균 임금}) \times 100$
	성별 관리직 비율	$(\text{여성 관리직 수} / \text{전 직종 여성 수}) \times 100$
	성별 정규직 비율	$(\text{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text{여성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일-가족 양립 지원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text{여성 육아휴직자 수} / \text{전체 육아휴직자 수}) \times 100$
	부부 가사노동 시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이러한 대표지표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며, 직업교육 수료생들을 취업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사업체 대표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창업보육, 창업자금지원, 창업 후 사후관리, 창업점포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은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것과 연동된다.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하여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앞서 서울시 성인지표의 측정을 통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하여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함으로써 민간에의 좋은 선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내에 여성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서울시 내에서도 일-가족 양립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제나 재택 근로제 등을 고려하기 쉬운데, 이러한 장치들을 여성이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성의 비정규직화 혹은 여성 고용의 불안정화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일-가족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가족 양립 문화와 필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IV-6 일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li> <li>○ 행복한 학교 운영</li> <li>○ 시내버스 여성운전자 채용 확대</li> <li>○ 서울시 5대 권역 서울여성일자리지원벨트 구축</li> <li>○ 여성도전직종 일자리 개발 및 지원</li> </ul>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인 기업운영 지원</li> <li>○ 서울여성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li> <li>○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 여행화가</li> <li>○ 여성친화적인 조세시책</li> <li>○ 여성 창업자금 마이크로크레딧 우대</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직업훈련생 보육서비스 제공</li> <li>○ 실버케어 여성직업교육훈련 확대</li> <li>○ 여성노인 맞춤형 취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li> <li>○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li> <li>○ 여성창업 역량강화 교육</li> <li>○ 패션분야 여성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지원</li> </ul>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고용평등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li> <li>○ 성희롱 없는 서울사업 추진</li> </ul>	
	고용안정화	-	
일-가족 양립	남성 돌봄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육아휴직 활성화</li> <li>○ 여성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도우미 지원</li> <li>○ U-Work 활성화</li> <li>○ 유연근무제 확산</li> </ul>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목록화하면 위와 같다. 취·창업 지원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업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일-가족 양립 관련한 사업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평등 제고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이 있다. 특히 고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지표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신규 여성 일자리 수’는 서울시가 “엄마는 신났다”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신규로 창출된 여성 일자리의 수를 말한다. ‘신규 여성 취업자 수’ 또한 서울시가 “행복한 학교 강사 양성” 등의 여성인력 양성 사업과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의 노력을 통해서 신규로 취업하게 된 여성의 수를 말한다. ‘여성 취·창업 훈련 수료생의 일자리 연계 비율’은 서울시 내 19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취·창업 훈련을 마친 여성들 중 실제로 취업한 여성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지표들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통해 일 영역의 대표지표에서의 성별 격차 또한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지표 : 일

- 신규 여성 일자리 수
- 신규 여성 취업자 수
- 여성 취·창업 훈련 수료생의 일자리 연계 비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관리직 증가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
-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서울시 여성가족친화 인증 기업 증가율

## 2. 돌봄

‘돌봄’과 관련해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통해 복지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현재 여성에게 전담되고 있는 돌봄의 무게를 경감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돌봄 영역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역목표 : 돌봄

-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획득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여성 복지 증대

이러한 영역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요구된다. 우선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과 아이돌보미 지원 이용 아동비율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지표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현황과 재가 보육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증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공립시설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한다.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부분은 노인 돌봄과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노인 돌봄은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을 성별로 살펴봄으로써 여성 노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이 정책적 대상으로서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여성 노인의 빈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성비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노인이 얼마나 정책의 테두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홈 헬퍼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이용을 파악을 통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돌봄’ 영역의 영역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 목표 별 대표지표와 세부지표 별 산식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 돌봄

-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비율
-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확대 -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여성장애인도우미(홈헬퍼) 지원사업 이용율

표 IV-7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돌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국공립 보육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 100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비율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수 / 재가 아동 수) × 100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확대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여성 이용자 수 / 전체 여성 노인 수) × 100
	여성장애인도우미(홈헬퍼) 지원사업 이용율	(홈헬퍼 이용자 수 / 사업 대상 여성장애인 수) × 100

이러한 대표지표에서의 측정 결과를 높이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보육 시설을 증가하고 시설을 통한 보육만이 아닌 공보육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이를 매우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공보육 시설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증 서울형 어린이집을 늘리고, 서울형 어린이집뿐만이 아닌 여타 공보육시설을 증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을 늘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 보육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이나 공보육 시설 설치 시 이러한 맞춤형 보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아동의 안전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만큼이나 취학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취학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증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인들이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여성 비율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 노인이 얼마나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여성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사업의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목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시설 확충, 재가 보육 지원, 방과후 돌봄 지

원까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돌봄 지원이나 기타 소수자 여성 지원에 대한 사업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노인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노인 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IV-8 돌봄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보육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li> <li>○ 공공보육시설 확충</li> <li>○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li> <li>○ 서울키즈센터 건립</li> </ul>	
	재가 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엄마 육아서비스</li> <li>○ 공동육아방 운영</li> <li>○ 아이돌보미 지원</li> </ul>	
	방과후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li> <li>○ 초등돌봄교실 운영</li> </ul>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확대	노인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li> </ul>	
	장애인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li> <li>○ 여성장애인 지원 홈헬퍼</li> <li>○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가정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li> <li>○ 아주여성 한울타리 플랜</li> <li>○ 결혼이주 임산모를 위한 아리수 지원</li> <li>○ 다문화 학당 운영</li> <li>○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li> <li>○ 위기청소년 늘푸른 자립학교</li> <li>○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카페</li> </ul>	

대표지표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 안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다.

관리지표 :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서울형 어린이집 증가율</li> <li>○ 공공보육시설 증가율</li> <li>○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증가율</li> <li>○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포함) 수</li> <li>○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여성 비율</li> <li>○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수혜자 중 여성 비율</li> </ul>

### 3.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영역 목표가 필요하다. 문화를 문화 창조와 문화 향유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는 여성의 문화창조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 창조 분야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을 통해 이 부분의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문화 및 여가 영역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목표 : 문화 및 여가

- 여성의 문화창조 활동 지원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 여성의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이러한 영역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요구된다. 우선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문화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 지표가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이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산식은 지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측정할 때 가능하다면 고용형태 및 성별 종사자 구성비를 추가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화창조활동 지원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표는 서울시의 문화창조활동 지원 사업 중 실제로 지원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성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행정통계가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문화 창조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성별 차이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여가활동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성별 여가활동 비용은 서울 서베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 격년제 조사 항목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 및 여가의 향유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참가율과 함께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지표에 포함하였다.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역시 서울 서베이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 및 여가’ 영역의 영역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목표 별 대표지표와 세부지표 별 산식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 문화 및 여가

- 문화창조 활동 지원 - 성별 문화예술산업 종사 인력 비율, 문화창조활동 지원금 수혜자의 여성비율
- 문화 및 여가향유 지원 -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표 IV-9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문화 및 여가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문화창조 활동 지원	성별 문화예술산업 종사인력비율	(여성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수 / 전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수) × 100
	문화창조활동 지원금 수혜자의 여성비율	서울시 내부자료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이러한 대표지표에서의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문화창조 활동 지원 관련 정책이다. 여성 예술가를 양성하고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는 등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예술가의 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문화예술 종사인력의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 예술가들의 양성과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삶과 경험이 예술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여성역사와 여성문화유산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여성사를 발굴하여 발간한 바도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전무하다.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사와 여성문화유산, 여성문화유적 등을 발굴하고 이를 현재의 여행프로젝트 사업 현장과 연계하여 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문화소외계층에서도 문화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하는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 문화 및 여가 영역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행 사업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의 문화창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앞으로는 여성 예술가를 지원하고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공유·활용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0 문화 및 여가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여성의 문화창조 활동 지원	-	-	
여성의 문화 및 여가향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li> <li>○ 여성·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li> </ul>	
	향유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행복 객석 나눔</li> <li>○ 여행 천원의 행복</li> <li>○ 창동극장 브런치 콘서트</li> <li>○ 여성문화투어</li> <li>○ 실버들의 아름다운 변신 - 행복한 걸 60+</li> <li>○ 가락시장 경매교실 운영</li> <li>○ 여행 사랑방 북카페</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로 통합보육센터 운영</li> <li>○ 공공도서관 여성편의시설 확충</li> </ul>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측정·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여성 작가 전시 지원 비율’이란 서울 시립미술관 등과 같이 서울시 소관의 전시공간 등에서 미술전 등을 개최할 때 여성 작가의 전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채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관리지표 : 문화 및 여가

- 여성사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정도
-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의 여성 참여 비율
-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여성 예술가 입주 정도
- 여성 작가 전시 지원 비율
- 서울시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여성 참여 비율
-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 비율

#### 4. 건강 및 안전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 건강 증진을 통해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안전 증진 및 여성 폭력 예방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 및 안전 영역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목표 : 건강 및 안전

- 여성 건강 증진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 여성 안전 증진 및 폭력 예방을 통한 여성 인권 확보

이러한 영역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요구된다. 우선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주요 수단인 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앞서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검진 수검률에 있어서는 성별 격차가 근소하게나마 존재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남녀 모두 수검률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에 있어서는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검률을 지속 측정함으로써 검진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 예방 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측정한다면, 다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질병에 걸리고 있는지, 즉 실제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경우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라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는 지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의미가 ‘주관적 평가’라는 용어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주관적’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측정 결과를 신뢰하고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들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표로 성별 유병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 안전 증진과 여성 폭력 예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와 여성 폭력 범죄 발생 건수를 측정하기로 한다.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부터 측정되어 온 지표로 서울 서베이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는 성별에 따른 안전 체감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물리적·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안전 체감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야간보행에서의 안전은 국내외의 여성 운동계에서도 오랫동안 ‘달빛시위’ 등을 통해 여성 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상징적 이슈였다. 따라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도 성별 야간 보행 안전도를 지속 측정,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여성 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실제로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대 여성 폭력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는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 여기에서 여성폭력 범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다. 서울시 성인지표에서 이를 다루지 않았던 것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 혹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성 폭력 범죄의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였던 탓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낙인이 될 소지가 많아 피해자들 스스로가 사건 발생을 숨김으로써 비가시화되었던 범죄 발생 정도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신고율을 높임으로써 가시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 폭력 범죄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서울시 성인지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뚜렷하고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바, 신고에 기반하는 범죄 건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건강 및 안전' 영역의 영역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목표 별 대표지표와 세부지표 별 산식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 건강 및 안전	
○ 여성 건강 증진	-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유병률
○ 여성안전 증진 및 폭력 예방	-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여성 폭력범죄 발생건수

【 표 IV-11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건강 및 안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건강 서비스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text{수검한 여성의 수} / \text{검진대상 여성의 수}) \times 100$
	성별 유병률	$(\text{기간내(2주간) 유병자} / \text{조사 대상 인구}) \times 100$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여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가정폭력 발생 건수 + 성폭력 발생 건수

이러한 대표지표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실천을 돕는 활동이 지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주요한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접근성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질병 치료 기능만 수행하는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상적 건강 관리라는 부분에 보건소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검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은 서울 시민들이 보건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여성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안전 증진 및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CCTV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sup>8)</sup>함으로써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CPTED 설계<sup>9)</sup>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 시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여행콜택시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여성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 증진 및 범죄 예방 노력 외에도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수가 충분한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필요시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 등을 측정,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충분성이나 효과성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건강 서비스 제공 및 무료진료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민선 4기 여행프로젝트에서는 안전한 서울의 한 부분으로만 포함되어 있었던 데 반해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에서는

8)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방범용 CCTV설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 자치구에 5,87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강남구는 인구 1,000명 당 1.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CCTV가 총 66대로 가장 적게 설치된 관악구는 인구 1,000명당 0.1대가 설치되었다.

9) CPTED 설계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로서 '환경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서울시에서는 민선 4기 여행프로젝트 사업 중 '조경설계의 CPTED 기법 도입'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설계에 이 전략을 도입하는 시도를 해 왔으며, 이는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립' 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의 아파트 건설에도 이 전략이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서울’ 영역이 새로이 신설되는 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추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건강 유지를 돕는 사업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 안전 증진과 관련해서는 안전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안전 증진과 관련하여 여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표 IV-12 ■ 건강 및 안전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여성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경기 여성 건강교실</li> <li>○ 여성결핵환자 건강교실</li> <li>○ 여성건강증진센터 운영</li> <li>○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 제공</li> </ul>	
	진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암 검진 및 자궁암 무료접종</li> <li>○ 의료소외여성 무료진료 지원</li> <li>○ 여성 우울증 상담 및 진료</li> <li>○ 요실금 치료 지원</li> </ul>	
여성 안전 증진 및 폭력 예방	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콜택시</li> <li>○ 검침 안심 서비스</li> <li>○ 안전지도 제작 및 행동 매뉴얼 제작 보급</li> <li>○ 임신부 전담 119 구급대 운영</li> <li>○ 여성친화적 소방안전교육</li> </ul>	
	폭력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운영</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li> <li>○ 폭력피해여성 무료진료 지원</li> <li>○ 여성통합상담센터 운영</li> </ul>	

대표지표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건소 내 건강증진사업이란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을 의미하며, 여성건강증진 사업이란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의미한다.

관리지표 : 건강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내 건강증진사업 여성 이용 비율</li> <li>○ 여성 건강 증진 사업 이용 여성 증가율</li> <li>○ 인구 1,000명당 CCTV 설치 대수</li> <li>○ CPTED 설계 도입 증가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콜택시 증가율</li> <li>○ 여성폭력 관련 시설 수</li> <li>○ 여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li> </ul>

## 5. 도시공간 및 환경

‘도시공간 및 환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방향이 요구된다. 하나는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여성 편의성 증진이며, 또 하나는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이다.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은 서울시가 여행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도시 물리적 공간의 여성편의성 증진이라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도시 환경 개선은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와 같이 도시 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다.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역목표 : 도시공간 및 환경

-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여성 편의성 증진
-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

이러한 영역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요구된다. 우선 여성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대표적인 도시공간은 교통시설, 보행시설, 주거환경을 들 수 있다. 교통시설의 경우 도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이며, 특히 대중교통은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의 여성친화적 조성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대중교통 내에서 여성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성별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행환경 역시 교통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도시 생활의 요소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시설과 함께 만족도에서의 성별 차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통시설이나 보행환경은 그동안 비장애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도시 설계가 이루어져 온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이 교통약자 혹은 보행약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특히 유아를 동반한 여성이나 여성노인, 장애인 등에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통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와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도시 공간이 재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 역시 도시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교통시설 및 보행환경, 주거환경의 성별 만족도는 서울 서베이를 통해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도와 도시소음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009년도에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1차안을 개발할 당시 대기 오염도나 도시소음도는 젠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에서 제외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대기오염이나 도시소음의 문제가 여성노인이나 수유 중인 여성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 되어 포함하기로 하였다.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가의 여부를 떠나더라도 ‘여성친화적 도시’라는 것이 기존의 개발 위주의 도시 건설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주요하게 다루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오염이나 도시소음의 문제가 반드시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표화하여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의 영역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목표 별 대표지표와 세부지표 별 산식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 도시공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 성별 교통만족도, 성별 보행환경 만족도,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li> <li>○ 도시환경 개선 - 대기오염도, 도시소음도</li> </ul>

표 IV-13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도시공간 및 환경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성별 교통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보행환경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도시환경 개선	대기오염도	서울시 내부자료
	도시 소음도	서울시 내부자료

이러한 대표지표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도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교통시설의 여성친화성 증진을 위해서는 가장 교통약자 친화적으로 설계,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상버스의 증가는 유아동반 여성, 보행이 불편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행버스<sup>10)</sup>도 증가시킬 것이 요구된다.

10) ‘여행버스’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배려좌석 지정, 손잡이 높이 개선, 심야시간대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정류소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여행길 조성이다. 여행길은 보도 단차를 낮추는 등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행길 증가를 통해 보다 편리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여행화장실이나 여행주차장, 여행공원 등의 여행 인증 시설 증가는 도시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행아파트 인증 역시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교통시설 개선이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대기오염 및 도시소음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생활권 공원면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생활권 공원면적의 증가는 주거환경 만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무엇보다도 도심의녹지비율을 늘림으로서 대기오염 및 도시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등을 증설함으로써 차량이용을 줄이고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선 4기 여행프로젝트가 도시공간의 여성친화성 및 편의성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다수 눈에 띈다.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여행 사업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것과 젠더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표지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에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표 IV-14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li> <li>○ 여행과 함께하는 문정 컬처밸리</li> <li>○ 여성친화적 마곡지구 개발</li> <li>○ 여행 동대문역사문화공원</li> </ul>	
	시설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화장실</li> <li>○ 여행 주차장</li> <li>○ 여행 길</li> <li>○ 여행 공원</li> <li>○ 여행 아파트</li> <li>○ 여행 버스</li> <li>○ 교통시설물의 여성 등 교통약자 배려</li> <li>○ 지하철 유모차용 개찰구 운영</li> </ul>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여성보행환경 개선</li> <li>○ 음식물 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li> </ul>	
도시환경 개선	-	-	

관리지표 : 도시공간 및 환경

- 저상버스 증가율
- 여행버스 증가율
- 여행길 증가율
- 여행화장실 증가율
- 여행아파트 증가율
- 여행 일반 건축물 증가율
-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증가율
- 자건거 전용 도로 증가율
- 생활 폐기물 재활용율

## 6.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시정의 성주류화를 통한 성평등 서울 실현이다. 둘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및 이를 통한 성평등 서울 실현이다. 셋째, 젠더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시정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및 이를 통한 성평등 서울 실현이다.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영역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목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를 통한 성평등 서울 실현
-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한 성별 격차 해소 및 성평등 서울 실현
- 젠더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성평등 서울 실현

이러한 영역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요구된다. 우선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도입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대표적인 도구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해 왔으나,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이었던 바, 원칙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나, 환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상 정책 증가율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성인지 예

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는 정책의 비율을 점차 높여갈 수 있도록 측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다.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 충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성인지 예산의 도입이나 성별영향평가의 안정적 증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별 의회의원 비율과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계속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지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통해 그동안 측정해 온 지표들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경우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에 이 두 지표 외에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을 함께 측정하였으나, 이 지표는 지표값이 여성이 남성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표지표에서는 제외하고 대신 관리지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의회의원 비율과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표인데다가, 여성의 정치적·행정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하는 중요성을 갖는 지표이므로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 거버넌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도의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35.0%(당연직 7.0%, 위촉직 40.1)이며, 자치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6.0%(당연직 7.0, 위촉직 36.0%)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유나 외, 2009). 당연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여성 비율은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임계치를 40%로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아직 서울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젠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성별 자원봉사 참여비율’이다. 전년도 연구에서는 이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젠더 거버넌스를 위원회 위원 비율과 같이 공식적인 위치에 대해서만 측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가 단순히 봉사만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포함되었다. 또한 여행TF 회의에서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이 관 주도적이었던 점에 대한 반성과 자발적 거버넌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바, 자원봉사 혹은 자원활동으로서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하나의 방식으로서 성별 자원봉사 참여비율을 측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영역의 영역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목표 별 대표지표와 세부지표 별 산식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성주류화 강화	-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증가율,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 여성 대표성 제고	- 성별 의회의원 비율,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젠더 거버넌스 확대	-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성별 자원봉사 참여 비율

표 IV-15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세부지표별 산식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text{성인지 예산서 제출 실국 수} / \text{서울시 전체 실국 수}) \times 100$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text{당해연도 정책 건수} / \text{전년도 정책 건수}) \times 100$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text{성인지교육 이수자 수} / \text{전체 공무원 수}) \times 100$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의회 의원 비율	$(\text{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 \text{광역 및 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times 100$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text{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 \text{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 수}) \times 100$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text{서울시 및 자치구 위원회 여성위원 수} / \text{서울시 및 자치구 위원회 전체위원 수}) \times 100$
	성별 자원봉사 참여 비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이러한 대표지표의 측정 결과를 높이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성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정의 성주류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 행정통계의 성별분리생산이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의 개정을 통해 통계 작성의 사항이나 대상이 자연인일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11)</sup> 이미 행정통계의 성별 분리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

11)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7조(통계의 작성)**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시 정책의 수립·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1~2. 생략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 5~9. 생략

통계의 성별분리생산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의 홈페이지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성별 통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등록 장애인의 성별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관련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5급 이상 고위직에서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부분이므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여율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는 제외된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지표로 삼아 지속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젠더 거버넌스 확대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젠더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례로 최근 들어 금천구와 은평구 등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에 참여 주민 중 30%는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면 정책의 성주류화와 젠더 거버넌스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젠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지난 민선 4기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여행동반자, 자치구 여행포럼, 여행프로슈머 등 젠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던 바, 이들이 실제로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 시민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서울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서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V-16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영역 관련 서울시 여행 사업 현황

영역목표	분야	사업명	비고
성주류화 강화	성주류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예산제 시행</li> <li>○ 성별영향평가 내실화</li> <li>○ 양성평등 교육 강화</li> <li>○ 여행성과지수 개발 평가</li> </ul>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li> <li>○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li> </ul>	
젠더 거버넌스 확대	여성시민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주부모니터링단 운영</li> <li>○ 주부 프로슈머제 운영</li> <li>○ 주부식품안전지킴이 운영</li> </ul>	

대표지표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가율은 서울시 본청뿐만이 아니라 자치구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조례의 여성 참여 의무 비율 명시 정도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를 포함하도록 한다.

관리지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행정통계의 성별분리 생산 증가율
- 5급 이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가율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점수 향상률
-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배치 비율
- 각종 조례의 여성 참여 의무 비율 명시 정도
- 여행 동반자 시정 참여율
- 자치구 여행 포럼 구성 참여율
- 여행 프로슈머 활용율
- 여성 리더십 향상 사업의 여성 참여율

### 제3절 사회조사

#### 1. 조사 대상 집단 구성

사회조사를 위한 대상 집단은 2009년도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크게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혼인여부에 따라 비혼여성과 기혼여성을 구분하

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점차 커져가는 노인인구집단의 경험을 주요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노인집단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한부모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으로 보아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장애여성 및 미혼모, 성적소수자, 이주여성 등은 기타로 묶어 구분하였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비혼여성집단은 다시 십대 청소년과 취업/비취업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십대 청소년 집단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조사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설하였다. 십대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볼 수 있겠다. 여기서 소득수준은 빈곤가정 자녀 및 소녀가장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이다. 또한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을 구분하여 취업여부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연령과 소득수준이 기본 변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 즉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에 따라 취업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혼여성집단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는 가족동거여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기혼여성은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야 하며, 연령 및 자녀유무, 소득수준 등의 변수는 공통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 여부에 따라 소분류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여성노인집단과 여성한부모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집단 모두 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주요한 변수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외에 여성노인집단은 소득수준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성한부모집단은 연령과 소득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집단에는 장애여성, 미혼모, 성적소수자, 이주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여성은 전문가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분류인데, 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조사가 필요한 대상집단이라고 지적하여 포함되었다. 이 집단 모두 연령과 취업유무, 소득수준이 주요 변수로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여성의 경우 혼인여부와 자녀유무가,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유무가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한 주요 변수는 예시이므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변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위의 주요변수들은 사회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변수이므로 유지하고 이 밖에 필요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표 IV-17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

대분류	소분류	주요 변수 예시
비혼여성	십대 청소년	재학 유무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기혼여성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여성노인	취업 여성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비취업 여성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여성한부모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기타	장애여성	연령별, 취업유무별, 혼인여부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미혼모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성적소수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자녀유무별

## 2. 집단별 조사항목

### (1) 비혼여성집단

비혼여성집단에 대한 조사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혼여성집단 내 소분류인 십대 청소년, 비취업 여성, 취업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십대 청소년 내에서는 빈곤 가정 청소년이나 소녀 가장 등의 경험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취업 여성 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경험 및 욕구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 표 IV-18 】 사회조사분야 비혼여성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성희롱 포함), 용돈 마련 방법 (소년가장의 경우) 빈곤 실태, 생활비 마련 방법
	비취업 여성	취업 준비 방법, 취업을 위해 소요하는 사교육비 비용, 직업전망
	취업 여성	취업준비 기간, 직장 내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유무 및 실효성 장기적 직업 전망, 직장 내 차별(직장내 성희롱 포함), 경제활동만족도 직무향상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수요 직장내 성희롱 고충처리제도 유무 및 실효성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방법
돌봄	십대 청소년	(소년가장의 경우) 노인이나 동생 등 가족구성원 돌봄 실태
	비취업, 취업여성	돌봄 실태,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문화 및 여가	십대청소년	문화 및 여가 방법 및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청소년 문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만족도
	비취업, 취업 여성	문화 및 여가 방법 및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건강 및 안전	십대 청소년	피임방법 인지여부, (빈곤여성의 경우)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비취업 여성	건강관리 방법, 건강검진 실천(유방암 검진 여부 포함)
	취업 여성	직업 관련 질환 등 건강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건강검진 실천(유방암 검진 여부 포함)
도시공간 및 환경	십대 청소년	등하교길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학교 주변 전반적 도시 안전도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빈곤여성의 경우) 주거 실태, 먹거리 안전 문제
	비취업, 취업 여성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희망하는 거주형태 및 준비방법,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 만족도

## (2) 기혼여성집단

기혼여성집단의 조사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취업 여성, 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취업 여성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경험도 구분되어야 한다.

【 표 IV-19 】 사회조사분야 기혼여성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비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부 및 기간 등, 취창업 희망 여부, 취창업 준비방법 본인명의 재산 유무 및 정도
	취업 여성	남편과의 가사분담 및 양육분담 정도와 방법, 본인명의 재산 유무 및 정도, 직장 내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유무 및 실효성, 장기적 직업 전망, 직장 내 차별(직장내 성희롱 포함), 경제활동만족도, 직무향상교육 및 직업교육 프 로그램 참여도와 수요, 직장내 성희롱 고충처리제도 유무 및 실효성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방법
돌봄	비취업 여성	사교육비 부담 정도 및 마련방법, 노인부양비 및 경조사비 지출 정도, 가족 생애주기별 돌봄 실태, 자녀보육방법, 자녀교육 만족도 (무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계획 및 사유 등
	취업 여성	사교육비 부담 정도, 노인부양비 및 경조사비 지출 정도, 가족 생애주기별 돌봄 실태, 자녀보육방법, 자녀교육 만족도 (무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계획 및 사유 등
문화 및 여가	비취업 여성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자기계발 투자 정 도
	취업 여성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건강 및 안전	비취업 여성	자녀 안전 체감도,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건강 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건강 검진 실천
	취업 여성	자녀 안전 체감도,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건강 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건강 검진 실천, 직업 관련 질환
도시공간 및 환경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울 정주의식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 (3) 여성노인집단

여성노인집단의 조사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취업 여성, 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여성노인집단에 대한 조사에서는 취업 여부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동거인(자녀 등) 유무, 배우자 유무 등을 주요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V-20 사회조사분야 여성노인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비취업 여성	용돈 및 생활비 마련 방법, 취업 희망여부, 원하는 일자리 및 근무형태
	취업 여성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근무형태, 월 소득, 급여 만족도, 이직 및 전직 희망 여부, 원하는 일자리 및 근무형태 등
돌봄	비취업 여성	손자녀 돌봄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여부 및 만족도, 요양사 이용여부 및 만족도, 가족과의 갈등
	취업 여성	가족구성원 돌봄 문제,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갈등
문화 및 여가	공통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친구 등 네트워크 형성 방안
건강 및 안전	공통	건강관리 방법, 건강검진 실천, 질환 유무,
도시공간 및 환경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희망하는 거주형태,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울 정주의식,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4) 여성 한부모

여성 한부모집단의 조사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취업 여성, 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여성 한부모 집단의 경우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경험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IV-21 사회조사분야 여성한부모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비취업 여성	양육비 및 생활비 해결 방법, 취창업 희망여부, 원하는 일자리 및 고용형태, 취업 준비 방법 등, 미래계획 및 노후준비 방법
	취업 여성	고용형태, 소득 수준,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 방법, 직장 내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유무 및 실효성, 장기적 직업 전망, 직장 내 차별(직장내 성희롱 포함), 경제활동만족도, 직무향상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수요, 직장내 성희롱 고충처리제도 유무 및 실효성 미래계획 및 노후준비 방법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방법
돌봄	비취업 여성	자녀와의 갈등 문제, 혼자 사는 여성 및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취업 여성	양육비 해결 방법, 자녀와의 갈등 문제, 혼자 사는 여성 및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문화 및 여가	공통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친구 등 정서적 네트워크 형성 방안
건강 및 안전	비취업 여성	건강검진 실천 등 건강관리 문제
	취업 여성	건강검진 실천 등 건강관리 문제, 직업 관련 질환 등
도시공간 및 환경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울 정주의식, 지역사회 복지 정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수혜여부와 만족도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 (5) 기타

장애여성,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여성 집단의 사회조사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각각의 집단별로 조사 항목을 나열하였다. 각각의 집단에서 취업 여부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 변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의 조사 항목은 예시이므로 실제 조사 시 필요에 따라 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

▮ 표 IV-22 ▮ 사회조사분야 기타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장애여성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대책 및 준비 (비취업 여성의 경우) 자활센터 및 직업훈련원 이용 정도 및 만족도,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활용 정도, 원하는 일자리 및 근무형태, 장애인 취업차별 경험 (취업 여성의 경우)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장애인 차별 문제, 일-가족 양립문제
	미혼모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대책 및 준비 직업훈련기관 이용 정도 및 만족도,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활용 정도 (취업 여성의 경우)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미혼모 차별 인식, 일-가족 양립문제
	성적 소수자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대책 준비, 취창업 희망여부, 취업 준비 방법 (취업 여성의 경우)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이주여성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인종차별 등, 근무환경 안전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비취업 여성) 생활비 마련방법, 노후대책 및 준비, 취업 희망 여부, 구직활동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돌봄	장애여성	홈헬퍼 이용 만족도,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욕구, 자녀와의 갈등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해결 방법, 자녀 양육비용 마련 방법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욕구, 자녀와의 갈등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해결 방법, 자 녀 양육 비용 마련 방법
	성적 소수자	생애주기별 가족구성원(동거인 포함) 돌봄 문제, 성적 소수자의 돌봄 이슈 및 지 원 요구
	이주여성	자녀와의 갈등 문제, 자녀 학업 문제, 자녀의 체류자격 문제(미등록 이주여성노 동자의 경우)
문화 및 여가	공통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친구 등 정서적 네트 워크 형성 방안
건강 및 안전	장애여성	건강상태, 건강관리 및 건강실천 방법, 건강 관련 서비스 욕구 성폭력 경험 및 성폭력 대처 방법, 건강검진 실태
	미혼모	건강관리 및 건강실천 방법, 직업 관련 질환 여부, 건강검진 실태
	성적 소수자	건강관리 및 건강실천 방법, 성소수자의 건강 이슈, 직업 관련 질환 여부, 성폭 력 경험 및 성폭력 대처방법, 건강검진 실태
	이주여성	산재 및 직업 관련 질환 여부, 건강관리 및 건강 실천 방법, 성폭력 경험 및 성 폭력 대처방법, 병원 이용 여부, 건강검진 실태
도시공간 및 환경	장애여성	교통 수단(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마을버스, 지하철 등) 이용 만족도, 무상 집 수리 서비스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주거지원서비스 필요성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복지 정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수혜여부와 만족 도
	이주여성	주거환경 실태, 교통 만족도 및 안전도,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 등 주요시설 이 용 시 불편사항,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특히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단체),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 여여부, 시정만족도,

이상으로 사회조사 대상 집단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 대상 집단은 상호 중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항목이 단일한 이슈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이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성 노인이면서 성적 소수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목적과 조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바에 따라 조사 항목은 재배열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 V 결론

## 제1절 연구요약 및 함의

지금까지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과 양성평등지수 산출을 통해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과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제시한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는 민선 4기 동안의 현황과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비교를 통해 다른 국가들 및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위치가 어떠한지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민선 4기를 측정해 온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대체하여 민선 5기 동안 측정할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을 통해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은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는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성별 정규직 비율에서 지표값이 하락하였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대졸자 취업률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정규직 비율에서의 지표값 하락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화를 의심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취업률에서의 지표값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 상황 및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맞물리는 부분이겠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상태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진입장벽을 의심해볼 만하다.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여성의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진입장벽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고용평등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추후 이러한 노력들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단시간 근로제나 재택 근무와 같이 근무형태를 달리 하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에만 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성별 정규직 비율에서의 지표값 하락은 일자리 창출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못

지않게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별 평균임금비의 경우 지표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는 지역별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성별 평균 임금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별 평균 임금비는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지속 측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산하는 세계성별 격차지수(GGG Index)의 경제참여 부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완전평등지수가 1일 때, 한국은 0.52에 불과하며, 134개국 중 111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는 2009년도에 비해 2계단 상승한 것이기는 하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 지표값이 낮게 산출되고 있는 영역이다.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워낙 여성 비율이 낮아 지표값은 낮게 산출되고 있다.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은 성별 관계가 다른 지표와는 역전된 지표인데, 이는 일정 부분 산식에서 기인한다. 전체 주요부서 배치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이 영역의 전체 영역별 지수를 낮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과 성별 장애인 등록률의 경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지표값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표값이 가장 높았던 2006년도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중 여성노인이 많다는 점은 본 지표의 측정결과를 더욱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경제적 이유로 노인들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원하는 일이 없어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그나마 일을 하는 노인들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상황이다. 여성 노인의 빈곤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본 지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나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노인 복지 정책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표 개발 당시의 지표의 의미를 반영하여 본 지표의 측정 결과를 해석하였으나, 지표 자체가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본 지표의 한계이기도 하다.

지표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성별 장애인 등록률 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지표는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 편견, 등록 절차의 복잡함이나 정보 부재로 인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일반적으로 장애 출현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다고 보고되는데, 그 이유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장애 등록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회적인 편견이 약화되거나 장애 등록 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장애 등록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 지표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가지고 있어 성인지표로서 명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정책 대상으로서의 여성 장애인의 가시화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인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영역별 지수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성별 도시안전체감도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률에서 모두 지표값이 상승하였다.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은 지표값이 하락하였으나 이는 조사 문항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현실성을 다소 반영하지 못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성별 건강검진률은 성별 격차가 근소한 지표인데, 이 지표의 문제점은 남녀 모두 건강검진률 자체가 낮다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민선 4기 동안 영역별 지수와 양성평등지수는 모두 상승하였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영역별 지수값만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서울시 여성의 전반적인 성평등 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세부 지표별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일일 것이다.

지난 민선4기 동안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가 향상된 것은 사실상 오랜 여성운동과 여성학 발전의 성과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한국의 여성의식이 고양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민선5기에는 더욱 젠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시각과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표를 대체하여 민선 5기 동안 측정하게 될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 제안하였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크게 계량적 데이터로 측정하게 되는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부문과 다양한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사회조사 부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부문은 다시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로 구분하여 실제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영역	세부영역	대표지표	관리지표
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신규 여성 일자리 수 신규 여성 취업자 수 여성 취·창업 훈련 수료생 일자리 연계 비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관리직 증가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서울시 여성가족친화인증 기업 증가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강화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일-가족 양립 지원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부부 가사노동 시간			
돌봄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인증 서울형 어린이집 증가율 공공보육시설 증가율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증가율 노인복지시설 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여성 비율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수혜자 중 여성 비율
		아이돌봄미 지원 아동비율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확대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여성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율	
문화 및 여가	문화창조 활동 지원	성별 문화예술사업 중사인력비율	여성사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정도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의 여성 참여 비율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여성 예술가 입주 정도 여성 작가 전시 지원 비율 서울시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여성 참여 비율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 비율
		문화창조활동 지원금 수혜자 여성비율	
	문화 및 여가 향유 지원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건강 및 안전	여성 건강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보건소 내 건강증진사업 여성 이용 비율 여성 건강 증진 사업 이용 여성 증가율 인구 1,000명당 CCTV 설치 대수 CPTED 설계 도입 증가율 여행 콜택시 증가율 여성폭력 관련 시설 수 여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
		성별 유병률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여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도시공간 및 환경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성별 교통 만족도	저상버스 증가율 여행버스 증가율 여행길 증가율 여행화장실 증가율 여행아파트 증가율 여행 일반 건축물 증가율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증가율 자전거 전용 도로 증가율 생활 폐기물 재활용율
		성별 보행환경 만족도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도시환경 개선	대기오염도	
		도시 소음도	

영역	세부영역	대표지표	관리지표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행정통계의 성별분리 생산 증가율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5급 이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가율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점수 향상률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의회 의원 비율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배치 비율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각종 조례의 여성 참여 의무 비율 명시 정도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행 동반자 시정 참여율
성별 자원봉사 참여 비율		자치구 여행 포럼 구성 참여율	
			여행 프로슈머 활용율
			여성 리더십 향상 사업의 여성 참여율

이러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측정 및 관리를 통해 민선 5기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현황이 가시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측정하는 성평등 지표로서의 의의를 지녀왔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지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가 측정해왔던 지표들 중 그 의미가 큰 지표들을 포함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실제로 효과성을 낳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영역과 지표를 더하여 구성되었다. 특히 관리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실제로 수행되는 정책 및 사업과 대표지표의 측정 결과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및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다. 서울시에서는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공무원 승진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직의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06년도에 비해 조금 상승했다고 보이나, 여전히 지표값은 대단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여학생 대상 정치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젠더 거버넌스의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는 젠더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지표를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직접적으로 지표값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공식화한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정예의 여성 관점을 도입을 활발히 한다면 이는 여성의 정치적·행정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성별 정규직 비율’에서의 성별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여성 노동 관련 정책에서는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에 관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여성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국가 전체의 상황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표값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여성 고용 안정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보이고 민간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성별 평균임금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별 평균임금비는 여성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성별 평균임금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서울시 남녀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의 도시 안전도는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도시안전체감도에 있어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지만, 꾸준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안전 증



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2006년도 이후 여성의 도시 안전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왔다고 보인다.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도의 경우 향상 정도가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후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여성 및 아동의 안전한 도시 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는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나 ‘성별 건강검진률’과 같은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두 지표 모두 성별 격차는 미미하거나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검진률 자체가 낮다는 데 있다.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행정통계의 성별 분리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는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되지만,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 대상의 다양성이나 정책의 효과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조사통계의 경우 성별 분리 생산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생산되는 행정통계의 경우에는 성별 분리 통계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통계사무처리규칙의 개정을 통해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의 기반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 실제로 성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성과지표나 서울통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적 통계의 성별 분리 생산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통계의 성별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행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 역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필요나 정책의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공선희 외(2009),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양희 외(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김유나 외(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창연(2006), 「서울시 여성창업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재단법인 서울여성.
- 김창연 외(20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창연(2008), 「서울시 행정부문 성별분리통계 틀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창연(2010), “고용 양극화와 여성 고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미간행.
- 김태홍 외(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근간.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류정아(2005), 「문화정책의 성 인지 분석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유경 외(2005),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I) : 양성평등지표의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송다영 외(2008),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서베이」
- 유희정 외(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 이미원(2009), 「여성친화 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 이애경 외(2007), 「건강검진 수검자 만족도 및 미수검자 인식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미혜 외(2008),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
- 조영미 외(2006a),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재단법인 서울  
여성.
- 조영미 외(2006b), 「2007~2010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재단법인 서울여성.
- 조영미 외(2007),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영미 외(2008),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및 지수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영미 외(2009),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착을 위한 이론화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경미 외(2009), 「부산여성 생활조사 I : 지표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의회의원선거총람」, 「구·시·군 의원 선거총람」

최성애(2000), “노동조합과 성의 정치학”, 조순경 엮음,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홈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홈페이지,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東京都, 도쿄도총무국통계부사회통계과 노동력조사계(東京都総務局統計部社会統計課労働力調査係), 「도쿄의 노동력(노동력조사결과)(東京の労働力 (労働力調査結果))」, Statistics of Tokyo.

Berlin, Amt für Statistik Berlin-Brandenburg, *Statistisches Jahrbuch Berlin 2007*.

\_\_\_\_\_, *Statistisches Jahrbuch Berlin 2009*.

\_\_\_\_\_, 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Technologie und Frauen, Amt für Statistik Berlin-Brandenburg, *Gender Datenreport Berlin 2009*.

Stockholm, USK, *Statistik om Stockholm 2007*.

\_\_\_\_\_, *Statistik om Stockholm 2008*.

\_\_\_\_\_, Stockholm Office of Research and Statistics.

日本,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 Electronic Delivery.

Denmark, 덴마크 성평등부(Minister for Gender Equality)(2009), *Annual Report 2008 : Perspective and Action Plan for 2009*

New Zealand, 뉴질랜드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2008), *Indicators for Change: Tracking the progress of New Zealand Wome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Statistics, *Geographic Profile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2008*.

\_\_\_\_\_, *Geographic Profile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2009*.

IPU, IPU Archive of Statistical data.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OECD Publishing.

\_\_\_\_\_,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_\_\_\_\_,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Stat.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compiled from national official sources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Oxford.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Oxford.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Palgrave Macmillan.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 Palgrave Macmillan.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2008, Palgrave Macmillan.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Palgrave Macmillan.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Palgrave Macmillan.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2010-정책개발-009

## 2010 서울시 성인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김창연, 성유진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